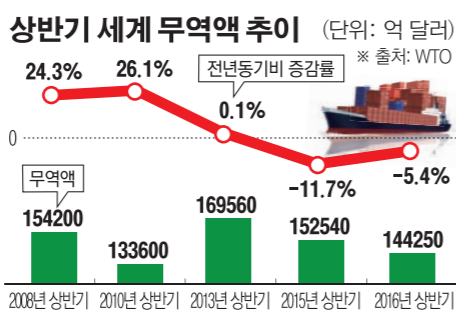


## 금융위기 때보다 심한 '무역 빙하기'

상반기 글로벌교역액 14.4조 달러  
2년 연속 감소... 6년 만에 최저치  
71개국 중 4분의 3 수출액 감소  
韓, 감소폭 '-9.9%' 전년대비 2배  
중, 수입·수출 마이너스로 전환



올해 상반기 세계 무역액이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위축됐다. 세계적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무역액이 2년 연속 줄어든 까닭이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례적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22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 세계 주요 71개국 간의 무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한 14조4250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로써 상반기 세계 무역액은 2010년 상반기(13조3600억 달러)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다. 상반기

세계 무역액은 2014년 17조2760억 달러를 정점으로 작년 상반기에 11.7% 급감한 데 이어 올해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무역액이 2년 연속으로 감소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한국의 수출액은 감소폭이 전년의 2배로 늘면서 수출액 순위도 세계 7위로 한 계단 낮아졌다. 상반기 한국의 수출액은 지난해엔 5% 감소했으나 올해엔 감소폭(-9.9%)이 2배로 확대됐다. 수출액이 급감한 국가는 한국뿐만이 아니다. 조사 대상국인 71개국 중 4분의 3이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 세계 상반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1% 줄어드는 데 그쳐 -11.0%를 기록한 지난해 상반기보다는 선방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아시아 국가의 수출액은 6.5% 감소해 전년 상반기(-6.0%)보다 감소율이 커졌다. 중국의 경우 상반기 수입은 10% 줄었고 전년에는 증가했던 수출도 7.7% 감소로 전환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수출 감소폭이 -11.3%로 가장 컸고, 말레이시아(-10.2%), 싱가포르(-10.0%), 한국(-9.9%), 대만(-9.1%) 등이 뒤를 이었다. 중국의 경제성장 부진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수출액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유가가 폭락하면서 주요 산유국의 수출도 타격을 입었다. 러시아의 상반기 수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29.3% 감소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노르웨이는 22.5% 줄었다. 김민호 기자 better68@

## 한진해운 결국 법정관리로 가나

“최근 적자 더 늘어 그룹지원 입장 밝혀라”  
채권단, 이번주 조양호 회장에 최후통첩  
용선료 협상 진전 없어... 이달말 평가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진해운을 살리기 위한 한진그룹 차원의 지원안과 관련해 채권단 내부에서는 그룹에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지원 입장을 밝히려는 ‘최후통첩’인 셈이다.

22일 채권단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한진해운에 (그룹 지원 여부 등) 직접적인 답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이달 안에 정리해 해야 하기에 이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용선료 협상 등을 성공한다 해도 부족 자금이 1조 원에 달한다”며 “반면 최근 적자를 기록하면서 부족 자금이 오히려 늘었기 때문에 조양호 회장이 그룹 차원에서 한진해운을 적극 지원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한진해운 자구안 제출은 19일이나 20일쯤 이뤄질 것으로 안다”며 “채권단의 추가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산은 회장이 직접 경영정상화 방안 제출을 압박했

나 답이 없자 공식적 입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진해운은 6월 4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표명한 뒤 추가 지원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선료 인하 협상과 선박금융 유예 협상은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대상자들이 채권단의 지원 규모가 적힌 콤포트 레터(Comfort letter)를 요구했지만 산은이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한진해운이 그룹 지원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법정 관리 외에는 선택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구조조정에 개입했다고 폭로한 서별관회의 파동으로 산은이 원칙을 깨고 한진해운에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채권단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한진해운을 원칙대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다만 채권단은 조 회장의 막판 지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채권단의 또 다른 관계자는 “확률적으로 조 회장의 지원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며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가는 날까지 선박금융 협상은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결론 시점은 이달 말이나 자율협약 종료(9월 4일) 직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

### 아듀 리우... 불꽃과 함께 막내린 올림픽



22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낭 경기장에서 2016 리우올림픽 폐막식이 화려한 불꽃과 함께 시작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뉴시스

## 공공기관 CEO 물갈이 본격화

석탄공사·남동발전·서부발전 등  
올해 말까지 60여 곳 수장 임기만료  
관피아·정피아 ‘낙하산 인사’ 우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본격화되고 있다. 올해 말까지 공기업 8곳을 포함해 60여 곳의 공공기관 CEO의 자리가 비기 때문이다. 한꺼번에 대규모 인선이 예정되다 보니 정권 말 막자 타켓을 놓고 ‘관피아’나 ‘정피아’ 등 낙하산 인사들의 보이지 않는 각축전이 예고된다. 이번 정권이 1년여 남은 상황에서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장들의 연임 또는 다른 기관으로 자리를 갈아타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또는 내년 초 임기가 종료되거나 기관장이 공석인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은 11곳에 달한다. 연말이 지나면 전체 공기업(30개) 수장 자리의 3분의 1이 바뀌게 되는 셈이다.

당장 다음 달로 임기를 채우는 기관장은 권혁수 한국석탄공사 사장, 허엽 남동발전 사장, 조인국 서부발전 사장,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4명이다. 이어 12월에는 현명관 한국마사회 회장과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임기가 끝난다. 내년 초에는 선원

표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내년 1월), 조환의 한전 사장(2월), 서종대 한국감정원 사장(3월) 등의 임기도 만료된다. 여기에 지난 4월 최계은 전 사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수자원공사, 6월 김한욱 전 사장의 임기가 끝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UDO) 새 수장을 맞을 준비로 분주하다.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주요 공공기관 중에서도 최근 김재수 사장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임명으로 공석이 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비롯해,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9월), 박구원 한국전력기술 사장(10월), 유재훈 위탁결재원 사장(11월), 김영학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12월) 등의 임기가 끝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장 인선작업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지난해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소폭 개각을 단행한 이후 인사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나 주무 부처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벌써부터 정권말 낙하산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재단말 공석인 사장 공모에 응모했던 후보자 3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사장 자리에 오르지 못했고, JDC 역시 4차례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에도 적격 후보자를 찾지 못하자 정피아 등 낙하산 인사가 내려올 것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민정 기자 puri21@

### 데이터 뉴스 Data News



### 100대 기업 근로자 임금 '빈익빈 부익부'

대기업 근로자 사이에서도 임금 격차가 600만 원가량 벌어지는 등 '빈익빈 부익부' 양상을 보였다. 22일 한국2대기업연구소가 올해 상반기 국내 상장 100대 기업 임직원의 평균 보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하위 20%에 속하는 대기업 직원은 월 241만 원, 상위 20%는 845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보수가 가장 높은 곳은 SK텔레콤으로, 상반기 6개월간 평균 6700만 원, 월 급여로 따지면 1120만 원이나 됐다. 조남호 기자 spdran@

스페셜 ▶ 18  
기업 지배구조 CJ

비즈&비즈 ▶ 18-19  
스포츠 마케팅

김시우 PGA 생애 첫승 ▶ 12

이투데이 모바일로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서울여자대학교  
SEOUL WOMEN'S UNIVERSITY

## 세상을 움직이는 '우리'의 힘, 서울여자대학교에 있습니다

-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최우수 A등급
- ★ 미래부 정보보호특성화대학
- ★ 학부교육선도(ACE)대학
- ★ 수도권대학 특성화 5개 사업단
- ★ 미래부 소프트웨어중심대학
- ★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 ★ 대학 최초 대한민국 인성교육 대상

우 리 는  
나 보 다  
똑 똑  
합 니 다

원문서관 박소현

서울여자대학교  
2017학년도 수시모집

- 인터넷 원서접수 | 2016.9.13(화) 10:00~9.20(화) 17:00
- 입학상담 및 문의 | 02-970-5051~4 http://admission.swu.ac.kr

잡기르치는 대학  
서울여자대학교



메달의 유무, 메달의 색은 중요하지 않았다. 모두가 한 편의 감동 드라마를 쓴 리우의 주인공이다. 왼쪽부터 여자 양궁 개인전·단체전 금메달 장혜진 선수, 남자 50m 권총 금메달 진중오 선수, 펜싱 남자 개인 에페 금메달 박상영 선수, 태권도 남자 68kg급 동메달 이대훈 선수, 리듬체조 개인종합 4위 손연재 선수.

# 한국, 올림픽 4회 연속 '톱10'... 잘 싸웠지만 숙제 남았다

마라카냥 주경기장의 성화가 꺼지며, 제31회 2016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이 17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올림픽은 120년 역사상 최초로 남미 대륙에서 개최됐다. 한국선수단은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 동메달 9개를 따내 208개 출전국(난민팀 제외) 중 종합 8위를 차지했다. 3회 연속 '10-10(금메달 10개 이상-종합순위 10위 이내)' 달성은 실패했지만, 하계올림픽 4회 연속 톱10을 기록하며 의미를 남겼다.

◇한국선수단 종합 8위... 환희와 아쉬움 교차= 리우올림픽에서 한국은 남녀 양궁에서 금메달 4개(개인전·단체전)를 휩쓴 것을 필두로 사격 1개(남자 50m 권총), 펜싱 1개(남자 에페), 태권도 2개(여자 49kg급·여자 67kg급), 여자골프 1개를 합쳐 총 9개의 금메달을 수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이탈리아(금 8·은 12·동 8), 호주(금 8·은 11·동 10), 네덜란드(금 8·은 7·동 4)의 막판 추격을 따돌리고 8위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한국은 금메달 1개가 부족해 예초 목표로 세운 3회 연속 '10-10' 달성은 실패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기대했던 유도·레슬링 등에서 '금빛 사냥'에 실패하며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의 전통적 '효자 종목'들

금·은·동·9... 종합 8위로 마감 3회 연속 '10-10' 목표 못이뤘지만 양궁 전종목 석권·태권도 전원 메달 사격·펜싱도 금메달 하나씩 힘 보태

유도·레슬링·배드민턴 노골드 부진 탁구 28년 만에 첫 노메달 수도 육상 등 기초종목 메달 획득 실패

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양궁과 태권도의 선전이 한국의 메달 레이스를 지탱했다. 특히 양궁은 올림픽 사상 최초로 전 종목 석권의 위업을 달성하는 성적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했다. 세계 최강 한국 양궁이지만, 올림픽 금메달 4개를 싹쓸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태권도도 제 몫을 했다. 2개의 금메달을 따내 이번 대회 중반 한국의 메달 레이스에 힘을 보탤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금 4) 성적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4년 전(금 1·은 1)의 부진을 씻어냈다. 런던올림픽에서 각각 금메달 3개와 2개를 따내며 '신화 종목'으로 떠올랐던 사격과 펜싱도 1개씩

순위	국가	금	은	동
1위	미국	46	37	38
2위	영국	27	23	17
3위	중국	26	18	26
4위	러시아	19	18	19
5위	독일	17	10	15
6위	일본	12	8	21
7위	프랑스	10	18	14
8위	한국	9	3	9
9위	이탈리아	8	12	8
10위	호주	8	11	10

금메달을 이었다. 116년 만에 올림픽에 재등장한 여자골프에서는 '골프 여제' 박인비가 최종 합계 16언더파 268타를 기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러나 유도·레슬링, 배드민턴 등은 충격적인 '노골드' 대회를 마감하며 한국선수단의 목표였던 '10-10' 달성에 치명타를 입혔다. 특히 전원 메달을 노렸던 유도는 큰 실망감을 안겼다. 유도 대표팀은 "최소한 금메달 2개를 따겠다"고 장담했으나 '노골드(은 2·동 1)'의 수모를 당했다. '노골드'는 2000년 시드니대회(은 2·동 3) 이후 16년 만이다.

배드민턴(동 1)도 자존심을 구겼다. 기대했던 남

자복식 이은다·유연성이 8강에서 탈락한 것을 비롯, 대다수 종목에서 4강 문턱에도 가지 못했다. 그나마 여자복식의 정경은·신승찬이 동메달을 획득한 것이 위안이다.

탁구는 28년 만에 첫 노메달의 수모를 겪었다. 금메달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올림픽 '빈손'은 처음이다. 또 올림픽 단체 구기 종목 중 가장 많은 메달(금 2·은 3·동 1)을 획득한 대표적인 효자 종목 여자 핸드볼은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조별 리그 통과가 좌절됐다.

◇기초 종목... 영원한 숙제로 남아= 기초 종목 강화는 또다시 과제로 남았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기초 종목에서 크게 발전한 모습을 보여 한국과 대조됐다.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육상 47·수영 33·체조 14)이 걸린 기초종목에서 한국은 단 한 개의 메달도 얻지 못했다. 리듬체조 사상 첫 메달에 도전했던 손연재는 무결점 연기를 펼쳤지만, 아쉽게도 4위에 그쳤다. 도핑 파문 탓에 훈련이 부족했던 박태환은 주 종목인 남자 자유형 400m와 200m에 이어 자유형 100m에서도 예선 탈락했다.

스포츠 강국 중국과 이번 올림픽에서 역대 최다 메달을 따낸 일본은 육상, 수영, 체조 종목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중국은 육상에서 남녀 20km 경보를 석권했고, 수영 남자 자유형 200m

에서 쏬양이 금메달을 췄다. 남자 20km 경보, 여자 해머 던지기, 남자 배영 100m, 남자 400m 자유형에서는 은메달(육상 2, 수영 2)이 나왔다. 남자 세단뛰기, 여자 20km 경보, 남자 개인 혼영 200m, 여자 100m, 200m 배영, 남녀 체조 단체에서는 동메달(육상 2·수영 3·체조 2)을 따냈다.

일본은 수영에서 남자 개인 혼영 200m에서 하기노 고스케가, 여자 배영 200m에서 가네토 리에가 금메달을 따냈다. 체조에서는 우치무라 고타이가 단체와 개인에서 2관왕에 올랐다. 강세를 보였던 수영과 체조에서는 동메달 3개와 1개씩을 추가했다. 놀라운 건 육상이다. 일본은 경보 50km에서 아라이 히로키가 동메달을 손에 넣으며 올림픽 경보 사상 첫 메달을 수확했다. 그리고 자메이카와 미국이 양분하던 남자 4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뤘다.

한편 이번 올림픽 종합 1위는 금메달 46개, 은메달 37개, 동메달 38로 무려 120개의 메달을 확보한 미국이 차지했다. 영국은 금메달 27개, 은메달 23개, 동메달 17개를 따내는 놀라운 성적으로 중국(금 26·은 18·동 26)을 3위로 따돌리고 2위에 올랐다. 개최국 브라질은 금메달 7개, 은메달 6개, 동메달 6개를 획득, 역대 최고 성적으로 종합 13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올림픽TFT=김미정 기자 mj@



## 올림픽도 '인비 천하'

116년 만의 여자골프 금메달 4대 메이저 이어 올림픽 제패 사상 첫 '커리어 골든 슬램'

한국 여자 골프 대표팀 박인비가 20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골프경기장에서 열린 2016 리우올림픽 여자 골프 결승라운드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LPGA

“내 한계를 넘고 나서 받은 보상이라 더 행복합니다.”

한국에 금메달을 안겨준 '주부여자프로골프' 박인비(28·KB금융그룹)는 독종이다. 손가락 인대 부상으로 출전을 포기할 뻔했던 그는 대회 내내 얼음찜질을 해가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냈다. 통증이 심해 잠을 자다가도 눈물이 저절로 났다. 하지만 그는 세계 랭커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21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올림픽 골프 코스에서 막을 내린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여자골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16년 만에 세계골프사를 다시 쓴 것이다. 4대 메이저 대회를 석권하는 '커리어 그랜드 슬램'에 이어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며 '커리어 골든 슬램'도 달성했다.

사실 그는 올림픽 대표선수로 선발되고 나서 고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시즌 초 허리 부상으로 시즌은 엄지손가락 부상으로 우승은커녕 메이저대회 컷오프에 대해 불참으로 이어지는 등 최악의 시즌을 보낸 탓이다. 특히 그를 비방하는 '악플'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 2개월 만에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해 출전한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서 컷오프를 당했다. 이것이 빌미가 됐다. "출전한다고 하지 말았어야지. 올림픽 카드 한 장만 날렸다" "국민의 세금으로 리우에 가면서 세 금만 축낼 것 같다" 등 각종 비난의 글이 쏟아졌

다. 그래서 그는 더욱 포기할 수 없었다.

박인비에겐 큰 시련이 없었다.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일찌감치 미국으로 건너가 주니어 시절 이미 그란을 평정했다. 놀랄 것이 없다. 하지만 그도 프로에 데뷔하고 나서 슬럼프를 겪었다. 그는 2008년 US여자오픈을 제패하며 유망주로 떠올랐다. 오비라카인. 그는 이후 부진에 빠지며 골프팬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너무 어린 나이에 메이저대회 우승이라는 짐을 감당하지 못하고 슬럼프에 빠진 것이다. 그래서 도망간 곳이 일본이다. 일본프로골프(JLPGA)투어에서 활동하다가 2012년 LPGA 투어 예비양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오르며 미국 무대로 복귀했다.

2013년 혼다 LPGA 타이틀에서 시즌 첫 승을 올린 그는 이후 ANA 인스퍼레이션, LPGA 챔피언십, US여자오픈을 차례로 제패하며 한 시즌에 3개의 메이저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2014년 LPGA 챔피언십에서 우승컵을 안은 그는 2015년 LPGA 챔피언십에서 3년 연속 우승을 달성하거나 브리티시여자오픈까지 제패, 5개 메이저 우승컵을 모두 손에 쥐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했다. 그가 지난해까지 우승한 것은 메이저대회 7개를 포함해 LPGA 투어 우승 타이틀이 17개나 된다. 이것으로 올해 우승 없이 지난 LPGA 위민스 PGA 챔피언십 1라운드를 마치고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박인비의 이번 우승은 그의 지혜로운 두뇌에서 나왔다. 함께 플레이했던 선수들보다 늘 거리가 달랐다. 그러나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다음 샷을 위해 최적의 페어웨이 랜딩존을 찾아서 플레이했다. 벙커와 워터해저드 방향은 아예 보지도 않았다. 절대로 피했다. 링크스의 까다로운과 타수에 결정타를 주는 위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 그리고 드라이버와 우드로 볼을 멀리 보낸 뒤 그런 주변에서 자신의 강점인 쇼트게임과 퍼팅에 모든 것을 걸었다. 머리 좋은 박인비가 세운 코스 매니지먼트의 완벽한 승리인 셈이다.

세계골프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박인비. 그의 금메달은 메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박세리(39·하나금융그룹) '키즈'로 골프를 시작해 올림픽 기간 감독 박세리와 한솥밥을 먹으면서 귀중한 메달을 한국에 안겼다. 또한 스포츠가 가진 '힐링'을 우리 국민 모두에게 선사했다. 특히 침체에 빠져 있는 한국 골프계의 구원 투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인비 키즈'를 양성하며 한국 골프계의 발전을 50년 정도는 앞당기지 않을까 싶다. '맨발의 신화'를 이룬 박세리가 그랬던 것처럼, '인비 천하'를 이룬 박인비를 2020년 도쿄올림픽 그라운드에서 또 볼 수 있을까.

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58@

## 리우서 뜬 별 진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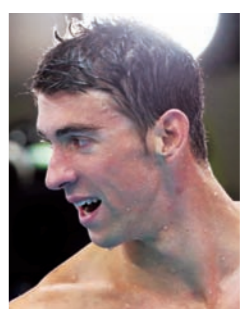
### 이대훈, 금메달보다 빛난 스포츠정신 펠프스, 수영 5관왕 '화려한 피날레'

스포츠는 스타를 만든다. 누군가는 새로 주목 받는다. 그 반대편에서는 대중의 시선에서 멀어지는 이들이 있다. 이번 올림픽 역시 마찬가지다. 국내에서는 한국 양궁 대표팀이 많은 스타를 배출했다. 이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참가한 양궁 대표팀 중 올림픽 경향이 있었던 선수는 2012년 런던에서 금메달을 딴 기보배(28·광주시청)뿐이다. 나머지 여자팀의 장혜진(29·LH)과 최미선(20·광주여대), 남자팀의 김우진(24·청주시청), 구본찬(23·현대제철), 이순은(21·코오롱엑스텐보이즈)은 이번이 올림픽 첫 무대다.

그러나 이들은 사상 최초로 양궁 전 종목 석권이라는 성과를 달성하며 단숨에 주목받는 선수가 됐다. 특히 2인자의 실움을 딛고 남녀 2관왕의 주인공이 된 장혜진과 구본찬은 한국 선수단이 올림픽에서 배출한 최고의 스타였다.

한국 태권도의 이대훈(24·한국국가공사)도 이번 올림픽에서 단숨에 주목받는 선수로 부상했다. 이대훈이 주목받은 것은 메달 색깔이라는 성과보다는 스포츠를 대하는 자세였다. 그는 남자 68kg급 8강전에서 패한 뒤에도 상대 선수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려줬다. 이후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이건 기쁨보다는 상대의 슬픔을 더 달래주고 싶었다"며 "결과에 만족한다. 흥분하게 끝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 여자 기계체조 지형을 바꾼 시몬 바일스(19·미국)도 리우에서 세계적인 스타로 떠올랐다. 바일스는 단체전을 시작으로 개인종합, 도마, 마루까지 금메달 4개를 목에 걸었다. 그는 평균대에서는 동메달을 따냈다.



여자 자유형 100m 공동 금메달리스트인 시몬 마누엘(20·미국)도 리우의 스타에서 빠놓을 수 없다. 공교롭게도 '시몬'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두 흑인 여자 선수가 백인 위주였던 체조와 수영에서 금메달을 따

내자 전 미국을 넘어 세계가 열광했다.

올림픽 여자골프에서는 깜짝 스타도 나왔다. 마리아 베르체노바(30·러시아)는 여자골프 4라운드 경기에서 9언더파 62타를 치면서 올림픽 남녀골프를 통틀어 최스타를 기록했다. 그는 4라운드 경기에서 홀인원을 하기도 했다. 러시아의 사상 첫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선수인 베르체노바는 뛰어난 패션과 모델 활동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는 이번 올림픽에서 실력도 이에 못지않다는 것을 입증했다.

떠나는 별도 있었다.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31·미국·시진)는 리우올림픽에서 5관왕에 오르며 개인 통산 23번째 올림픽 금메달과 함께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 미국올림픽위원회(USOC)의 자료에 따르면 펠프스를 한 국가로 치면, 그의 금메달 수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역대 32위에 해당한다.

장대높이뛰기 세계신기록만 17차례 세운 '미녀세' 엘레나 이신바예바(34·러시아)는 지는 별이 됐다. 그는 자국이 도핑 때문에 휘말린 탓에 리우올림픽 출전이 좌절됐다. 강제 은퇴를 당한 이신바예바는 유승민(34)과 함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으로 뽑히며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올림픽TFT=최재혁 기자 freshphase@

# 자구책 찾지 못하는 한진해운...더는 못기다리겠다는 산은

### 내달 4일 자율협약 종료...벼랑 끝 몰린 한진해운



**한진해운 “4000억” vs 채권단 “7000억”**  
**유동성 확보 자금 규모 놓고 평행선**  
**산은 등 채권단 이번주중 회의 소집... “자구책 제출 상관없이 처리방안 논의”**

유동성 확보 방안을 포함한 최종 자구계획안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는 한진해운이 채권단과의 길고 긴 협거루기 싸움을 끝내야 할 시점에 당도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다음달 4일 한진해운에 대한 채권단 공동관리 절차(자율협약) 종료 시점을 감안할 경우, 늦어도 이번주 중에는 자구안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22일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마감 기한을 감안하면 이번주 중 자구안을 꼭 제출해야 한다”며 “한진해운의 유동성 방안을 확인해야 채권단 차원에서 이후 처리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채권단은 한진해운의 요청에 따라 한진해운에 대한 조건부 자율협약 기한을 한 달 연장해 종료 시점을 다음달 4일로 연기했다.

자율협약 종료 이전에 자구안 검토 시간과 다음달 2일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 등 관련 행정절차 소요 시간을 놓고 볼 때 사실상 자구안 제출 적정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게 채권단의 중론이다.

- 한진해운 구조조정 일정**
- 4월 25일 자율협약 채권단 공동관리 절차 신청
  - 4월 26일 정부, 3차 구조조정 협의체 개최
  - 5월 4일 채권단, 한진해운 자율협약 개시 결정
  - 5월 13일 한진해운, 해운동맹 '디얼라이언스' 결성
  - 5월 19일 358억 원 규모 회사채 만기 연장 성공
  - 6월 17일 1900억 원 규모 회사채 만기 연장 성공
  - 8월 4일 채권단, 한진해운 자율협약 기한 한 달 연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한진해운이 19~20일경 향후 계획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조건부 자율협약을 진행했던 현대상선과 비교해 봐도 뒤늦은 행보로 평가된다.

현대상선은 지난 7월 28일 자율협약 마감에 앞서 6월 10일 용선료 인하 협상을 타결해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와 관련해 채권단과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 한진해운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크게 용선료 인하 협상 △선박금융 만기 연장 협상 △사채권자 집회 통한 채무재조정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금 조달 등 4가지다.

특히 한진해운과 채권단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자금 조달액이다. 현재 한진해운이 마련할 수 있는 최대 자금은 4000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채권단에서는 당장 필요한 자금을 7000억~1조 원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채권단 지원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채권단은 한진해운의 자구안 제출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번 주 채권단 회의를 소집해 한진해운 처리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내놓은 자구안을 토대로 채권단과 논의를 거쳐 향후 계획에 대해 방향을 정해야 한다”면서 “자구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하더라도 채권단과 모여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성별 기자 byul0104@**

## 투자자는 불안

**법정관리 가능성에 5%↓...저가매수세 유입 다시 1.39%↑**  
**뚜렷한 방향성 없이 ‘오르락내리락’**

**최근 美 롱비치터미널 지분인수 추진 등 법정관리전 알짜자산 쟁기? 불안감 더해**

‘법정관리’ 가능성에 급락했던 한진해운 주가가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주가는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22일 오전 9시 20분 현재 한진해운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39% 오른 1830원에 거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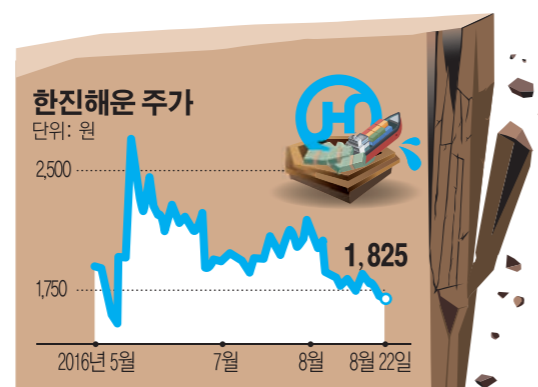
한진해운은 지난 19일 전 거래일보다 5.00% 내린 1805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 중 한때는 5.79%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한진해운이 유동성 확보 방안을 두고 채권단과 팽팽히 맞서면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진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급락 하루 만에 주가는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다. 주가 하락에 따른 매수 세력이 유입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 분석이다.

또한 한진해운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른 조건들은 대부분 충족시킨 상황이라는 점에서 법정관리 가능성을 거론하기에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채권단이 유동성 문제와 관련해 한진해운의 ‘성’의 있는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한진 측에서 한진해운의 아시아 8개



항로에 대한 영업권 및 베트남 탄깁카이엠 터미널 지분 등을 사들이며 약 85억 원을 지원한 데다 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 인수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진해운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대비해 미리 ‘알짜 자산’을 쟁기놓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서다.

여기에 한진해운의 최근 경영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점도 주가 약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임정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진해운은 계속되는 영업손실로 3개년 누적손실액이 1조70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2015년 말 부채비율이 848%를 기록했다”며 “올해 만기 도래 회사채가 약 1조 원에 달하는 등 유동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선영 기자 moon@**

## 숨죽인 해운·항만업계

# “법정관리면 선주들 계약 파기로 직결...사실상 파산”

한진해운이 그룹 차원의 유동성 지원이 담보 상태에 빠지면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법정관리를 놓고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해운 업황이 시계제로에 놓이게 되자, 한진해운 추가 지원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 정리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22일 해운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한진그룹과 채권단이 7000억 원의 부족 자금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자, 법정관리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채권단은 내달 4일 조건부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종료 시한을 앞두고 이번주를 유동성 지원 방안의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다.

결과적으로 조 회장이 이번주 중 그룹 차원의 유동성 수혈을 결정하지 못하면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로 가게 될 공산이 매우 크다는 예기다.

시장에서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돌입할

**해운동맹서 퇴출...기항지서 제외**  
**부산항 출타적 年 물동량 813만 TEU ↓**  
**5400여명 노동자 실직 위기 내몰려**

경우 그 과정이 예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해운산업은 물론 항만업이 치명적 타격을 입는 등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엇보다 해운사의 법정관리는 일반 제조업체와 확연한 차이가 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우선 선주들의 계약 파기로 직결된다. 계약파기는 곧 선박 회수로 이어져 사실상 한진해운은 파산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우리 항만업에도 치명타를 안길 것으로

예측된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현재 소속된 해운동맹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동맹 해운사들은 한국 항구에 기항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한국선주협회는 부산항의 경우 외국 해운사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연간 물동량 813만 TEU(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7개)가 줄어 직접적으로 5400여 명의 해운·항만업계 노동자들이 실직 위기에 몰리게 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한편 시장에서는 최근 한진그룹이 한진해운의 알짜 자산을 계속 매입하자, 법정관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알짜 자산을 사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한진은 지난 12일 한진해운의 미국 롱비치터미널 유동화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롱비치터미널은 한진해운이 보유한 터미널 10여 곳 가운데 가장 핵심으로 우량 자산이다. **안철우 기자 acw@**

**에너지에서 찾은 미래 에너지신산업**  
 새우로 100억 원 투자  
 • 제주 탐라해상풍력 조감도  
 한국남동발전 해상풍력발전기 107기(30MW) 설치 중

**KOEEN이 말하는 에너지신바람**

**한국남동발전 대한민국 에너지신산업을 이끌어갑니다.**

세계 최초 발전소 냉각수를 활용한 삼천포 해양 소수력 개발 (영흥화력에 확대 설치)  
 1MWp 태양광 발전소 영흥본부에 설치(삼천포, 영동, 여수, 분당본부에 확대 설치 운영)  
 국내 최대 국산풍력단지(46MW)건설  
 국내 최초 계통연계형 300kW급 연료전지 설치(2013년 3MW규모로 중실)  
 발전사 최초 계통연계형 태양광(100kW) 사업  
 불가리아 태양광(41.62MW), 미국 풍력 (120MW) 운영 관리

신재생에너지 비전 2025 수립 및 신규 개발 투자에 매진함으로써 2025년까지 총 발전량의 35%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KOEN 한국남동발전**  
 Clean & Smart Energy Leader

# 정쟁에 실업자 고통 또 외면한 여야

野 “최경환·홍기택 등 핵심 증인 출석해야 추경 협조”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청문회 증인 채택 합의 못해  
조선·해운업 부실화 책임 따질 서별관청문회도 차질

여야3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추가 경정예산안의 22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가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추경안 처리는 물론 조선·해운업 부실화에 대한 책임을 따져 볼 서별관청문회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다.

여야3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전날 추경안 처리와 서별관청문회를 두고 서울 강남 모처에서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

갔으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에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기존 입장만 재확인하는 지리였다.

새누리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오늘 만나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서별관청문회) 증인채택뿐만 아니라 (기재·정무위) 연석회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역

시 “오늘 만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재협상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전날 협상에서) 원내수석 간 원칙적인 얘기만 주고받았다”며 “오늘 본회의는 사실상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여야3당은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안 처리와 서별관청문회 개최, 세월호 선체 조사 보장, 누리과정 예산 협의의 진행 등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이 서별관청문회에 최경환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 핵심 증인이 출석해야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

어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청문회의 증인 증복 등 비효율성을 이유로 야당의 특정 증인 채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 여당은 ‘선(先) 추경, 후(後) 청문회’, 야당은 ‘선(先) 청문회, 후(後)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추경안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추경 항목 중 일부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가 이날 다시 만나 극적 타결을 이뤄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가 열릴 경우 25일께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광호 기자 khlee@

## 대한상의 찾은 김종인 더민주 대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부터),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한국IPTV방송협회장에 신동철 전 靑 비서관 물망

박근혜 정부 시절로 꼽히는 신동철 전 정부비서관이 차기 한국 IPTV방송협회장(KIBA)으로 부각되고 있다. 신 전 비서관은 2007년 한나라당(옛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도운 최측근 인사다. 최근에는 KB국민은행 상임감사 내정설이 돌기도 했다.

22일 업계 고위 관계자는 “지난 4월 청와대에서 나온 신 전 비서관이 고심 끝에 KIBA 회장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KIBA는 출범 10년이 채 안 된 유료방송협회의 이익단체지만, 신 전 비서관과 같은 인물이 오면 정부와 적극적인 정책 소통으로 유료방송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KIBA의 현 수장은 이종원 회장으로, 오는 10월 말 임기가 만료된다. 신 전 비서관을 유력 후보자로 지목한 이 관계자는 “현 협회장의 임기가 아직 2개월 정도 남아 있는 만큼, 이후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지난 2008년 출범한 KIBA(당시 한국 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는 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사업자로 구성된 이익단체로, 이른바 정권 실세로 불리는 인물들의 이름이 수차례 오른 바 있다. 2년 임기제의 KIBA 회장직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언론특보를 지낸 김인규 씨가 초대 회장을 맡았다. 이어 김인규 회장이 KBS 사장으로 옮기면서 연합사 출신의 김원호 회장이 2대 회장으로 취임 후 재선임됐지만, 2013년 5월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바뀌었다. 그 자리에는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내정됐던 이종원 조선일보 부국장이 선출됐고, 연임을 통해 지금까지 이끌고 있다. 양창근 기자 yangck@

## 공정위 “日 롯데 지분 허위공시” 신격호 고발 검토

### 광운사 등 기타주주로...공정법 위반 11개 국내 계열사엔 5억원대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내 계열사의 지분 소유 현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공정위와 롯데그룹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롯데의 11개 국내 계열사에 대해 5억7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호텔롯데에 4500만 원, 롯데물산 5500만 원, 롯데로지스틱스 6300만 원 등이다. 과태료가 각기 다른 이유는 공시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해외계사가 보유한 국내 계열사의 지분율이 많을수록, 기존의 공시위반 경력이 많을수록 벌금

이 가중된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소유한 기업과 지분을 공정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총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광운사, 롯데호텔 등 36개 일본 내 계열사를 계열사가 아닌 기타주주로 공시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롯데는 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로지스틱스, 롯데알미늄 등 국내 핵심 계열사 11곳의 지분을 보유한 일본 광운사, 롯데호텔 등을 총수 일가와 관련이 없는 기타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공정위에 보고하고 공시해 왔다.

새로 밝혀진 해외 계열사 주주 현황

을 반영하면 국내 롯데그룹의 내부 지분율은 62.9%에서 85.6%로 올라간다. 공정위가 국내 롯데를 쥐락펴락하는 일본 계열사 주주 현황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동등격로 ‘기타주주’로 보고·공시한 행위를 고의적으로 보는 이유다.

특히 공정위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롯데그룹이 고의적으로 주주 소유 현황을 허위 신고했는지, 그룹 총수인 총괄회장이 의도적으로 자료를 허위 제출했는지를 조사한 뒤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롯데 11개 계열사는 지난달 26일 일제히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냈다. 롯데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도훈 기자 sogood@

## 배출가스 초과 ‘올란도 2.0 LPG’ 1만5056대 리콜

### 공기량 조절 스톱밸브 벨브 오류

한국지엠의 올란도 2.0 LPG 1만5056대가 일산화탄소 등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해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받았다.

환경부는 2011년 5월 6일부터 2013년 10월 7일까지 생산된 올란도 2.0 LPG 차

량 총 1만5056대의 배출가스 개선을 위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가 올란도 10대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일산화탄소(CO)는 10대 모두 배출허용 기준인 1.06g/km를 초과한 1.847~4.556g/km로 나타났다.

또 평균 탄화수소(NMOG)는 10대 평균 배출값이 배출허용 기준인 0.025g/

km를 초과한 0.027g/km를 기록해 최종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배출허용 기준 부적합의 원인은 흡입 공기량을 조절하는 스톱밸브 내부 표면탄소물질(카본)이 퇴적돼 스톱밸브의 개도 제어에 오류가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스톱밸브 표면이 카본이 쌓이면 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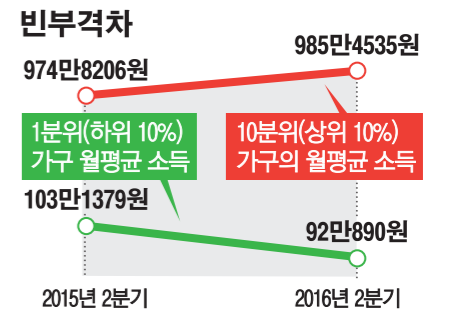
입공기량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불완전 연소돼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의 배출량이 증가한다. 이에 한국지엠은 전자 제어장치(ECU)의 제어 기능을 개선한 소프트웨어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2011년 5월 6일부터 2013년 10월 7일까지 생산된 올란도 2.0 LPG 차량의 소유자가 대상으로, 무상 리콜과 함께 과도한 카본 퇴적을 방지하기 위해 주행거리 8만km(킬로미터)마다 스톱밸브 벨브의 무상 세척도 실시한다.

박엘리 기자 ellee@

## 소득 양극화 완화? 수치는 단판

정부 “지니계수 근거... 격차 줄어”  
통계청 2분기 조사결과에선 늘어나  
상·하위 10% 월소득차도 10.7배로



정부는 한국 사회의 빈부 격차가 완화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통계상 소득 불평등은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소득 양극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은 4.51배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9배보다 높아졌다.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2008년 4.98배를 기록한 이후 2014년 4.45배, 지난해 4.22배로 떨어졌으나 올해 들어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수 등 객관적 지표에 기초해 볼 때 소득 분배 추세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 가구의 하위 10% 가구의 월 평균 소득 격차도 10.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1분위(하위 1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2만89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3만1379원에 비해 10.7%인 11만489원이 감소했다. 올해 2분기 전체 가구의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지만 1분위 가구는 16.9%, 2분위 가구는 5.8% 각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상위 1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분기 연속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가 완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지니계수다. 전체 가구의 지니계수는 2009년 0.314를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는 0.295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0.3 아래로 떨어졌다. 0-1 사이로 나오는 지니계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빈부격차가 심하다.

지니계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의 대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평등이 확산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니계수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고소득자가 실제보다 적게 파악될수록 지니계수는 낮게 나타나 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오해를 빚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사·일용직과 고령층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분기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추경 등 재정보강 대책의 신속한 추진과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엘리 기자 ellee@

## 중고품 ‘부가세 중복과세’ 해결



### 더민주 오제세 의원 발의

중고품에 매겨지는 중복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차액과세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럽연합(EU) 국가와 같이 중고품에 대해 차액과세방법을 도입하지는 취지다.

개정안은 중고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서 중고품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제는 각 거래단계에 부가되는 가치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과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로 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중고품의 경우 중고자동차 등 일부 제외에만 제한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 제외도 일부에 불과해 중복과세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을뿐더러 그 대상 제외도 일부에 불과해 중복과세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프랑스, 독일, 영국 등 EU 국가처럼 중고품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차액과세방법을 도입해 중복과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필호 기자 beetlebun@

## 미래부, VR 산업육성 위해 내년까지 400억 펀드 조성

정부가 국내 가상현실(VR)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까지 4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재유 2차관 주재로 ‘제24차 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VR 중소벤처기업과 투자운용사가 참여, 국내 VR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투자 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놨다.

미래부는 이번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까지 400억 원 규모의 VR 전문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펀드를 통해 VR, 증강현실(AR) 분야의 게임, 테마파크, 교육 등 분야별 원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 마케팅 등에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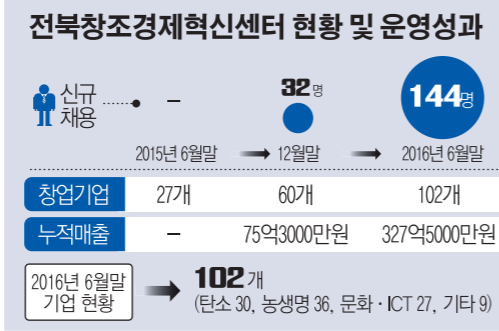
최재유 2차관은 “VR 펀드 조성과 세제 혜택, VR 클러스터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는 2020년까지 VR 전문기업 50개를 육성, 글로벌 가상현실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라며 “창업·투자·회생·제도개선이라는 선순환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범근 기자 nova@

# 탄소 클러스터 조성... 中企 키워 국가대표 히든챔피언 만든다

**창업의 메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가다 ⑤ 전북 **HYOSUNG**

102곳 창업 지원... 누적 매출 327억  
문화 콘텐츠·농생명 분야 등 정조준  
'창업&고용존' 중기 맞춤형 인력 양성  
판로 애로 기업 해외 마케팅 뒷받침  
탄소특화창업보육센터 12곳 입주도



효성은 2014년 11월 전북 전주에 창조경제혁신 센터를 개소한 후 전북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혁신센터 출범 이후 102개(탄소 30, 농생명 36, 문화·ICT 27, 기타 9)의 창업기업을 발굴·지원 했으며, 144명의 신규채용과 327억5000만 원(올해 6월 기준) 매출 증가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전북혁신센터에서는 탄소·문화콘텐츠·농생명 분야의 창업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2015 효성-전북 아이디어 창업 경진대회'를 열어 전라북도의 유망 창업 아이템 발굴에 나섰다.

탄소, 농생명·식품, 전통문화·ICT 등의 산업 분

야로 나눠 진행된 경진대회에서는 분야별로 5팀씩 15개 팀과 전국대회 본선 선발팀 3개팀, 총 18개팀을 선정해 1억4200만 원의 포상금을 전달하고 창업을 지원했다. 다기능 탄소섬유 휠체어,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캡슐 빙수, 필터 교체형 한지 마스크가 분야별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난 3월에는 '창업&고용존'을 열고 전라북도, 원광대학교 등 10개 기관과 전라북도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효성은 '창업&고용존'과 연계해 지역 중소기업이 원하는 인력양성과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 창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해외진출지원사업 협약식 및 설명회



지난 7일 전북혁신센터에서 '전북게임벤처 해외진출 지원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웅 HN게임즈 대표, 이신후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이형규 전북 정무부지사, 가중현 (주)효성 창조경제지원단 부단장, 김진수 전북혁신센터장. 사진제공 효성

효성은 8월 말까지 사업계획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전북혁신센터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홍보와 수요기업 확보, 세부 교육 분야 파악 업무를 시행해 9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참여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교육생들은 약 8주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매칭데이, 수요기업 면접활동 등 채용연계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효성은 전북혁신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복합재료 전시회인 'JEC World 2016'에 탄소강소기업 드론 업체 CUBE와 공동으로 전시에 참여했다. 지난해 9월에는 전북 탄소 관련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독일 슈트트가르트에서 열린 '컴포지트 유럽 2015'에 탄소 강소기업과 동반 참가해 판로 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적극

지원했다.

현재 효성과 전라북도는 전주를 중심으로 탄소 섬유 관련 기업, 기관, 지자체가 함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탄소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협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효성은 전주공장 내 부지를 무상 제공해 약 500평 규모의 탄소특화창업보육센터를 마련했다. 이곳에는 첨단재료연구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개소한 탄소특화창업보육센터에는 8월 현재 12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여기에 추가로 매달 사업성, 아이디어 참신성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1~2개의 업체씩 신규로 발굴, 계속 입주시킬 방침이다. 효성의 탄소섬유를 활용한 소재 연구 센터로 8월 중 완공 예정인 첨단재료연구센터는 상업용 탄소소재 연구 및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효성과 전북혁신센터는 기대하고 있다.

효성은 입주한 기업들에게 제품 개발 실험 장비 활용 및 고성능 탄소섬유 등 필요한 원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탄소 관련 중소기업 육성과 탄소클러스터 확대의 중추가 될 창업보육센터 활성화를 위해 '탄소밸리 매칭펀드'를 조성하는 등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효성 관계자는 "대한민국 탄소산업 관련 기술 수준을 세계 톱3 수준으로 끌어올려 전북에서 성장한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창조경제를 상징하는 '국가대표 히든챔피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 CES, 보일러 없는 탄소섬유 난방장치 개발

### 전북 혁신센터 성공 사례

난방배관에 발열케이블 넣고 전류 흘려  
난방비 85% 절약... 日 업체에도 공급



작년 11월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에 위치한 화훼농가 농장주가 비닐하우스에 탄소섬유 발열케이블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제공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지난해 탄소섬유 발열체를 개발한 CES(Carbon Energy System·온실용 난방장치 개발업체)는 효성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사업을 키워간 대표적인 기업이다. CES의 박종오 대표는 2014년 겨울 비닐길 차량 사고를 계기로 사업 아이템을 얻었다.

그가 개발한 보일러 없는 탄소섬유 난방장치는 난방배관에 탄소섬유 발열 케이블을 넣고 전류를 흘려주는 방식이다. 설치비가 저렴하고 온도도 빠르게 확산되며 기존 등유, 벵키시유 대비 85%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그는 도로결빙 방지시스템에 열을 내는 탄소섬유가 사용되는 사실에 착안해 탄소섬유 발열체 개발에 도전했다. 그러나 시제품 제작용 탄소섬유를 확보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박 대표는 독일, 영국, 일본, 미국 탄소섬유 업체에 문의를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 뉴스를 통해 국내 업체인 효성이 탄소섬유를 개발해 상용화했음을, 전북혁신센터의 주관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전북혁신센터에 첫 발을 댔다.

신제품 개발은 전북혁신센터의 지원을 받고 나서 순조롭게 진행됐다. 박 대표는 "탄소섬유에 대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효성을 통해 탄소섬유 가공 방법과 전기와 열선에 대한 관련 정보를 받았고, 탄소섬유 역시 효성으로부터 지원받았다"고 말했다.

효성은 자사의 탄소섬유를 공급하고, 전북혁신센터는 효성과 함께 기술 조인과 판로 확보를 지원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법인을 설립한 CES는 설립 1년 만에 탄소섬유 발열체 개발로 15곳 농가에 탄소섬유 난방시스템을 공급하고, 일본 온실 시장 메이저 업체 2곳에 9월부터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로 성장하게 됐다.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이 전북혁신센터를 방문했을 때 대표 성과 사례로 소개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조남호 기자 spdran@

## "창업지원 포털 통해 청년고용 성공모델 확산"

### 김진수 전북 혁신센터장



"우리 센터의 역할은 '3I+G'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idea(생각)들을 integration(통합)해 결과로 이어지게끔 implementation(실행)하게 만들어 Global(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이끌고 있는 김진수 센터장은 지난해 12월 2대 센터장으로 취임했다. 그가 취임한 이후 전북혁신센터를 찾는 20대 청년들의 발걸음이 늘어났다. 그는 센터장으로 취임 후 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뛰었다. 8개월 동안 8개 프로젝트(기업수 7개)에 약 70억 원을 투자했으며, 취업 경진대회 실행과 고용존 구축을 기획했다.

김 센터장이 청년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계기는 '집 옆 헬린이'라는 취업 경진대회 행사를 겪고 나서다. 그는 "그 행사를 기획하면서 젊은이들의 열정과 일자리에 대한 갈망을 많이 느꼈다"

며 "행사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즐거워하고 서로가 가진 노하우를 공유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 복돋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전북혁신센터를 젊은이들이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그 결과 이전보다 센터를 찾는 20대 청년들이 50%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김 센터장은 전북혁신센터의 중요한 테마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꼽으며, 고용존 구축과 창업지원 포털을 통해 청년 고용에 대한 성공 모델을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전북 지역의 특성을 살려 청년 창농 등 농업 일자리 창출도 기획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고용존은 지역 산업계, 대학, 고용서비스 기관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www.lghausys.com

## 머무는 공간에서 움직이는 공간까지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LG하우시스의 앞선 공간기술은 당신과 함께 합니다

에너지 절약 수퍼세이브창

건강한 바닥재 지아소리잠

건강을 위한 지아벽지

연비절감 경량화 소재

인테리어 대리석 하이맥스

자연을 담은 테크 우젠

식물 유래 성분 대쉬보드

쾌적한 시트소재

디자인 인테리어필름

#### 건강재 Z:IN

에너지를 절감하는 창호/고단열 유리  
자연 유래 성분의 벽지/바닥재  
다양한 디자인의 인테리어 대리석  
공간의 더욱 돋보이게 하는 인테리어필름  
고성능 건축용 단열재

#### 고기능소재

기능성 가전표면재  
차세대 진공단열재  
터치 스크린용 고기능접착필름  
육의 디스플레이 광고용 시트

#### 자동차소재부품

우수한 내구성의 쾌적한 자동차 원단  
고강도 경량화 복합 소재부품  
자동차부품 점착제인 필름

‘남상태 로비창구 의혹’ 박수환 대표 소환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 남상태 대우조선 전 사장의 로비 창구로 의혹받고 있는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스(뉴스컴) 대표가 22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별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컴은 남 전 사장 재임 시절인 2009~2011년 대우조선과 26억 원대 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했으며,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이것이 박 대표가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을 상대로 남 전 사장의 연임 로비를 한 대가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롯데정학재단 이사장〉

# ‘전관’으로 갈아탄 신영자 법정공방 더 치열해질듯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2명 새로 선임… 내달 1일 공판 준비기일

롯데 소유주 일가로는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4)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이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대거 영입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은 위헌적(50·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위 변호사와 장상균(51·19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선임했다. 둘 다 부장판사 출신이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강찬우(54·18기) 변호사가 변호를 주도했다.

위 변호사는 부장판사 보임 이후 줄곧 형사재판을 전담했던 정통 형사 법관 출신이다. 2009년 강금원 장선심우 회장 조세포탈 사건, 2014년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사건, 김용 남양유업 대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등의 굵직한 기업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했다. 장 변호사 역시 기업법과 상법 분야에 전문성을 갖췄다.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상사법과 형사법 총괄부장을 맡았고, 상법 개정 작업에도 수차례 참여했다.

신 이사장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다음달 1일 오전 11시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변론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검찰은 내치리퍼블

릭의 롯데면세점 임점 로비 부분에 대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자금 조달 통로로 지목된 업체인 BNF통상을 실질적으로 소유·경영한 주체가 신 이사장이라는 진술을 확보했고, 신 이사장이 직접 내치리퍼블릭의 면세점 임점과 영업에 유리하도록 기존 매장을 재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단서도 확보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신 이사장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 ‘업무 관련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형법상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 외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신 이사장이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직접적인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다면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상법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경우 공식 직위가 없더라도 법적으로 임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지난 19일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신 이사장은 30여 분간 진행된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려 이목을 끌었다. 신 이사장 측은 국민 참여재판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구체적인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해서는 “변호인이 새로 선임돼 유·무죄 판단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좌영길 기자 jy97@

## 조사1부? 특수부? ‘현직’ 우병우 수사, 고심하는 검찰

오늘 배당… 조사 부서 막판 저울질

특별검찰을 받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이르면 22일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특별검찰관 실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자료를 검토해 일선청에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1개 부서가 이번 수사의뢰 건과 기존 고발 사건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조사1부와 특별수사부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우 수석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2곳을 고발한 건, 시민단체가 진경준 전 검사장 인사검증을 소홀히 했으며 고발한 건을 맡았다. 관련 사건을 이미 검토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지 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특별수사 부서 중 한 곳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미 롯데그룹 수사에 2개 부서가 투입돼 있고, 정운호 전 내치리퍼블릭 대표와 흥만표

변호사가 연루된 법조 비리 사건에도 적지 않은 인력이 수사를 벌이고 있어 인력 운용이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에서는 김정주(48) NXC 대표와 넥스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관이 있지만, 특별검찰관 수사 의뢰 범의에 넥스와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수사를 총괄하는 이동열(50·22기) 3차장 검사도 우 수석과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좌영길 기자 jy97@

**KIBO** 기술보증기금 생각이 현실이 되는 길. 기술보증기금이 함께 합니다.

# “ 내일은 맑음 ”

기술/보/증/기/금과 함께하면,

창조경제의 내일을 지원합니다.

오늘, 한뼘쯤 하늘을 올려다보셨나요?  
하늘이라는 무한 도화지위에 꿈꿔왔던 창업의 꿈을 활짝 펼쳐 보세요,  
그리고 기술보증기금이라는 땅 위에 그 꿈을 심어 보세요.

**창조경제 활성화 지원**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 R&D보증  
기술융합우대보증 / 지식재산(IP)보증  
신성장산업 시설자금 보증

**3대 중점지원 분야**

기술창업지원 / R&D 활성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각종 인증 · 평가업무**

벤처기업 인증 / 이노비즈기업 인증  
기술신용평가(TCB)

고객센터 1544-1120

## “악플러, 너 고소!” 강용석 패소 “명에 훼손할 정도는 아냐” 법원, 누리꾼 손 들어줘

강용석(47·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자신과 관련된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강 변호사가 누리꾼 A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판사는 “(A씨 등이 쓴 댓글은) 자신의 감정이나 평가, 의견 등을 밝히는 것으로 일부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표현이 막연해 강 변호사가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을 정도로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 정도가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이어서 강 변호사의 명예에 감정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 스포츠 매체는 지난해 9월 강 변호사가 자신의 불륜 의혹과 관련해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200명을 고소한다고 보도

했다. 강 변호사는 이 기사에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이 게재되자, 같은 해 12월 누리꾼 5명을 상대로 1인당 15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 현금결제 필수… 자영업자 소득 27%는 ‘깜깜’

근로소득 파악률은 93.4% 달해

과세당국이 자영업자의 소득 100만 원 가운데 27만 원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부동산소득은 82조7084억 원이지만, 국민 계정상 개인영업업자는 120조4139억 원으로, 과세당국의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은 72.8%에 이른다. 소득 파악률은 납세자의 소득을 세무당국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업·부동산소득 대비 국민 계정상 개인영업업자를 비교한 수치로 알 수 있다.

반면 근로소득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총급여는 528조6601억 원이었고, 국민 계정상 파용자의 임금 및 급여는 565조9855억 원으로, 근로소득 파악률은 93.4%였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월급쟁이의 소득은 대부분 세무당국에 포착되지만, 자영업자의 소득은 100만 원 중 27만 원꼴로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 셈이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은 것은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에 비해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은 납세자가 직접 소득금액과 비용을 신고하기 때문에 소득 탈루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근로소득 파악률과 사업소득 파악률의 차이를 더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 ‘음란물 방치’ 이석우… 현재 위험심판 ‘무허가 투자중개’ 박대혁 2심서도 무죄

음란물 유포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현 조인스닷컴 공동대표)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6단독 김영환 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변론을 재개했다. 이 전 대표에게 적용된 법규정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의무와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두느냐를 결정하는 첫 사례인 점에서 주목받았다. 김 판사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정함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사건은 당분간 기일 진행 없이 정지된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허가 없이 투자 중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박대혁(55) 전 리딩투자증권 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수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회장과 아이디블유엔파트너스(IWL)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IWL파트너스는 박 전 부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곳이다.

재판부는 박 전 부회장이 투자를 알선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재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박 전 부회장이 투자 중개 영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세하 기자 shys0536@

KB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금융개혁  
국민의 재산을  
키워나가겠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희망이 모여  
KB에 3천만의 내일이 떠오릅니다  
국민의 든든한 내일이 되겠습니다

# KB국민은행 3천만 고객 돌파



## KB국민은행 3천만 고객 달성기념 '국민 모두 夏夏夏~'이벤트

### Event 1

개요: 행사기간 동안 영업점에서 최초 신규고객 등록<sup>1</sup>을 한  
개인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 증정  
주) 최초 신규고객 등록: KB국민은행에 최초로 고객정보 등록을 신청한 신규거래 고객  
참여방법: KB국민은행 전 영업점에서 최초 신규고객 등록 시자동응모  
경품내용: 설빙 디지털상품권 3만원권 (500명)

### Event 2

개요: 행사기간 동안 퀴즈 이벤트 응모고객 중 정답자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 증정  
참여방법: KB국민은행 홈페이지 및 스타뱅킹 로그인 후 이벤트 응모  
경품내용: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모바일상품권(4천원 상당) (5,000명)

※ 이벤트 기간 - 2016. 8. 10(수) ~ 8. 31(수) ※ 당첨자 발표일 - 2016. 9. 9(금) 예정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이벤트존 ▶ 행운의 당첨자 등재 및 개별통보)

※ 이벤트 추첨은 난수추첨(2016.9.8(목)예정)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이벤트별 응모기회는 1인당 1회에 한하여 부여됩니다. (단, 이벤트1,2 중복 응모 및 당첨 가능)  
※ 본 이벤트는 KB국민은행 및 제휴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경품 수령을 위한 고객정보상의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일 이후 2016.9.30(금)까지 경품 수령 거부 또는 연락처 오류 등의 사유로 연락 불가 시 당첨이 무효처리 됩니다.  
※ 경품은 고객의 휴대전화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으로 발송되며, 수탁업체에 고객님의 정보를 제공하고 경품발송 업무를 위탁합니다.  
(수탁업체: 쿠팡마케팅(주), 제공범위: 휴대폰번호/고객명, 대상업무: 모바일 상품권 발송)  
※ 모바일 상품권은 KB국민은행에 등록된 고객님의 휴대폰번호로 발송되므로 휴대폰 번호의 변경 또는 오류 등으로 수신하지 못한 경우 미수령으로 인한 불이익은 KB국민은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벤트에 응모 시 신규 고객 등록을 위한 성명 주소 연락처 등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청구직원 또는 스마트고객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물에 대한 유효기간은 2016.09.09 까지입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562호(2016.08.08) | 관리번호 2016-049 | 게시기한 2016.08.31 까지



## “수주절벽” 성동조선 추가지원 없다

수은, 신규수주 없이 미봉책 우려  
자구안만으로 경영 정상화 추진

채권단이 당분간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지원 없이 자구책만으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한다. 그러나 성동조선의 ‘수주절벽’이 계속되는 만큼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성동조선에 대한 채권단의 올해 2차년도 신규 자금 지원이 8개월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은 관계자는 “신규 수주가 없어 자금 소요는 크지 않은 데다 선박 인도 대금이 들어와 (추가 지원 없이) 조선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채권단은 지난해 성동조선에 대한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까지 42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2014년 수은이 단독 지원한 3000억 원을 더하면 총 7200억 원이 성동조선 정상화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채권단은 4200억 원의 지원자금 중 80% 이상을 지난해와 올해 투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선박 공정률 증가, 인도 대금 회수 등 경영 여건이 변화하면서 지원 규모가 예초 계획보다 축소됐다. 지난해 2560억 원 지원 계획 대비 실제 지원금은 약 1900억 원으로

600억 원가량 줄었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성동조선에 대한 2차년도 지원금 약 1000억 원은 상반기 내에 이뤄질 것이라 전망이 많았다.

수은 관계자는 “성동조선에 대한 지원금은 경영 상태에 따라 투입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면서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추가 자금 지원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조선 업종이 겪는 ‘수주난’이다. 성동조선은 현재 40여 척을 건조 중으로 내년 10월이면 인도가 모두 끝난다. 채권단이 추가 자금 지원보다 자체 경영 개선을 통한 정상화를 더 원하고 있는 만큼 신규 수주 없이는 ‘시한부’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신규 수주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나 조선업황이 워낙 좋지 않은 데다, 저가 수주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하반기 선박 최종 선박 인도 시점 이전까지 신규 수주가 없으면 성동조선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동조선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채권단의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들어갔으며, 수은은 70.6%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다. 정효진 기자 js62@

# 은행권은 ‘한진해운 여신회수’ 포기?

산은·하나 제외하고 총당금 100% 쌓아  
법정관리로 가도 영향은 제한적일 듯

채권단과 구조조정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까지 가더라도 은행권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들은 이미 한진해운의 회생 가능성이 극히 낮을 것으로 보고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분 시중은행들은 한진해운의 여신 건전성 기준을 회수의문으로 하향하고 총당금을 100%까지 쌓았다.

여신 건전성은 위험성이 낮은 순서대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나뉜다. 요주의는 대출 자산의 7~19%, 고정은 20~49%, 회수의문은 50~99%, 추정손실은 대출액의 100%를 총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한진해운에 대한 국책은행과 주요 시중은행들의 총 대출 규모는 1조3300억 원이다.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 6900억 원, 한국수출입은행 500억 원으로 70% 정도 차지했다.

한진해운의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이 늦게라도 자구안이 확정될 경우 회생 가능성이 남은 만큼 총당금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다만 이미 대출액 모두 회수하는 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입은행의 한진해운 채권은 약 500억 원으로 대한항공에서 100% 보증하는 영구채로 전액 회수

은행명	총 대출액	총당금 적립	자산건전성 등급	비고
산업은행	6900억	비공개	요주의(추정치)	
수출입은행	500억	소폭	-	대한항공 보증으로 100% 회수 가능
국민은행	580억	520억	회수의문	예금담보 60억원 회수 예정
KB하나은행	892억	비공개	고정 이하(추정치)	
농협은행	761억	761억	회수의문	
우리은행	697억	697억	회수의문	
합계	1조3300억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시중은행들은 이미 한진해운에 대한 여신 회수 가능성을 낮다고 보고 총당금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은 각각 580억 원, 697억 원, 761억 원이다. 3개 은행들은 모두 여신 건전성 등급을 회수의문으로 내리고 여신액 모두 총당금으로 적립했다.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여신을 보유한 KB하나은행은 총 892억 원으로 이 중 절반 정도를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신한은행은 대형은행들 중 유일하게 한진해운에 대한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이달 초 발표된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에서 한진해운을 D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이 이처럼 여신건전성 등급을 하향한 것은 회생의 첫걸음인 용선료 협상이 지지부진했

뿐더러 대주주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적극적인 자구계획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현대상선이 자금지원 없이 회생 수순을 밟는 선례가 있는 만큼 추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진해운은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1조~1조2000억 원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유동성 부족으로 연체한 용선료, 항만이용료, 유류비 등의 규모도 6000억~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족한 자금은 한진해운에서 자체 해결해야 경영 정상화에 돌입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면 법정관리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자구안 외엔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른 조건들은 대부분 충족한 상황이다.

한진해운은 또 다음 달 2일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회사채의 만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김우림 기자 hura@

## 블랙박스 아무거나 달지 마세요!

브랜드를 보고 선택 하셔야죠!

블랙박스는 역시 -

# 아이나비



강소라가 강력 추천하는 아이나비 프리미엄 블랙박스

아이나비 QXD950 View



### 하나카드, 인공지능 서비스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



하나카드와 하나금융그룹의 IT 서비스 전문 기업 하나아이앤에스,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는 금융 분야 인공지능 서비스 발굴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ETRI가 개발 중인 ‘엑스브레인’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 중인 SW분야의 그랜드챌린지 과제다. 지식 산업 환경에서 전문가 수준의 질의응답을 통해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뛰어넘어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SW다.

### 영업력 강화? AIA생명 한국법인화 추진 속내는

AIA생명이 한국지점의 법인화를 추진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IA생명은 한국지점의 법인화 전환 의사를 금융당국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점을 법인화하려면 지점을 폐쇄하고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업 허가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한다.

AIA생명 한국지점의 법인화 전환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외국계 생보사 가운데 지점 형태를 갖춘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다. 알리안츠생명, PCA생명 등 일부 외국계 생보사는 인수·합병(M&A)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알리안츠생명은 중국의 안방보험이 인수하겠다고 발표했고, PCA생명 인수전에는 미래에셋금융그룹, 홍콩계 사모펀드(PEF) 액셀시아캐피탈 등이 뛰어든 상태다.

AIA그룹이 AIA생명 한국지점을 법인화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먼저 지점을 법인화로 전환해 영업력을 강화할 것이라 추측이다. 차태진 AIA생명 사장은 지난달에 한 행사

장에서 이투데이 기자와 만나 “외국계 보험사가 철수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AIA그룹은 한국 시장의 수익성을 높게 평가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하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한편에선 AIA생명 한국지점의 법인화 작업은 또 다른 방식의 매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법인이 신설 법인의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회계처리 시 분사와는 분리된다. 한국법인 손실이 본사로 전가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AIA생명이 한국지점을 법인화로 전환한다고 생보업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다만, 외국계 보험사들이 매각 작업 중인 만큼 외국계 보험사로서 영업방향을 정하는 데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IA생명 1분기 당기순이익은 870억 원으로 전년 동기(401억 원) 대비 116.96% 급증했다. 파생상품 투자수익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서희희 기자 jhsseo@

### 자살 보험금 주겠다면... 보험사, 213억 안주고 버티기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경과분까지 지급하기로 한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 가운데 20%가량을 아직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회사별 자살보험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ING·신한·메트라이프·PCA·흥국·DGB·하나생명 등 7곳이 지연이자

를 포함해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금 1114억 원 가운데 901억 원만 지급했다.

이들 7개사는 소멸시효 경과분까지 지급하기로 한 보험사다.

ING생명은 837억 원 가운데 716억 원을 지급했고 신한생명은 103억 원 가운데 65억 원, 메트라이프생명은 92억 원 가운데 76억 원, PCA생명은 40억 원 가운데 19억 원, 흥국생명은 37억 원 중 21억 원, 하나생명은 2억 원 모두, DGB생명은 3억 원 가운데 2억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2개월이 넘도록 약 19.2%인 213억 원을 아직 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박규준 기자 abc84@

# ‘갤노트7의 힘’ 첫 주말 번호이동 6만건

이틀간 5만7904건... 출시 전보다 2배 늘며 시장 활기  
이통사 기준 인기모델 공시지원금 늘리며 가입자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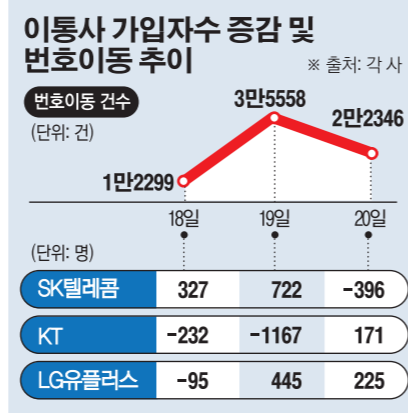
‘갤럭시노트7’ 판매 호조에 잠잠했던 이동통신 번호이동 시장이 과열 양상으로 치달고 있다. 모처럼 시장에 활기가 돌아 이통사들은 최신 스마트폰의 보조금을 대거 올리면서 추가 고객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노트7이 정식 출시된 주말(19~20일) 동안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번호이동은 5만 7904건에 달했다. 19일 3만5558건, 20일 2만2346건으로 갤럭시노트7 출시 전날 1만2299건과 비교했을 때 2~3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난 3월 출시된 ‘갤럭시S7’의 초반 번호이동 건수보다 1만 건 이상 많은 수치여서 관심이 주목된다. 갤럭시S7이 출시된 첫날 번호이동 건수는 2만691건, 둘째 날은 2만825건이었다.

이통사별 순감 현황을 살펴보면 19일에는 LG유플러스 가입자가 445명, SK텔레콤 가입자가 722명 각각 순증했고, KT 가입자가 1167명 순감했다. 다음 달인 20일에는 KT 가입자가 171명, LG유플러스 가입자가 225명 각각 순증한 반면, SK텔레콤 가입자가 396명이 순감했다.

통신 방송통신위원회는 번호이동이 하루에 2만4000건을 넘으면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을 예약 구매한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단말기를 개통한 결과로 보인다”며 “출시 첫날 번호이동 과열 양상을 보였지만, 이틀째인 20일에는 1만 건 이상 줄면서 빠르게 안정세를 보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모처럼 시장에 활기가 돌아 이통사들은 기존 인기 모델의 공시지원금을 더 많이 주며, 가입자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특히 출시된 지 5개월 된 최신폰인 ‘갤럭시S7 엣지’에 지원금이 집중되고 있다.



이통사별 순감 현황을 살펴보면 19일에는 LG유플러스 가입자가 445명, SK텔레콤 가입자가 722명 각각 순증했고, KT 가입자가 1167명 순감했다. 다음 달인 20일에는 KT 가입자가 171명, LG유플러스 가입자가 225명 각각 순증한 반면, SK텔레콤 가입자가 396명이 순감했다.

통신 방송통신위원회는 번호이동이 하루에 2만4000건을 넘으면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을 예약 구매한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단말기를 개통한 결과로 보인다”며 “출시 첫날 번호이동 과열 양상을 보였지만, 이틀째인 20일에는 1만 건 이상 줄면서 빠르게 안정세를 보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통사별 순감 현황을 살펴보면 19일에는 LG유플러스 가입자가 445명, SK텔레콤 가입자가 722명 각각 순증했고, KT 가입자가 1167명 순감했다. 다음 달인 20일에는 KT 가입자가 171명, LG유플러스 가입자가 225명 각각 순증한 반면, SK텔레콤 가입자가 396명이 순감했다.

이통사별 순감 현황을 살펴보면 19일에는 LG유플러스 가입자가 445명, SK텔레콤 가입자가 722명 각각 순증했고, KT 가입자가 1167명 순감했다. 다음 달인 20일에는 KT 가입자가 171명, LG유플러스 가입자가 225명 각각 순증한 반면, SK텔레콤 가입자가 396명이 순감했다.

이통사별 순감 현황을 살펴보면 19일에는 LG유플러스 가입자가 445명, SK텔레콤 가입자가 722명 각각 순증했고, KT 가입자가 1167명 순감했다. 다음 달인 20일에는 KT 가입자가 171명, LG유플러스 가입자가 225명 각각 순증한 반면, SK텔레콤 가입자가 396명이 순감했다.

## “생활가전 핵심부품 B2B 공략”

### LG전자 ‘IFA 글로벌마켓’ 간다

기업고객 대상 부품 전시회  
모터·컴프레서 등 30종 전시

LG전자가 생활가전 핵심부품의 글로벌 B2B(기업 간 거래) 시장 공략에 나선다. 차별화된 모터와 컴프레서 경쟁력을 앞세워 핵심부품의 외부판매를 늘리면서 원제품 중심 생활가전 사업을 핵심부품으로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글로벌마켓’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22일 밝혔다. IFA 글로벌마켓은 IFA가 올해 처음 여는 행사로, 기업고객을 위한 부품 전문 전시회다. LG전자가 글로벌 전시회에서 단독 부스를 마련하고 생활가전의 핵심부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글로벌 가전업체에 LG 생활가전 핵심부품의 경쟁력을 적극 알리고 차별화된 모터, 컴프레서 경쟁력을 앞세워 생활가전 분야 B2B 사업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냉장고용 인버터

리니어 컴프레서, 세탁기-건조기-청소기용 모터-에어컨용 컴프레서 등 30여종의 모터-컴프레서를 소개한다.

LG전자는 올 상반기 기준 전체 컴프레서 생산량 가운데 40% 이상을 외부업체에 판매했고 향후에도 외부판매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최근에는 세탁기용 모터도 다른 업체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지난 55년간 핵심부품에 대한 기술을 축적해 온 LG전자는 외부공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전자는 핵심부품에 대한 특허도 대거 확보했다. 인버터 리니어 컴프레서와 관련 국내 973건, 미국 227건, 유럽 46건의 특허를 등록했다. DD모터와 DD시스템에 대해서도 국내 68건,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47건, 20건의 특허를 등록했다.

핵심부품의 경쟁력은 사업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LG전자는 세계 최초로 세탁기에 DD모터를 적용해 LG 세탁기를 글로벌 1위에 올려 놓았다. 미국에서는 2007년에 드럼세탁기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 이후 지난해까지 9년째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auty@

## 셀트리온 ‘램시마’ 美초도물량 출하 헬스케어 상장 탄력

양산 특허분쟁 승소 결판됨 제거  
올해 안 상장예비심사청구 기대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미국 판매 초도 물량을 출하하면서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연내 상장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안센과 존슨앤드존슨의 거센 소송전에 램시마의 미국 판매가 지연되면서 상장 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지난 19일 램시마의 초기 판매개시를 위한 초도 물량을 출하,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상장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상장 첫 단계인 예비심사 청구 시점을 미국 수출 개시 직후로 잡았다. 재고 자선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어서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미국 내 대규모 판매를 염두에 두고 제품을 쌓아둔 탓에 재고자산이 2014년 1조1868억 원대에서 지난해 1조3993억 원대로 늘었다.

그러나 소송 승소와 초도 물량 출하 등의 소식에 이러한 우려가 불식되면서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상장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구자유 동부증권 연구원은 “특허 분쟁 승소로 미국 출시의 걸림돌이 제거됨에 따라 출시 이후 연내 상장예비심사청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이번 초도 물량을 미국에 출하한 데 이어 예상 시장점유율을 근거로 연도별 전체 물량 공급계획을 미국 내 독점 유통권을 가진 화이자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셀트리온은 램시마의 미국 출시가 이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램시마 시판 허가일(4월 5일) 이후 180일 뒤인 오는 10월 3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앞서 지난 18일 미국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이 셀트리온이 안센의 레미케이드 물질특허에 대해 제기한 약식판결의 구소심리를 진행,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센 측은 지난해 3월 셀트리온의 항체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오리지널의 약품의 471 물질특허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 판결로 특허 무효에 대한 셀트리온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안센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조남호 기자 sprdn@

### 기아자동차 ‘더 뉴 쏘울’ 출시



세계 3대 디자인상을 석권한 기아자동차 쏘울이 스타일·성능·사양을 강화한 ‘더 뉴 쏘울’이 재탄생했다. 기아차는 22일 서울 강남구 송은아트스페이스에서 ‘더 뉴(The New) 쏘울’ 미디어 발표회를 열고, 이날부터 본격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더 뉴 쏘울’은 스포티하고 와이드한 디자인을 강조하는 ‘스타일 업 패키지’가 새롭게 추가됐고, 신규 6단 자동변속기 탑재로 연비가 향상됐다. 커튼 에어백에 전복감지 기능을 새롭게 적용하고 버튼 시동 스마트키를 기본 적용하는 등 상품성과 경제성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 테슬라 전기차, 한글 홈페이지 열고 예약판매

### ‘모델S·X·3’ 3종 접수 받아

세계 전기차 시장 선두업체인 미국 테슬라가 최근 한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국내 판매를 시작했다.

2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19일 한글판 홈페이지(www.tesla.com/ko\_KR) ‘Tesla 프리미엄 전기 자동차’를 열고 ‘모델S(세단)·X(SUV)·3’ 등 3종에 대한 사전 예약 접수를 시작했다.

예약금은 모델S 200만 원, 모델X 500만 원, 모델3가 100만 원이다. 테슬라 측은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은 구매 우선순위 보장을 위한 것으로, 차량 주문을 포기하면 예약금이 전액 환불된다고 안내됐다. 차량 가격은 공개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는 구글 지도를 통해 테슬라스토어(전시장)와 슈퍼차저(충전소)도 안내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는 없다. 테슬라는 다음 달 개장하는 신세계의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하남’과 서울 강남 중심가에 매장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테슬라모터스는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로 유명한 엘론 머스크 최고경영

자(CEO)가 2003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한 전기차 회사다. 2012년 출시한 스포츠 콘셉트의 전기차 ‘모델S’와 지난해 출시한 SUV 전기차 ‘모델X’가 인기를 끌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 사전 예약을 시작한 ‘모델3’에 40만 대에 육박한 주문이 몰리면서 주목을 받았다.

테슬라는 지난해 12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란 이름으로 국내 법인 등록을 마치고, 초대 공동 대표이사로서 미국인 토드 엔드루 마론(37)과 수전 진 레포(48) 등 2명을 선임했다. 김희진 기자 heejin@

## 현대백 판교점 개장 1주년 ‘합격점’

콘텐츠 차별화 주요 매출 7500억·방문 고객 1500만명... 목표 달성

개점 당시 수도권 최대 백화점으로 이목을 끌었던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개점 1주년을 맞았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공을 들인 판교점은 압도적인 규모와 문화공간, 체험형 MD 등 차별화된 콘텐츠 전략이 적중하면서 개점 당시 세웠던 매출 목표를 무난히 달성했다.

현대백화점은 판교점의 개점 1년(2015년 8월 21일 ~ 2016년 8월 20일) 동안 매출이 7500억 원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국 백화점 중 개점 1년 차 최고 매출 기록이다. 이 기간 동안 판교점을 방문한 고객은 누계로 1500만 명에 달한다.

오픈 초기에 축구장 2배 크기의 식품관 효과로 SNS 등에서 빠르게 입소문이 났고, 최근 들어 식품관의 분수효과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명품·의류·잡화 등 패션 부문의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 판교점은 올해 매출 8000억 원, 내년 9000억 원을 올린 뒤 2020년에는 1조 원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판교점의 성공은 젊은 고객들을 백화점에 방문하게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젊은 고객들을 잡기 위한 고객 체험형 매장과 라이프 스타일습관 3702(1120평)로 기존 백화점(300평)보다 약 3배 이상 넓다.



현대백화점 판교점 내부 모습.

정지영 현대백화점 영업전략실장(전무)은 “오픈 초기 ‘식품 메카’로 불리던 판교점이 패션 부문에 대한 고정고객이 늘어나면서 명실상부한 ‘패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현대백화점 판교점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수도권 최고 랜드마크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선애 기자 isa@

## 넷마블게임즈, 올해 지스타 데뷔

CJ넷마블 분리 후 첫 참가 결정... 카카오킴게임즈도 검토 중

넷마블게임즈가 CJ넷마블에서 분리된 뒤 처음으로 ‘지스타’에 참가한다. 넥슨은 역대 최대 규모로 행사에 힘을 보어날 전망이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16’에 참가하는 국내의 게임업체들의 진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스타 2016 참가 신청은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되지만, 참가비 10%를 할인해주는 조기 신청은 이미 마감된 만큼 주요 게임업체들의 신청은 상당 부분 마무리된 상황이다.

지금까지 지스타에 불참했던 넷마블 게임즈는 모바일 게임사로 전환한 뒤 처음으로 참가를 결정했다. 전시 규모는 100부스 수준으로, 특히 넷마블은 매년 참가자들의 경쟁 속에 선정되는 메인스폰서 신청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은 지난해 300부스보다 더 큰 400부스 규모로 올해 지스타에 참가한다. 400부스 규모는 참가업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아직 구체적인 출품작과 전시 콘셉트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전년을 뛰어넘는 다양한 온라인·모바일 게임을 선보일 방침이다.

특히 게임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카카오킴 게임즈를 통해 참가 여부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의 경우 B2B(기업 간 거래)관에 참가했지만, 게임 라인업을 다양화한 올해는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관 참가 여부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 앞서 임지훈 카카오킴 대표는 지난해 지스타 행사장에서 “내년에는 카카오킴 참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지스타에서 볼 수 없는 게임사도 있다. 지난해 메인스폰서를 맡았던 내시 삼십삼분은 올해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NHN엔터테인먼트와 네오위즈게임즈,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등도 아직까지 참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스타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정확한 참가 규모는 다음 달 말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tiatio@

## 금호타이어, SUV 전용 타이어 ‘크루젠’ 인기

SUV용 시장 지난 3년간 24% 성장  
지난해 출시한 ‘크루젠 HP91’ 주목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인기가 지속되면서 SUV 전용 타이어 시장도 급부상하고 있다.

22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쉐타페, 스포티지, 쏘렌토, 코란도C 등 주요 완성차업체의 SUV 차량에 공급하는 SUV 전용 신차용(OE) 타이어는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약 2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금호타이어의 크루젠 타이어. 사진제공 금호타이어

레이드브 소재배합 시스템과 다기능성 고무 적용으로 편안한 승차감과 우수한 마모 성능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이 제품은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2015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제품디자인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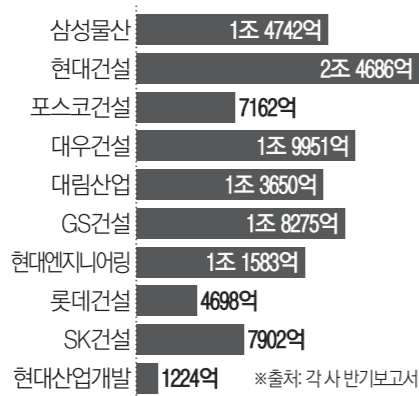
주경태 금호타이어 마케팅담당 상무는 “라이프 스타일과 자동차 구매 추세가 변화함에 따라 금호타이어도 빠르게 제품 개발을 하고 있으며 크루젠 또한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eejin@

# 미청구공사 대금 12조 ‘끝나지 않은 악몽’

〈10대 건설사〉

현대건설 2조4686억으로 최다  
대우·GS·삼성물산·대림 1조대  
소폭 줄었지만 잠재부실 요인  
저유가 영향... 중동지역 집중

## 2016년 상반기 주요 대형건설사 미청구공사 금액 (단위: 원)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올해 상반기 미청구공사 금액 수준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건설사의 미청구공사 대금은 12조 원을 웃돌고 있고, 이 중 6대 건설사의 미청구공사 대금은 80%에 육박한다. 때문에 잠재 부실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각 건설사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사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6위권 건설사의 미청구공사 금액은 총 9조8466억 원 수준이다. 지난 1분기에 기록한 10조500억 원보다 소폭 줄어든 규모다.

미청구공사는 건설사들이 공사를 진행하고도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 미수채권을 말한다. 발주처와 건설사

간 이견 등으로 공정을 인정받지 못할 때 주로 발생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현대건설은 2조4686억 원으로 전 분기(2조5047억 원)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5위권 건설사 중에서는 가장 높다. 대우건설이 1조9951억 원으로 뒤를 이었고, GS건설과 삼성물산이 각각 1조8275억 원, 1조4742억 원을 기록했다. 대림산업이 1조3650억 원, 포스코건설은 7162억 원으로 다른 대형사들보

다 다소 낮았다.

6위권 밖의 대형 건설사 중에서는 △롯데건설 4699억 원 △현대엔지니어링 1조1583억 원 △SK건설 7902억 원 등을 기록하고 있다. 해외사업보다 주택산업 비중이 높은 현대산업개발의 미청구공사 금액은 1200억 원 수준이다.

10대 건설사의 전체 미청구공사 금액(12조3874억 원) 중 6대 건설사의 미청구공사는 무려 80%를 차지한다.

현대건설은 계약금액이 전년 매출액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장의 미청구공사 금액이 총 1조1934억 원이다. 1분기 1조5721억 원보다 약 24% 감소한 수치다. 중동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건설공사의 미청구공사가 3869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 △카타르 투사일 고속도로(1318억 원) △쿠웨이트 셰이크 자베르 코트웨이(1595억 원) △신원울원지력1.2호기 주설비(1335억 원) 등도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기록했다.

대우건설의 전년 매출액 5%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장의 미청구공사 금액은 현대건설과 비슷한 규모인 1조780억 원 수준이다. 삼성물산은 5404억 원, GS건

설은 9217억 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못했다.

삼성물산의 UAE 원전 사업장의 미청구공사 금액은 지난 1분기(2391억4800만 원)보다 다소 줄었지만 2278억 원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사우디 라빅2 프로젝트는 1089억 원을 기록했다.

건설사들의 미청구공사 대부분은 중동지역에 집중돼 있다.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중동 국가들의 재정 상황이 악화된 게 영향을 미쳤다. 만약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 대금 회수에 실패할 경우 장부상 이익이 손실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매출채권보다 회수기간이 길고 폐일 가능성이 높아 보통 위험자산으로 분류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미청구공사액이 많은 게 발주처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 남아 있다는 의미인 만큼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하지만 이 때문에 리스크가 높다고 단순히 판단하기는 어렵고 대부분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 ‘분양형 호텔’ 투자 열기... 아직도 대박 꿈꾸시나요

## 최영진 대가자의 현안진단

한때 수익형 부동산 상품의 대표 주자였던 분양형 호텔 투자성은 현재 어느 정도일까.

분양 당시 제시한 투자 수익률 약속을 지키고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다. 2-3년 전 분양 때 연간 투자 수익률을 12%까지 제시한 회사도 있으나 실제로는 약속이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호텔 공급이 넘쳐나 객실 가동률이 떨어진 탓이다. 제주도 전체 숙박시설 객실 가동률은 2015년 초반 기준 67.7% 수준이지만 2018년에는 63.4%까지 떨어질 것으로 제주도 측은 예상한다.

관광객은 2018년 1723만10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루 평균 수치는 4만7000여 명 규모다. 같은 해 전체 숙박객실 수는 5만8500여 실로 추산된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분양호텔 평균 가동률은 65%로 추산됐다. 이를 감안해 산출한 투자 수익률은 5.1%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시행사들이 제시한 수익률 10-12%의 절반이 좀 넘는 수치다. 가동률이 80% 정도이면 수익률은 10.5%로 높아지지만 반대로 50%로 떨어지면 수익률은 -0.3%로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해석이다.

그런데도 수익형 호텔 분양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수익률은 이보다 더 하락할 게 뻔하다.

더욱이 호텔은 정치 산업이어서 시간이 오래될수록 수리비가 많이 든다. 적어도 5년이 경과하면 수리할 곳이 생기고 10년쯤 지나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해야 경쟁력이 유지된다.

이런 처지가 되면 투자자 중에는 수익금 배당은 고사하고 관리비 명목 등으로 생돈을 몰아야 하는 신세가 될지 모른다.

라마다와 같은 이름이 알려진 브랜드를 사용한 호텔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이들 호텔은 품위 유지를 위해 오히려 관리비 부담이 더 많아진다.

그래서 분양형 호텔에 투자할 때는 신중하라는 충고가 많은 것이다. 지역 여건도 그렇지만 관광 시장의 변주까지 고려해야 할 판이어서 쟁겨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

이런 일은 비단 제주도만의 얘기가 아니다. 인천 영종도나 강원도 평창에서 분양하는 수익형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상황이 이런 데도 시행사가 제시하는 신규 분양형 호텔의 투자 수익률은 의외로 높다. 평창의 한 상품은 13%가 넘는다고. 경기가 좋아 몇 년간은 약속이 지켜질지 모르지만 그 다음을 알 수 없다.

이런 외증에 레지던스형이나 오피스텔 타입의 수익형 상품이 관광지에 등장하고 있다. 분양형 호텔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모양이다.

생활형 숙박시설로 허가받아 실내 취사시설 설치와 숙박업이 허용된다. 본인이 거주해도 되고 세를 놓아도 무방하다는 얘기가. 일반 주택과 달리 매일 숙박객을 받을 수 있는 객실 영업도 가능해 쓰임새가 다양하다.

하지만 이런 상품도 결국 객실 가동이 관건이다.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너무 수익물에 휘둘러서는 안 된다. 수익률보다 안정성 있는 상품이 더 실속이 있을지도 모른다. choibak141@



호텔 공급 넘쳐나 객실가동률 독  
제주 분양호텔 수익률 5.1% 불과  
시설보수 등 관리비용도 만만찮아

## 금주의 분양 캘린더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8/22 (월)	발표	경북	경산시	중앙동	대화타워플러스2
	계약	대구	달성군	옥포면	옥포대성베르힐2차(C-3 B/L) (~8/24)
8/23 (화)	접수	경기	용인시	감광장동	용인웰메이시티337
	계약	대구	수성구	노변동	수성알파시티동화아이위시 1순위
	강원	속초시	조양동	동탄2신도시2차 동원로얄듀크(A-43 B/L) (~8/25)	
8/24 (수)	접수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1순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북한산두산위브 1순위	
	경기	남양주시	지곡동	다산신도시금강팬테리움리버테라스(B-4 B/L) 1순위	
8/25 (목)	접수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2순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북한산두산위브 2순위	
	경기	남양주시	지곡동	다산신도시금강팬테리움리버테라스(B-4 B/L) 2순위	
	발표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부천신도시휴메트로
8/26 (금)	오른	경기	화성시	동탄면	동탄2신도시 사랑으로부영(A-72 B/L)
	경기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대방디에이치 2차	
	서울	성북구	장위동	래미안장위(구역)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2가	오목고투웨이퍼스트	
경기	고양시	동산동	서원한세상시티스승2차		

(주1) \*오피스텔,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굵은 글씨로 표시  
(주3) 오른 단지는 건설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부동산114

8월 넷째 주 전국 15개 사업장에서 총 1만3014가구가 분양된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수도권에서는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아너힐즈' 1320가구(일반분양 69가구), 서대문구 '북한산 두산위브' 497가구(일

반분양 228가구), 강서구 '마곡지구대방 디에이치 2차' 714실 등 총 8743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대구 수성구 '수성알파시티 동화아이위시' 698가구, 부산 강서구 '래미안세상 명지' 377가구 등 총 4271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 코오롱글로벌, 중동 스마트글라스 공략

### 지스마트글로벌과 업무협약

코오롱글로벌은 18일 국내 코스닥 상장사인 지스마트글로벌과 '스마트글라스의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스마트글라스는 지스마트글로벌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건물 외벽에 LED 조명을 비춰 다양한 영상을 표현하는 기법인 '미디어 파사드' 기능까지 갖춘 LED 글라스로 유리의 투명성을 100% 유지하면서도 풀 컬러 동영상을 구현하는 투명 전광유리다. 건물용 외벽 유리를 넘어 커튼월, 간접조명, 인테리어 소품, 무빙워크, 간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소재다.

이번 사업을 위해 중동 지역에 탄탄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코오롱글로벌과 스마트글라스의 독보적인 기술·

제조 능력을 가진 지스마트글로벌은 그동안 상호 긴밀히 협력해 중동 진출을 준비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 지난 10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소재한 DAFZA(Dubai Airport Free Zone Authority) 정문 전면에 스마트글라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로 중동 지역 내에서 코오롱글로벌은 스마트글라스의 독점적인 영업활동을 진행하기로 했고 지스마트글로벌은 투자자 발굴 및 합작법인 설립에 있어서 기술 및 활동 지원으로 두 회사는 중동을 넘어,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지역까지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스마트글라스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이 소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으로 기대가 크다"고 설명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Tel. 02-2046-2883 | www.facebook.com/alkeybookstory 알키

# 장기불황 · 저성장 · 저금리 시대, “당신에게 이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는가?”

###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월급쟁이, 노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중년들을 위하여



**배우자 대신 꼬박꼬박 월급을 가져다주는 시스템 만들기**

##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한다

너바나 지음 | 256쪽

투자 분야 최고의 베스트셀러!

부동산 고수들의 강력 추천

1년 적금 모아 집 1채씩, 10년만 투자하라!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인생 역전의 월급쟁이 부자 비결



대한민국 부동산 고수들이 먼저 읽고 실천한 바로 '그 책'

## 노후를 위해 집을 이용하라

백완기 지음 | 252쪽

투자 분야 주요서점 1위

(노후를 위해 집을 저축하라) 전면 개정판

부동산투자서 시장을 역주행하는 투자계의 고전  
대한민국 서민이, 소액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미국 금리인상 시점 불확실성 해소될까

# 잭슨홀 미팅... 엘런 입에 쏘리는 눈

25-26일 개최... 세계 40여 개국 중앙은행장·경제학자 등 모여  
작년 불참 엘런 26일 강연... 피셔 "물가 상승" 조기 인상 시사

이번 주(25-26일) 잭슨홀 미팅을 통해 미국 금리인상 시점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걷히게 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잭슨홀 미팅은 매년 8월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주최로 와이오밍 주에서 열리는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이다. 세계 40여 개국 중앙은행장과 경제학자 등 세계 통화정책 관계자가 모이는 가운데 시장은 올해 강연자로 나서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1 엘런 의장의 발언에 관심을 쏟고 있다.

지난해 불참했던 엘런 의장은 심포지엄 둘째 날인 26일 오전 8시에 '미국 통화정책의 도구'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서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엘런 의장이 금리인상 시기에 대한 신호를 보낼 것으로 보고 있다. 내달 20-2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열리기 때문에 연준이 9월 금리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제1 엘런 연방준비제도 의장. AP뉴시스

이번 강연에서 엘런이 분명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 관측이다.

시장이 이토록 엘런의 잭슨홀 미팅 연설에 주목하는 이유는 한동안 수그러들었던 연준의 매파 위원들이 최근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난주 연설에 나선 연준 위원들은 대체로 매파적인 입장을 보였다. 연준 의장의 대표적인 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와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데이비드 롱트 에틀랜드 연은 총재 등은 시장이 연내 금리인상을 배제해서는 안 되며 9월 금리인상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도 21일 콜로라도 주 아스펜에서 열린 강연에서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에 힘을 보태는 발언을 했다. 피셔 부의장은 구체적인 금리인상 시점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고용은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상승률은 연준 목표인 2%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블룸버그통신

은 엘런 의장은 잭슨홀 미팅 연설을 앞두고 피셔 부의장이 경제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 연내 금리인상 관측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연내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의 전망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그룹이 미국 국제선물 가격 동향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12월 기준금리 인상 확률은 이날 46.2%로 전날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연준 위원들의 잇단 매파 발언으로 9월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하지만 상승론도 만만치 않다. 물가상승률 회복세가 저조한 데다 미국 대선이라는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독립 이코노미스트이자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리서치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했던 대니얼 손튼은 "피셔의 연설을 보면 연준이 움직일 준비가 됐음을 알 수 있다"며 "그는 시장에 힌트를 주려 했다. 그러나 연준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전까지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50달러선 넘보는 국제유가

WTI 배럴당 48.52달러 마감  
7거래일 연속... 상승률 9.1%  
산유국 내달 동결 합의 기대  
美 원유 재고 감소에 상승행렬

한때 배럴당 20달러대까지 추락했던 국제유가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다시 50달러대를 넘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9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배럴당 48.52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이로써 WTI는 7거래일 연속 올랐으며, 주간 상승률은 9.1%에 이른다. 이는 지난 3월 이후 최대다. WTI는 직전 고점에서 24% 올라 이미 강세장에 접어들었다.

내달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회동에서 산유량 동결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원유 선물 매수를 자극하고 있다. 여가다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까지 더해지면서 유가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OPEC 회원국은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국제에너지포럼(IEF)에서 비공식 회의를 갖고, 원유 시장 안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 칼리드 알-팔리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 장관은 "사우디는 9월 알제리 회동을 앞두고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며 "원유 시

장의 수급 균형을 위해 OPEC 회원국과 비회원국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이번 회동에서 산유국들이 유가를 안정시키고자 산유량을 동결할 것이라 기대감이 큰 상태다.

전문가들은 유가가 지금의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는 공급 측의 문제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유가를 짓눌렀던 공급 과잉 문제는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트호츨러 USA의 밥 야커 원유 선물 책임자는 "유가 상승을 위한 모든 재료가 다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급 측면에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OPEC을 둘러싼 관측이 유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클레이스의 에너지 상품 부문 리서치 책임자인 마이클 코헨은 향후 수주간 있을 대형 이벤트도 유가 향배를 좌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리면 달러 가치가 올라 투자자들이 원유 매수를 꺼릴 수 있다는 것이다.

원유는 대부분 달러로 거래되는데, 최근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유가 저렴하다는 인식에 매수를 자아낸 점도 유가 강세에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코헨은 사우디나 이란의 생산량 최고치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며 올 연말까지 유가가 6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배수경 기자 sue6870@

## 中 메이투, 홍콩서 10억 달러 규모 IPO

뉴욕증시와 경쟁 가능 시험대  
메이투, 홍콩증시 진입 성공면  
샤오미·디디추싱도 상장 추진

글로벌 IT기업 상장 규모 기준 세계 증권거래소 순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나라	1	2	3	4	5	
미국	1	1	2	2	3	4
뉴욕증권거래소	2	2	1	1	2	1
중국상하이증권거래소	3	3	-	5	4	5
홍콩	12	8	3	7	13	16

\* 선전 거래소는 2013년 IT기업 IPO 없어  
\* 2016년은 8월 19일까지 \* 출처: 월스트리트저널(WSJ)



중국 유명 셀카 카메라 업체인 메이투가 중국 본토 선전과 홍콩거래소 교차거래를 허용하는 '선강릉'을 앞두고 홍콩증시 상장을 노리고 있다.

메이투는 홍콩증시에서 최대 10억 달러(약 1조1200억 원) 규모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메이투는 지난 19일 홍콩 증권당국에 5억~10억 달러 규모의 IPO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오는 4분기에 증시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특히 메이투는 그동안 중국 IT 스타트업들이 선호했던 뉴욕 대신 홍콩을 선택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메이투 상

장은 홍콩증시가 중국 IT 기업 유치 경쟁에서 뉴욕은 물론 중국 본토증시와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가능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신문은 강조했다. 기업 가치가 460억 달러에 달하는 사

오미나 중국 최대 차량공유업 업체로 역시 360억 달러 가치를 자랑하는 디디추싱 등 급속도로 성장 중인 중국 IT 기업들은 아직 상장을 하지 않은 상태. 이에 메이투 IPO가 성공을 거두면 이들 기업이 홍콩증시 상장에 관심을 보일 수 있다고 WSJ는 전했다.

그동안 중국 IT기업들은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을 IPO 목적으로 선호해왔다. 미국은 경영진이 더 많은 의견을 갖는 것을 허용하며 현지 투자자들의 기술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기 때문. 이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그룹이 홍콩과 뉴욕을 저울질하다가 결국 뉴욕으로 돌아섰으며 알리바바 경쟁사인 JD닷컴과 인터넷 검색업체 바이두 등도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다.

홍콩증시는 전체 시가총액에서 기술 기업 비중이 10%에 불과한데, 이처럼 기술주 상장이 부진한 것이 메이투에는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홍콩 애널리스트와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흔치 않은 기술주 상장에 기업 가치를 좀 더 높게 매길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메이투 경영진 중에는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미국보다 홍콩에 상장하는데 더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홍콩증시는 선강릉으로 중국 선전거래소와의 경쟁에도 직면했다. 벤처기업들이 많이 상장된 선전거래소는 투자자들이 기업가치를 후하게 매기기로 유명하다. 예를 들어 동영상 스트리밍업체 바오핑그룹은 주가수익비율(PER)이 무려 150배에 이른다.

한편 메이투는 지난 2008년 차이원성 의회 설립했으며 사용자들이 셀카를 다양하게 편집해 소셜미디어에 올리게 하는 앱으로 유명하다. 메이투는 올해 투자 라운드에서 기업 가치가 약 38억 달러로 평가됐다. 애플 아이폰 위탁생산업체 대만 혼하이정밀과 캐피탈펀드 IDG 캐피탈파트너스 등이 메이투의 주요 투자자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日 르네사스, 美 인터실 인수 임박

3000억 엔 규모... 최종 협상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 2위로

일본 반도체업체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가 미국 경쟁사 인터실을 인수하기로 하고 최종 조율 단계에 들어갔다고 22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르네사스의 인터실 인수액은 최대 3000억 엔(약 3조3508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르면 이달 안에 기본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르네사스는 전력 반도체에 강점을 가진 인터실을 산하에 넣어 자율주행차량 등으로 확산하는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조조정을 마친 만큼 이번 인수를 발판으로 성장 궤도에 다시 올려서겠다는 것이다.

연간 30조 엔이 넘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스마트폰의 수요가 정체되면서 성장도 둔화할 전망이다. 자동차는 자율주행 등 새로운 분야는 물론 엔진의 전자 제어가 진화하는 등 반도체 수요가 계속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실은 미국 나스닥거래소 상장사로, 19일 기준 시가총액은 약 21억 달러에 달했다. 르네사스는 일정 비율의 프리미엄을 얹어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 전부를 매입할 방침이다. 6월 말 현재 약 4000억 엔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은행에서의 차입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에 들어갈 실탄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인터실은 전력을 조정하는 반도체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으며 자동차와 산업기계, 스마트폰 등에 필수적인 제품을 다룬다. 특히 영입이율률이 20%에 이를 정도로 수익성이 높다는 특징도 갖고 있다.

현재 자동차용 반도체의 세계 시장 규모는 연간 3조 엔 정도이며 네덜란드 NXP반도체가 지난해 프레스케일반도체를 인수하면서 세계 1위로 올라섰다. 미국의 인피니언테크놀로지스도 공격적인 인수·합병(M&A)으로 2위에 올랐다. 르네사스는 2014년까지 이 시장에서 1위였으나 양사에 밀려 3위로 추락했다. 이번 인수에 성공하면 2위로 부상하게 된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IS 자살폭탄 테러... 장례식이 된 결혼식



터키 남동부 가지안테프의 한 결혼식장에서 20일(현지시간) 발생한 이슬람국가(IS)에 의한 자살폭탄 테러로 가족을 잃은 한 여인이 21일 장례식장에서 오열하고 있다. 당시 결혼식에 참석했던 하객 등 최소 51명이 사망했으며, 신랑과 신부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지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아랍 쿵드 투르크 사이에 분열의 씨를 뿌리고 종족 및 종교 간 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이라며 "타키는 이런 도발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가지안테프/AFP연합뉴스

## 파텔 총재, 라잔 개혁 이어갈까

(인도중앙은행)

경기부양 가속화 정부 압박  
물가 상승세에 금리인하 요구  
국영은행들 부채도 해결해야



우르지트 파텔 인도중앙은행(RBI) 신임 총재. 블룸버그

인도중앙은행(RBI)의 새 총재가 된 우르지트 파텔(52) RBI 부총재가 전임자인 라구람 라잔의 개혁 정책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인도 정부는 20일(현지시간) 라잔 현 총재의 후임으로 파텔을 임명했다. 파텔은 라잔이 물러나는 다음 달 4일부터 3년간 RBI를 이끌게 된다.

지난 2013년 RBI 총재에 오른 라잔은 미국 달러화에 대한 루피화 가치 하락에 제동을 걸고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등의 성과를 거두며 시장의 지지를 얻어왔다. 그러나 라잔은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정부의 경제정책과 정치문제에도 거침없는 목소리를 내다가 결국 연임에는 실패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경기부양을 가속화 하라는 정부의 압박을 받고 개혁을 이어나가는 것이 파텔의 가장 큰 과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도는 지난해 7.6%의 경제성장률로, 주요 경제국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으나 최근 물가가 다시 오르고 경제활동은 둔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RBI는 추가 금리인하 요구에 직면해 있다. 라잔이 총재로 재임하는 동안 RBI는 이미 다섯 차례나 금리를 낮췄으나 중소기업들과 정부 일각에서는 여전히 금리가 높다고 아우성

을치고 있다. 그러나 파텔은 인도 국영은행들의 산처럼 쌓인 부채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국영은행 부채는 인도 전체 은행자산의 3분의 2 이상이다. 정부 요구대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시장은 파텔이 신임 총재로 뽑힌 데 대해 반색하고 있다. 마드하비 아로라 코카하인드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파텔을 지명한 것은 라잔 체제가 계속된다는 것을 뜻한다"며 "정부가 라잔보다 좀 더 '비둘기파'적인 인사를 원했다면 파텔 대신 다른 사람을 뽑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텔은 라잔 후임 물망에 올랐던 10명 중의 한 명으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지명됐다. 영국 런던정경대에 경제학 학사, 옥스퍼드대에서 석사,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일을 시작했으며 인도 재무부와 경쟁위원회는 물론 세계적 컨설팅업체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등 정부 부처와 민간 모두에서 두루 경력을 쌓았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입양아 출신 펠르랭, 한국기업 투자지원사 설립한다

佛 “中企·디지털장관 시절 디지털혁신 이끌었다” 호평  
2003년부터 맡아온 회계감사원 감사관 자리도 내놔  
2012년 올랑드 대선캠프서도 디지털 전문가로 활동

한국계 입양아 출신인 펠르랭(한국명 김종숙·사진) 전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공직을 떠나 한국 기업의 프랑스 투자를 돕는 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간) 프랑스 주간지 루즈루날뤼디망슈가 보도했다.

펠르랭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5월 프랑수아 올랑드가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중소기업·디지털경제장관에 임명되고 나서 통상국무장관과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3년 반 동안 3개 장관을 역임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2월 개각 때 예상을 깨고 오드레 아를레 당시 대통령 보좌관에게 장관 자리를 내주게 됐다. 펠르랭은 당시 장관 퇴임 기자회견에서 “개

발도상국의 빈민촌에서 태어나 프랑스의 보통 가정에서 입양된 어린이가 문화장관이 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없다”며 “프랑스에 감사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당시 갑작스러운 경질에 화제가 끊이지 않았다. 자크 랑 전 문화장관이 현지 라디오방송 프랑스앵테르와의 인터뷰에서 “올랑드 대통령이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펠르랭을 경질한 것은 인간미가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펠르랭 자신은 트위터에 “아이 윌 서바이브(I Will Survive,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밝히 경질 이후 새 인생 진로를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펠르랭은 첫 장관 재임인 중소기업·디지털경제장관 시절에도 동양계 여성에 대한 배려로 입각했다는 비판을 받고 프랑스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그는 이번엔 신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프랑스 진출을 지원하는 회사를 세우면서 지난 2003년부터 맡아온 회계

감사원 감사관 자리도 내놓아 공직을 완전히 떠나게 됐다.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동시에 일하면서 발생할 이익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기업에서 자리를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평가다. 펠르랭은 자신의 선택을 올랑드 대통령에게도 편지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나 6개월 만에 프랑스로 입양됐다. 16세에 대학입학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17세에 상경계그랑제콜인 에섹(ESSEC)에 진학하는 등 뛰어난 머리를 자랑했으며 파리정치대학(시야스프)과 국립행정학교(ENA) 등 프랑스 최고 명문학교를 거치는 등 엘리트의 길을 밟았다.

감사원에서 문화와 미디어 국가교육 담당자로 일했으며 지난 2002년 사회당의 리오넬 조스팽 당수의 연설 문안 작성에 참여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2007년 세클렌 루아얄과 2012년 올랑드의 대선 캠프에서도 디지털 전문가로 활동했다.

배준호 기자 baeh94@



37전 38기 김시우 PGA 생애 첫 우승

올림픽 골프의 박인비 금메달에 이어 이번에는 남자선수가 한국 골프팬들에게 낭보를 전했다.

주인공은 신세대 기대주 김시우(21·CJ대한통운·사진)다. 김시우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38개 대회 도전 끝에 귀중한 1승을 올렸다. 김시우는 페덱스랭킹 14위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다. 김시우는 2005년 최경우(46) 우승 이후 한국 선수로 처음이다.

강성훈(29)도 125명이 출전하는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1차전 출전권을 확보했다.

김시우는 22일(한국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 시지필드 컨트리클럽(파70·7127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원덤 챔피언십(총상금 560만 달러) 최종일 4라운드에서 3타를 줄여 합계 21언더파 260타(68-60-64-67)를 쳐 루크 드닐드(잉글랜드)를 5타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우승상금 100만8000달러.

김시우는 이날 버디 6개, 보기 3개를 기록했다.

김시우는 2라운드에서 10언더파 60타를 쳐 대회 18홀 최소타 기록을 세웠다. 2라운드에서 신들린 듯한 퍼팅으로

폭풍타를 휘두르며 선두에 나선 김시우는 무방대에서도 흔들림이 비거리뿐 아니라 티샷도 안정됐고, 송곳같은 아이언 샷을 쏘아대더니 최종일에는 공격적인 플레이로 스코어를 더 줄였다.

전반에 보기없이 버디만 4개 골라내며 우승에 성큼 다가간 김시우는 그러나 후반들어 10번홀에서 첫 보기를 한 데 이어 13, 14번홀에서 연달아 보기를 무저지는 듯 했다. 하지만 15번홀에서 버디퍼를 홀에 연결시키며 1타를 만회한 데 이어 18번홀에서 1타를 더 줄였다.

연세대 출신의 김시우는 일찌감치 미국무대에 도전해 2012년 프로에 데뷔했다. 2013년부터 PGA 2부 투어에서 웬만한 투에서 활약하다가 지난해 51개 대회 출전만에 1승을 거두며 올 시즌 정규투어에 합류했다.

강성훈은 이날 1타를 줄여 합계 7언더파 273타를 쳐 공동 46위에 올라 페덱스랭킹을 1계단 끌어 올려 랭킹 122위로 플레이오프 1차전에 나가게 됐다.

‘58타 사나이’ 짐 퓨릭(46·미국)은 13언더파 267타로 공동 전날 공동 3위에서 10위로 밀려났다.

안성현 골프대 기자 golfahn58@

## 노화교양서 ‘불멸의 꿈’ 펴낸 류형돈 뉴욕대 교수 이메일 인터뷰

# “유명 과학저널 논문이라도 검증없는 맹신 안돼”

“세계 최고 권위의 네이처(Nature)에 따르면... ‘불로장생의 길 열렸다’” 미디어를 통해 많이 듣고 본 말일 것이다. ‘황우석 사태’가 오히려 과학 저널 네이처나 사이언스 등을 더 대중적으로 알린 계기가 되기도 했다.

연구 결과 하나를 두고 어떤 병에는 무엇이 좋다든지, 이렇게 하면 오래 산다는지 하는 얘기를 함부로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오래 살고 싶고 ‘불멸’하고 싶은 건 인간의 꿈이라 이런 얘기들은 금세 회자되며 때론 왜곡되기도 한다.

오랫동안 생명에 대한 연구를 해 온 류형돈 뉴욕대 의과대학 세포생물학과 교수 역시 네이처나 셀 등 세계적 과학저널에 40편 이상 논문을 발표했고 올해 초 노화에 관한 교양서 ‘불멸의 꿈’을 펴내 노화와 생명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대중적으로 알리려 노력했다. 오는 25일 한국을 방문해 강연회를 가질 예정인 류형돈 교수를 이메일로 인터뷰했다.



류형돈 뉴욕대 의과대학 세포생물학과 교수, 사진제공 이음 출판사

류 교수는 주요한 과학적 발견을 미디어가 무조건 빠르게 보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우려했다.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거나 채소와 과일이 장수에 도움이 된다는 건 오래된 상식입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 학자들이 검증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

정확한 지식 대중에 알리려 노력 네이처·셀 등 40편이상 논문 발표 시간 두고 검증 거쳐야 정설 인정 25일 가톨릭청년회관에서 특별강연

리나 요즘 미디어가 과학 저널에 실린 논문을 선부르게 소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책에도 소개했지만 지난해 네이처를 통해 알려진 ‘텔로머라제(telomerase)가 노화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주장, ‘단백질 서투(Sir2)가 수명 연장에 핵심적’이란 주장 등은 과장된 예입니다. 서투를 억제하는 신약을 개발해 인간 수명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연구회사는 문을 닫았죠. 네이처 등에 발표된 논문 결과라도 시간을 두고 검증을 거쳐야만 정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글은 2013년 비밀 노화방지 연구센터 캘리포니아를 설립했고 그 부의 실리콘밸

리 기업들이 너도나도 헬스케어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생명연장과 노화방지가 자칫 소득계층에 따라 불균형하게 배분될 가능성은 낮게 봤다. “과학의 발전은 결국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로 이어져 결과는 균형있게 나눠지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불멸의 꿈’과 함께 읽으면 좋을 서적으로는 시모 벤저 박사의 자서전 ‘초과리의 기억(TIME, LOVE, MEMORY: A Great Biologist and His Quest for the Origins of Behavior)’, 분자생물학 시대를 연 제임스 왓슨의 자서전 ‘이중나선(The Double Helix)’, 유전학의 아버지 멘델(G. J. Mendel)에 관한 책 ‘정원의 수도사(The Monk in the Garden)’,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종교쇠’ 등을 권했다.

류 교수는 25일 저녁 7시 30분부터 가톨릭청년회관 CY씨어터에서 ‘불멸의 꿈’과 관련한 특별 강연회를 갖는다.

김윤경 기자 s914@

## “신한을 스마트하게 바꾸는 동력 돼 달라” 조용병 신한은행장, 신입행원에 ‘B·E·S·T’ 강조

조용병 신한은행장이 지난 19일 용인시 기흥구 소재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입문 연수 중인 신입 행원에 대한 조언으로 ‘B.E.S.T.’를 강조하고 나섰다.

조 행장은 이날 “기본적인 업무 역량부터 차근차근 다지고(Basic), 투철한 윤리의식으로 항상 정도(正道)를 걸으며(Ethics), 작은 일이라도 의미를 부여하며 정성을 다하는 가운데(Small), 젊음과 패기로 모든 일에 과감히 도전하라(Try)”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조 행장은 신입 행원들에게 지난 30여 년간 금융인으로 살아오며 느끼고 경험했던 바를 허심탄회하게 전달하면서 입문 연수의 의미와 신한은행의 역사 등을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경험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 신한을 스마트(Smart)하게 바꾸는 동력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차·과장 중심의 오피니언 리더그룹인 ‘에스·포스(S-Force)’와도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그는 ‘에스·포스 스마트 콘퍼런스(S-Force Smart Conference)’에 참석해 최근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스마트 근무제’에 대한 현장 책임자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안을 청취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지난 19일 조용병 신한은행장(앞줄 가운데)과 신입행원들이 용인시 기흥구 소재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신한은행

조 행장은 “에스·포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미래 조직의 방향 제시에 대해 깊이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현업을 수행하며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준비해 훌륭한 의견을 제시해 주며 매우 고맙다”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행사에 참석한 에스·포스 관계자는 “차·과장 중심의 오피니언 리더그룹인 ‘에스·포스(S-Force)’와도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에스·포스 스마트 콘퍼런스(S-Force Smart Conference)에 참석해 최근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스마트 근무제’에 대한 현장 책임자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안을 청취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 “과학 꿈나무 육성” 한화, 어린이 로봇 체험행사

(취한화는 18~19일 양일간 경기도 시흥시 대교HRD 센터와 경기도 부천 로보파크에서 전국 초등학교 어린이 80여명과 로봇 체험활동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취한화의 과학꿈나무 육성 프로그램인 ‘한화로 미래로 과학나라’ 행사의 일환으로 열렸다.

사회복지재단 아이들과 미래와 함께 진행한 이번 로봇체험 활동에서 어린이들은 로봇의 기본 부품과 로봇의 작동 원리 등 기초 개념을 공부하고 다양한 로봇을 작동시켜 보면서 이론이 실제 적용되는 사례를 학습했다. 또 직접 만



18~19일 대교HRD센터와 부천로보파크에서 열린 어린이 로봇 체험행사서 초등학생들이 로봇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주)한화

든 로봇으로 공연과 경주대회도 진행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 쌍용차, 오토캠핑 ‘제5회 사운드오브뮤직’ 개최

쌍용자동차는 제주 캐피탈사인 SY오토캐피탈과 함께 패밀러 오토캠핑 사운드오브뮤직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20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영월군 소나무외계캠핑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쌍용차 보유고객 총 70가족(280명)이 참석했다. ‘서머 삼바 피크닉’을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에는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진행됐다. 김희진 기자 heejin@



쌍용차의 오토캠핑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늦여름 캠핑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 사진제공 쌍용차

## 인사

-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기업협력과장 박대규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대책단 과장 유성우
- ◆미래창조과학부 <과장급 전보> △소프트웨어산업과장 광병진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과 고득영 △질병관리본부 국립안전공공검역소장 정중현 △국립재활원장 이성재 △연경정책국 국민연금제정과정장 양운석
- ◆환경부 △분위지방환경청장 박미자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이정용
- ◆교통노동부 <과장급 전보> △장관 비서관 최태호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담당관 권도인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장 김부희
- ◆여성가족부 <과장급 승진> △폭력예방교육과장 장미경
-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창조행정담당관 정도현 △항만운영과장 홍래형
-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승진> △감사청구조사단장 김용범
- ◆국회사무처 <이사관 승진> △관리국장 김학배 △법제사법위 박종희 △보강복지위 정순임 △특별위원 정은경 △정무위 이창림 △예산결산특별위 박상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박용수 △국방위 박철규 △산업통상자원위 이용준 △기획재정부 위 의섭 △국회사무처 송주아 신한진 오정석 임재봉 <이사관 전보>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창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상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 박용수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박철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문위원 이용준 △기획재정부위원회 전문위원 조의섭 <부이사관 전보> △국회국 의회교육정책실관 오병호 △미래창조과학부통신위원회 입법심의관 권태현 △정보위원회 입법심의관 김남근 △경호기획관 박창희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심의관 박태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박희석 △의사국 의정기록심의관 이순영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심의관 이정은 △법제실 경제법제심의관 진선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심의관 최상진 △법제실 행정법제심의관 홍성현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조영복
-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송대호 △기획관리관 박재유
-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정보센터장 이재홍 △전남지방우정청장 김성철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산안진흥본부 본부장 이갑재 △승출본부 경영지원실장 김아영
- ◆국토연구원 <보직 발령> △기획경영본부 연구조정팀장 서민호
- ◆경기 용인시 <4급 전보> △북부여성국정 전제역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상성 △하수도사업소장 정규수
- ◆한국해양대 △사무국 총무과장 박진창 △ 재정과장 광경성 △학생복지과장 정태현 △총장 비서실장 최동권
- ◆충도일보 △부회장 송명학 △사장 최정규

## 부음

- ▲김경희씨 별세, 강원구(성유상사 회장)씨 부인상, 강병윤(성유상사 사장)·병성(성유상사 부사장)·지원씨 모친상, 김동환(김동환이비인후과 원장)씨 장모상, 김유선·김성임씨 시모상 = 20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23일 6시 30분, 02-2650-2741
- ▲김막례씨 별세, 문석진(사대문구청장)·석철·석주(연세정형외과 원장)·희정·희숙·희영씨 모친상 = 21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3일 8시, 02-2227-7594
- ▲나신애씨 별세, 이현대·현철(석강도건 대표)·경윤(아시아문화원 경영지원본부장)·재현(강원랜드 차장)·준호(한솔로지스틱스 과장)·창현(저작권보호센터 근무)씨 모친상 = 21일, 광주서구장례식장, 발인 23일 7시, 062-366-4444
- ▲신민호(경제학 박사)씨 별세, 신명호(부영그룹 고문서 동생상) = 20일, 삼성서울병

- 원, 발인 23일 7시 30분, 02-3410-6906
- ▲윤석임씨 별세, 윤영준(사업)·준정(대자중 교사)씨 부친상, 김병욱(SK증권 남원지점장)씨 장인상 = 21일, 순천 정원장례식장, 발인 23일 7시 30분, 061-754-4444
- ▲이정익(목동코리아 대표)씨 별세, 이현규·홍규씨 부친상 = 2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3일 10시, 02-3010-2262
- ▲김재학씨 별세, 김경훈(서울경제신문 기자)·경원씨 부친상, 전설리(한국경제신문 기자)씨 시부상, 이강(유니퀘스트부장)씨 장인상 = 2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3일, 02-3010-2294
- ▲성준경씨 별세, 성의경(신산업경영연구원)씨 누님상, 신정수·현수(사업)·연수(건보보험공단부장)씨 모친상, 조기욱(전 국민연금관리공단사업장)씨 장모상, 신화주(유교소량)씨 조모상, 조장현(세월리사장)·주현(에이티엠실계사사무소부장)씨 외조모상 = 21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23일 오전 7시 30분, 02-2650-2746

연재소설

한만수 작 사유진 畵

# 서울 25시, 夜

## 제3화 누들월드 ⑬

주체할 수 없는 정력이 옹동치기 때문이다. 여자가 땀 흘려 일하고도 신중단지처럼 백수 남편을 모시는 이유도 그놈 때문이다.

천일만이나 박동달은 창의력이 우수하다. 고로 섹스도 좋아한다. 하지만 방법의 차이는 있다. 박동달은 아래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스타일이다.

박동달은 여자과 알몸 레슬링을 한 곳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스타일이다. 그 결과 그의 물건은 쉬는 시간이 없이 바쁘게 운동하느라 체력이 좋아졌다.

천일만은 입이 중요하다. 즉, 상체에서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낸다. 고로 여자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진다. 레슬링을 하면서 온갖 미사여구를 아무 생각 없이 쏟아내도 듣는 쪽은 기분이나 나쁘지 않다.

“사랑해.”

“우리, 이대로 침대에 빠져 죽자.”

“아! 제발 적당히 이빠 쉬. 내 눈이 떨어질 수도 있던 말야.”

“우! 당신 때문에 세상의 끝이 보인다.”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렇게 이쁘냐?”

관소리에서는 장단을 맞춰주는 고수가 있어 야채대로 흥이 난다. 알몸 레슬링에서도 적당히

우도 많다. 약사 남편이 백수조합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일은 우습지도 않다.

남녀 관계라는 것이 통하면 정이 들기 마련이다. 남녀가 일단 통하면 하나가 된다. 형제보다 더 가깝고, 부모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통한 사이다. 그래서 통한 사이 때문에 부모와 의절하고, 형제를 원수처럼 여기며 사는 경우도 흔한 것이다.

조해정은 결단코 천일만이나 박동달과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통하는 사이다 보니 호적에 접붙이고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면 비정상이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돌아가는 김새를 보니까 두 놈 모두 안방 내주겠다는 마음은 없는 것 같았다. 천일만은 돌싱이니까 얼마든지 지원서만 내면 경쟁자가 없으니까 합격이다.

“내가 결혼해 봐서 하는 말인데, 조 이사는 절대 결혼하지 마. 결혼하는 그 순간 코 꿰는 거야. 코 꿰는 말이 뭘지 알지? 황소도 코가 꿰면 일곱 살짜리한테도 끌려 다니거든.”

문제는 놈의 사생철학(死生哲學)은 온몸의 진이 다 빠져 손가락 들 힘이 없어질 때까지 여림(女林)에서 놀겠다는 수작이다.

박동달은 한 수 더 떠다. 키 보고 사는가? 물건 보고 살지, 하는 생각으로 슬쩍 쫓아 봤더니 장대한 물건을 뽐내는 놈이다.



장단을 맞춰주면 더 똥꿀해지는 법이다.

그 점에서는 사막을 질주하는 톱멜의 탱크군 단처럼 거침없이 밀어붙이기만 하는 박동달보다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천일만과 박동달에게 양다리를 걸치고 줄타기를 하는 조해정은 위 아래가 다 좋으니 불만은 없다. 하지만 현재가 좋다 해서 미래까지 좋아지라는 법은 결코 없다.

천일만이나 박동달의 호적에 접붙이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 그러나 남녀 관계라는 것이 마음처럼 움직여 주지 않는다.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말이 괜히 생겼는가? 부지런히 통하다 보니 알게 모르게 정이 들기 시작했다.

그놈의 정 때문에 생고생하는 남자, 여자를 참 많다. 친구 멀리하고, 담배 끊고, 술은 집에서 마시고 일벌쳐럼 부지런히 돈 벌어야 바쳐서 아내를 시종일관 여왕벌이다.

1년 365일 기와야 아침 한 끼 안 해주고, 하나 밖에 없는 딸내미 머리 한 번 빗겨주지 않고, 시대 세사 때 머리가 아프든지 배가 아파 쯤 짝 달짝하지 못하는 걸 보면 당장 이혼 도장 찍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12번씩 난다. 그래도 그놈의 정 때문에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딸내미 밥 챙겨주는 남자가 흔하다.

미용실에서 다리에 하지정맥이 생기도록 힘들게 돈 벌어 배짱이 남뎌 먹여 살리는 여자도 흔하다. 잇을 만하면 교육부장관상을 타는 초등학교 여선생의 남편이 시인이랍시고 허구한 날, 시 낭송하다 합평회다 다니면서 바람피우는 경

“어떤 여자가 나한테 걸리기만 하면, 다른 놈은 도토리 만지는 것 같아서 쳐다보지도 않을 걸?”

조해정은 쓴맛 단맛 다 볼 만큼 세상을 오래 살지 않았다. 하지만 대충 이놈 맛, 저놈 맛은 봤다. 그 결과 나름대로 분석력이 생겼다. 그놈을 맹신하는 놈치고 마음 넓은 놈 못 봤고, 그놈을 자랑하는 작자치고 일편단심 못 봤다.

“오늘은 더 커진 거 같지 않아? 아! 어제 용봉탕을 먹었더니 이제 효과가 나기 시작하는군.”

박동달은 레슬링하기 전에 애국조회 때 애국가 부르는 식으로 하는 말이 있다. 제 것은 브라질 바나나고, 다른 놈들 것은 베트남 고추라는 말은 생략할 줄은 모른다.

브라질 바나나도 안방에 혼자 있으면 말라비틀어지는 법이라고 운을 때면, 삼각산이나 계룡산에는 사이버 종교인들 많다고 헛소리로 얼버무리기 일쑤다.

두 놈과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인연 맺는 것은 날씨가 아닌 정리할 때는 아니다. 크게 한몫 집을 때까지 양다리를 타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했다.

천일만과 박동달이 한통속이 되려고는 꿈도 꾸지 못했다. 이걸 천일만 허벅지 위에서 말타기하다 박동달에게 들린 기분이고, 박동달 밑에서 박타령 부르다 천일만에게 들롱한 기분이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회의 때의 시선 처리다. 남녀 관계라는 것이 아무리 냉정해도 일단 통하고 나면 바라보는 눈빛에 정미가 있듯이 마련이다.

## 세계는 지금



김승웅 언론인·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미국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죽었을 때의 일입니다. 현지 유력 신문 '워싱턴포스트(WP)'가 20여 명의 기자를 일거에 풀어, 그것도 장장 나흘에 걸쳐 대대적 특집 기사를 내는 것을 보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닉슨을 '워터게이트' 특종으로 대통령 관좌에서 쫓아낸 워싱턴포스트 입장에서 그런 대대적 특집이 불가피했겠다 싶었습니다. 특집보도 중에서도 특히 닉슨의 유년 시절에 관한 취재가 압권이었습니다. 현지에서 일했던 20여 년 전의 그 오버추어리(Obituary, 부음기사)의 한 대목을 제가 지금껏 기억하는, 한 인간의 유년시절이야말로 훗날 그의 업적이나 위인(偉人) 됨을 밝히는 최상의 거증(鑒證) 자료

### 자서전에 언급된 아버지의 말 “늘 분노를 가지고 살기 바란다” 막말·다혈질·인종차별 폭 닦은 7대 대통령 잭슨에 대한 평가 “美 대통령 되기에 가장 부적당”

임을 그때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닉슨은 세 살 때 어린이용 마차에서 굴러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칩니다. 놀라운 건 머리가 피범벅이 되고도 기어코 다시 마차에 올라타 독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근성은 그가 1960년 존 F. 케네디와의 대선 경쟁에서 분패하고도 2년 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재도전하는 대목에 그대로 재현됩니다. 대통령 선거에 낙선한 인물이 주지사 선거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 헌정사를 통틀어 전례를 찾기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러더니 6년 후인 1968년에는 대통령 선거에 거듭 출마, 대권의 마차에 기어코 오르내립니다.

예의 유년시절 접근을 지금 세계적으로 화제의 인물인 미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에게 대입해 봅니다. 미국 대선 일차(11월 8일)가 오늘(22일)로 정확히 79일 후로 임박했음에도, 아직껏 수수께끼인 트럼프의 정체를 규명해내는 데 그의 유년시절 이상 가는 잣대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년으로 창간 150년을 맞는 미국 월간지 '에틀랜틱(The Atlantic)'은 올 6월호에서 트럼프의 유년시절을 소상히 소개했습니다.

노스웨스턴대학의 덴 맥아담스 심리학 교수가 '에틀랜틱'에 기고한 '트럼프의 정신상태(The Minds of Donald Trump)'란 제하의 칼럼 속에는 트럼프가 자서전에서 말한 그의 유년시절이 소상히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번 대선 출사표를 출간한 자서전 '불구가 된 미국: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방법(Crippled America: How to Make America Great Again)'에서 언급한 유년시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욕의 퀸즈와 브루클린의 아파트 수십 채의 소유주였던 아버지(프레드 트럼프)는 주말이면

# ‘트럼프 대통령’... 솔직히 말해 좀 두렵죠?

오래 나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 순시에 나섰다. 내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아파트 벨을 누르고 나서 왜 번번이 담배락 뒤로 숨는 거지요?’ 아버지는 ‘입주자 증언 문을 향해 총을 갈겨대는 놈들이 허다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지옥 바닥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상대를 무자비하게 짓밟고 이기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귀찮게 굴던 음악교사의 눈통이를 갈겨 밤통이로 만든 것도, 동네 제일의 꼬마 악당이 된 것도, 또 열세 살에 아버지의 희망대로 뉴욕 시내 예비육사에 입학했던 것도 다 그래서다. 아버지는 내게 늘 분노를 지니고 살 것을,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최고를 골라 깔아 놓히는’ 또 다른 최고 킬러(killer)가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맥아담스 교수의 칼럼은 엄밀히 말하면, 칼럼 이라기보다는 심리학 논문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편집자가 ‘한 심리학자가 본 도널드 트럼프의 퍼스널리티 연구’라는 부제를 달아 미국의 학식 있는 독자들의 시선을 오히려 더 자극하는 역설적 묘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유년기 기질이 성인이 된 후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추측한 글로, 필자 맥아담스는 추측의 용구(用具)로 ‘과도한 외전(外轉·extroversion)’이라는 심리 전문용어까지 써가며 그 구체 사례를 다음과 같이 풀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뷰의 달인으로 불리던 미국의 여성 앵커 바버라 월터스가 1987년 트럼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도널드, 당신은 대통령 선거전에 나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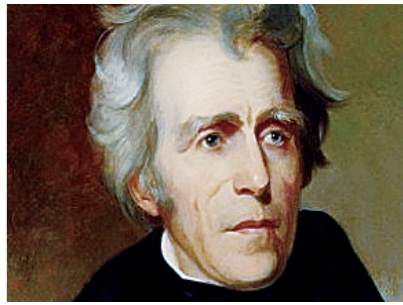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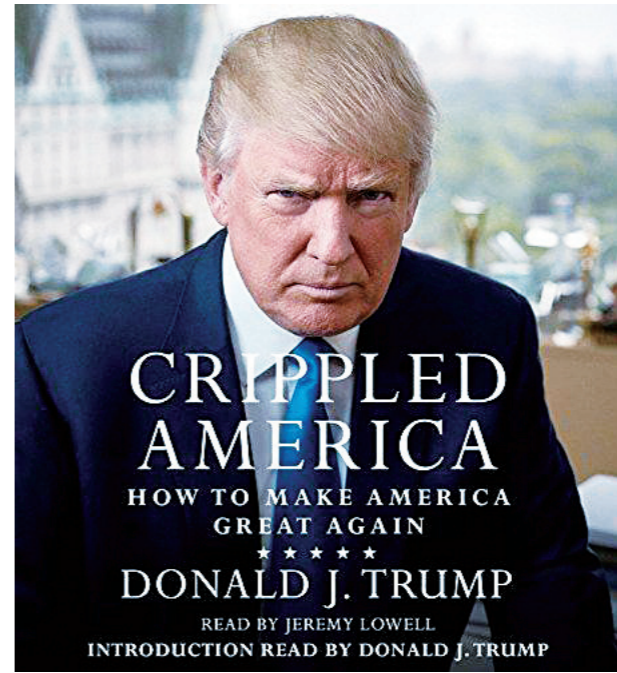
뵈고, 막판에는 이들의 주정과 고향으로 접시가 깨지고 벽화가 박살 나는 난장판으로 바뀌고 맙니다. 이 소동으로 보수 일색의 워싱턴 정기가 발락 뒤집혔고, 3대 대통령을 역임한 토머스 제퍼슨의 입에서 “미 대통령이 되기에는 가장 부적합하고 위험한 인물”이라는 비난이 나올 정도로, 트럼프 등장 이후의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연출됩니다.

또한 제퍼슨은 평소 다혈질인 잭슨이 외국 원수한테 당한 극히 사소한 모욕을 참지 못하고 선전포고를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이 될 경우, 평소 욕하는 기분에 핵 바사 버튼을 누르지 모른다는 17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우려와 너무도 닮았습니다.

잭슨의 인종차별 또한 지금의 트럼프와 너무나도 같습니다. 잭슨은 대통령이 되자 ‘인디언 이주법(Indian Removal Act)’을 통과시켜 4만 5000명의 인디언을 강제 이주시켰고 이 과정에서 체로키 인디언 4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맥아담스가 롤모델로 고른 잭슨에 대해 제가 무릎을 치며 탄복한 건, 다른 무엇보다도 트럼프를 그대로 빼어 닮은 막말 화법 때문입니다. 생전 열네 번의 결투를 치른 탓에 대통령이 되고도 몸속 어딘가에 탄알 조각을 지니고 살던 잭슨이 대통령 임기를 끝내며 토해낸 다음 두 구결의 후회를 얻으려면 지금의 트럼프와 오싹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내 대선 경쟁자였던 헨리 클레이를 쏘 죽이 지 못한 것, 또 하나는 내 밑에서 부통령을 한 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지목된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1767~1845).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 대선 출마의 출사표로 써낸 자서전 '불구가 된 미국(Crippled America)'의 표지. 이 책에 저자 트럼프가 자술한 '나의 유년 시절이 수 록되어 있다.'

보다 아예 처음부터 대통령으로 임명되기를 바라는 건 아닌가?” 다음은 트럼프의 답변: “아니, 정반대다. 내가 사랑하는 건 사냥 그 자체다.”

파지고 보면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닉슨 역시 가지나 이념 추주의는 무관한 ‘과도한 외전의 전형적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년시절 피범벅이 된 머리로 기어코 다시 마차에 오른 닉슨이 훗날 역대 백악관 주인 가운데 가장 교활하고 냉소적 대통령으로 바뀐 걸 보면, 유년시절 ‘분노’를 자양분으로 자란 트럼프가 훗날 막말과 폭언의 최고 ‘킬러’로 바뀐 것과 똑같은 외전의 전개이지요.

‘에틀랜틱’의 이번 논문을 제가 유독 반기는 건, 대선 시늉이 되면 미국의 매체 거개가 공화 아니면 민주 양당 중 택일해온 습관을 이 월간지만은 훌쩍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라는 인물의 정체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 어떠한 정치적 접근도 배제하고 오직 심리전문가의 진단 하나에만 의존했다는 점, 이런 객관적 접근이야말로 미국에서만 찾을 수 있는 저널리즘의 표상으로서 느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를 가정하고 그 롤모델로 미 7대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잭슨(1767~1845)을 거론한 것은 맥아담스 논문의 백미로 보입니다. 잭슨의 대통령 취임식 날 백악관에서 열린 축하 파티는 해진 바지에 진흙이 너털대는 장화 차림 등 별의별 직종의 하객들로 북

끓던 칼흔을 진즉 교수대에 매달지 못한 것이었다.”

문제는 맥아담스의 논문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잭슨의 인기가 당시 미 국민 사이에서는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농부와 광부, 말리 변경의 개척민들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받았고 지금 쓰이는 20달러 지폐에 그의 얼굴이 들어 있을 정도로 유명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런 역설은 교활과 냉혹의 대명사로 통했던 닉슨이 중국의 문을 최초로 열고 소련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등 실제 지저 면에서는 역대 최고의 대통령으로 평가받는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막말과 기행으로 일관해 온 트럼프에 대한 미 국내의 통념이 ‘에틀랜틱’에 실린 논문 한 편으로 흑역 교정(校正)단계에 미치는 건 아닐까라는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하기도 합니다. 파지고 보면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대통령 또는 총리치고 정신 면에서 문제가 없었던 인물이 어디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에이브러햄 링컨만 해도 되풀이된 낙선을 참지 못해 몇 차례나 자살을 기도했고, 영국의 명총리 윈스턴 처칠 또한 심한 우울증 환자가 아니었습니까?

이번 글은 트럼프의 등장을 겁내 온 많은 한국인을 염두에 두고 썼습니다. 이 중엔 솔직히 말해 저도 포함돼 있고요.

**BRAVO My Life**

COVERSTORY 친구부자, 나이 들수록 친구가 더 소중하다

PART1. 친구, 내 남은 인생길의 동지! 유경 프리랜서 사회복지사

PART2. '나는 어떤 친구일까?' <디어 마이 프렌즈> 캐릭터로 본 친구 유형

PART3. 시니어의 우정, 좋은 친구가 되려면? 이아람 심리상담센터 박대령 소장

PART4. 친구, 만들기도 정리가 먼저!

PART5. 이런 거 땀에 친구와 의(義) 상한다! 동년기자(백외식·소현영·성미향·강신영)

PART6.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PART7. 일본 50대들의 친구 만들기 이태문 동경통신원

5070 시니어 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신라보가 만난 사람

“돈은 내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나눔으로 거둬내다”  
문주현 MDM 회장의 돈의 철학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심장  
‘남국동수호천사’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

“꿈과 이겨 내고 100세 인생 향해 오늘도 일합니다”  
오세 현역 법무사 이종태

8월의 맛

속 시원한 메일의 순수한 매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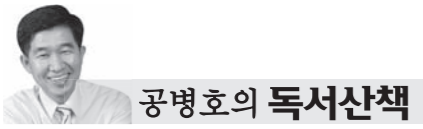
막국수는 냉면, 콩국수 등과 더불어 여름 하면 생각나는 면 요리다. 차갑게 먹는 음식인데도 도톰하고 부드러운 메일 면발이 입술에 닿으면 어찌나 따뜻한 것이 느껴지곤 한다. 투박한 매력에 순수함까지 더한 순 메일 100% 막국수 맛집 '메일연가'를 소개한다.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Tel.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공병호의 독서산책

김정호 '대한민국 기업의 탄생'

이 나라는 황무지 같은 환경에서 일어났다. 아무것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가들의 부상은 특별한 성취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에서 기업 성장사에 깊은 관심을 가진 전문가는 별로 없었다. 김정호의 '대한민국 기업의 탄생' (북오션)은 백제시대의 장인으로 부터 시작해 최근까지의 삼성, 현대자동차 그리고 엘지그룹까지의 기업 부침을 다룬 보기 드문 책이다.

백제와 일본은 밀접한 교류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일본에는 수백년,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기업이 간재한다. 반면에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일본의 장수 기업 목록에는 공고구미(金剛細・장업 연도 578년), 스미토모그룹(1615), 윌

발있는가가 아니다. 실록에는 그가 수재의연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나라에서 관직을 주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얼마 되지 않아 또 승진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조가 상업에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은 일본보다 늦은 것이다. 조선조의 상업관은 "장사와 같이 천한 일은 아랫것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고귀한 나랏일을 하는 것이 양반으로서 마땅한 삶이었다"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척박한 상업 환경 속에서 한일합방으로 조선이란 나라가 사라지고 말았다. 일본인들이 조선 땅에 세운 기업은 많았지만 조선인의 손으로 세워진 기업들도 등장하게 된다. 그 숫자는 미미하지만 이들 가운데 손꼽을 수 있

백제시대 장인부터 삼성·현대차까지

계관(1637)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두 나라의 간격은 전쟁과 같은 요인들이 역할을 하였지만 그보다 더욱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일본에서는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체제가 유지돼 왔다. 저자는 말한다. "분명한 것은 장인과 상인들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술도, 재산도, 그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 사회에서만 축적될 수 있다." 우리가 지난 60여 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룬 이면에도 재산권 제도는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장기 집권에 빠진 한국 사회가 활력을 모색할 때 배워야 할 역사의 교훈이다.

조선조는 상업을 천대하였다. 상인들 스스로도 그 시대를 지배하는 분위기를 벗어날 수 없었기에, 돈 버는 일에 대해 그다지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다. 조선조를 대표하는 상인 하면 제일 먼저 임상옥, 김만덕이 떠오른다. 임상옥은 최인호의 소설 '상도'의 주인공으로, 소설이 인기를 끌면서 유명해졌다. 그는 조선실록에 짧게 등장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가 어떻게 돈을 벌었고 얼마를

는 사람이 김성수, 김연수 일족의 회사, 박흥식과 민대식 및 민대규 일족의 회사이다. 친일이란 꼬리표를 붙이는 사람도 있지만 필자의 생각은 이렇다. "일제하에 살았던 사람들이 모두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김성수·김연수 형제는 한민족 최초의 근대적 제조기업인 경성방직을 일으켰다. 그들은 조선방직, 동양방직 등 일본계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해 만주에도 대규모 방직 공장(남만방직)을 짓기도 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 정도까지 온 건 기적 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도 1960년대 이래로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는 '나의 것은 나의 것이'고 '당신의 것은 당신의 것이다'라는 인식과 제도가 굳건하게 보장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앞으로의 한국 사회가 더 많은 기업가를 배출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기업이 열전이다.

이민화 칼럼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일본의 장기 침체는 고령화로 시작되었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7%에 이어, 2018년 고령 사회(14%), 2026년 초고령 사회(20%)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이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초고속 고령화 진행이다.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추세라면 2018년에는 생산가능인구 5명이 1명을 부양하는 구조가 되고, 2030년이 되면 2.7명이 1명을 부양하는 구조가 된다. 부양비율 1% 상승은 경제성장 0.6% 하락으로 이어진다. 대한민국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한국의 세계적 초고속 고령화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분석된다. 각각의 문제를 살펴보자.

첫째, 출산율의 저하를 포함한 인구 유입의 감소다. 1.19%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나, 이미 심각한 저출산 추세의 회복은 타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매우 어렵다. 결혼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고령화 해결 못하면 日 전철 밟는다

최우선 과제인데, 주택과 교육 등 수많은 복합적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저임금 노동력의 유입에 대한 유럽의 결론은 사회 편익 비용을 감안할 때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둘째, 보건으로 정책의 성공으로 진행된 평균수명의 증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2년 미국(77세)을 추월하였고, 2013년엔 82세로 일본 수준(84세)에 근접하고 있다. 그런데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을 의미하는 건강수명은 66.0세로 평균수명보다 16년이나 낮다. 노년에 16년을 병마와 씨름해야 한다는 뜻이다. 연명 치료와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노년 복지도 취약하다. 한국은 65세 이상 노년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49.6%로, OECD(평균 12.6%) 최악의 수준이다. 저소득 노인층 복지가 국가적 숙제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는 1955~63년 한국전쟁 후 출산 붐 연령대로, 총인구의 14%를 차지하는 710만 명의 거대한 인구집단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경제성장에 있어 막대한 생산가능인구로 기여하여 소위 인구 보너스 효과로 성장을 주도했으나, 이제 이들이 피부양 인력화되면서 한국의 초고속 고령화의 핵심 요인으로 등장했다.

대한민국의 평균 퇴직연령은 53세이고 정년퇴직은 7.6%에 불과하다. 법적 정년을 늦추는 것이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한국의 초임 대비 정년 급여는 3.3배로 독일의 1.97배, 프랑스의 1.37배보다 월등히 높다. 성과와 비례하지 않는 연봉은 결국 권고 사직으로 이어져 정년

퇴직 비율이 7.6%에 불과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임금 구조가 야기한 것이 투쟁으로 얼룩진 노동 현장의 갈등 구조다.

이제 미증유의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잠재된 문제 해결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몇 가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생산에 비례하는 급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해관계자 간의 충돌은 이익의 불일치에서 비롯된다. 초임 대비 최고 임금을 시대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 독일도 두 배는 넘지 않는다. 그리고 임금피크제가 확대 도입되어야 한다. 그러면 기업의 근무 연한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둘째, 은퇴 후 연금이라는 공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은퇴가 없는 사회라는 새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노령화에서 우리를 앞서간 일본의 '역 총활약'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과 노령화 문제 극복의 한계를 깨닫고 모든 생산가능인구가 삶의 의미를 갖고 활동하자는 포괄적 개념이다. 한마디로 '즐겁게 일하다 죽자'는 것이다.

셋째, 3년에 50%가 문 닫는 기존 자영업자를 넘어선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다. 노년의 역량을 활용할 일자리는 1인 창조기업과 청년과의 합동창업, 크라우드펀딩, 컨설팅 등 다양하다. 이러한 활동은 공유경제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활성화된다. 개별 기업 지원이 아니라 프리랜서 플랫폼 구축이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의 인물 8월 22일  
클로드 아실 드뷔시

세기말의 퇴폐·권태...佛 인상주의 대표 음악가

클로드 아실 드뷔시는 1862년 8월 22일 프랑스 파리 근교의 생제르맹 앙 레에서 도자기점을 운영하는 아버지와 재봉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내성적이고 겁 많은 성격이었지만 일곱 살 때 배우기 시작한 피아노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덕분에 유력 인사의 지원으로 1872년 파리음악원에 입학할 수 있었다.

온라인  
와글와글



여전한 자영업자 세금 탈루 "유리지갑이 억울해요"

현금결제 유도와 범인카드의 개인적 사용 등을 앞세운 자영업자들의 세금 탈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제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세무당국의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은 72.8%로 드러났다. 자영업자의 소득 100만 원 중 27만 원이 세무당국에서 파악되지 않는 셈이다. 반면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파악률은 93.4%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쉽게 소득을 감추는 방법은 신용카드

를 버리고 바르닥과 재혼했다. 드뷔시와 바르닥 사이에 딸 클로드-엠마가 태어나자 드뷔시는 1908년 딸에게 피아노 소품 '어린이 차차'를 지어줬다. 그는 1918년 3월 25일 암으로 죽었다. 파리 동부 페르라세즈 공동묘지에 묻혔다가 후에 지금의 파리 묘지로 이장됐다. "드뷔시의 음악에는 세기말이라는 시대가 지닌 퇴폐적이고 권태적인 분위기가 녹아 있다." 일본의 예술·사회평론가 모리모토 마유미(森本眞由美)가 '에피소드로 엮은 클래식 음악 100'에서 드뷔시를 평한 대목이다.

카드로 보는 세상



2016 리우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탐과 열정의 무대 뒤엔 선수들의 인간적인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육중한 몸매를 이리저리 흔들며 춤을 춘 역도선수와 경기 후 혼자 햄버거 파티를 벌인 배드민턴 선수의 이야기가 그렇죠. 마음을 정하게 하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경쟁보다 더 뜨거웠던 우정 어린 모습, 경기장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펼쳐진 프리포즈 등입니다.



카드뉴스 전문을 보시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주소로 접속하세요. <http://goo.gl/3w1nm1>



**RAYCOOK GOLF**

퍼터는 레이콕이 좋습니다

**알에스스포츠** TEL. (02)3280-9607

최종찬 칼럼



국가경쟁전략연구원장 전 건설교통부 장관

## 정부 관리 부실기업, 조기 민영화가 답이다

금을 받기 원한다. 이 과정에서 자금지원을 둘러싸고 로비나 정치적 압력이 작용하게 마련이다.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상당수는 부실기업이 되어 주채권자인 산은이 주인이 되었다. 산은은 대우조선 외에도 대우건설 등 많은 부실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산은 자회사 외에도 사실상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부실기업이 많다.

앞으로 대우조선과 같은 정부관리 기업의 비리와 부실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많은 전문가가 투명한 인사제도를 확립해 낙하산 인사를 막고 능력 있는 전문가를 인선해야 한다고 한다. 아울러 산업은행이나 회계기관이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산업은행이 CEO를 잘 뽑고 감독을 잘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떤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산업은행 CEO는 정치적으로 임명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와 같은 CEO가 어떻게 자회사 CEO 선정에 정치적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가? 정치적 영향력에 도울 받아 임명된 CEO들이 어떻게 외부 압력에 초연할 수 있는가? 사회 분위기에 따라 한두 번쯤은 적재적소의 인사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정한 인사와 소신 있는 경영이 지속되리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근본 대책은 조기에 민영화하는 것이다. 산은의 자회사들은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에 있는 기업이 없어 민

영화한다고 독점력의 남용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동안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제 값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저가에 매각한 것으로 비칠 경우 각종 감사나 국회 청문회 등에서 문제될 것을 두려워한다. 이외에 산은 입장에서도 많은 자회사를 소유하는 것이 크게 나쁠 것이 없다. 퇴직자들을 위한 자리가 늘어나고 자기를 권한도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공기업 상태로 유지되면 그와 같은 회사들의 경영이 호전될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 임명된 CEO가 봉급이나 연임 등 별 인센티브도 없는데 경쟁기업보다 ভাল 가능성은 별로 없다. 대우조선은 16년간 공기업으로 있으면서 수조 원을 지원받고 또다시 거액을 지원받아야 한다. 언제까지 공기업으로 유지할 것인가? 때로는 투입된 비용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적절한 가격이라면 매각해야 한다. 자금의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한다. 부실기업에 1조 원을 투입하여 손해를 안 보려고 기다리다가 10년 후 1조 원에 매각하였다고 하자. 조기에 매각하였더라면 그 돈으로 다른 수많은 유망 기업을 지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주인 없는 공기업은 속성 상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다. 독점력 남용이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 공기업으로 유지할 이유가 있지 않는 한 공기업은 조속히 민영화해야 한다. 아울러 공직자들이 소신적 민영화를 할 수 있도록 변칙 조항 등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김경아의 소곤소곤

자본시장 2부 차장

## 고연봉 증권사 CEO를 보는 눈

미국의 카드결제 대행회사인 그라비티 페이먼트(Gravity Payments)의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댄 프라이어 대표는 최근 자신의 연봉을 90% 이상 삭감했다.

애초 100만 달러에 육박하는 연봉을 그가 삭감한 이유는 회사 내 직원들의 최저 임금을 올려주기 위해서다.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댄 프라이어 대표의 선택으로 이 회사 직원들의 평균 임금은 4만8000달러에서 7만 달러로 대폭 인상됐다.

그의 이 같은 행보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이상적인 최고경영자(CEO)의 모습으로 비친다. 그러나 국내 금융투자업계 CEO들의 실상은 근로자들이 꿈꾸는 이상현과는 거리가 멀다.

최근 회사는 적자에 허덕이지만 최고 연봉으로 화제를 모은 증권사 CEO들이 잇달아 도마에 올랐다.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에 발표된 주요 상장사 경영진의 올 상반기 보수 현황에 따르면, 오너를 제외하고 성과급을 가장 많이 받은 최고경영자는 다음 아닌 현대증권의 윤경은 대표다. 윤 대표는 올 상반기 급여(3억 5000만 원)의 여섯 배에 가까운 20억 원 이상의 급여를 성과급으로 챙겼다.

이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18억 8600만 원),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17억1200만 원)보다 많은 액수다. 윤 대표가 끝까지 대기업 최고경영자를 제치고 눈에 띄는 성과급을 챙긴 이유에 대해 사측은 흑자와 더불어 매각 추진 과정에서의 공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대증권은 업계가 예상한 매각 가격인 6000억 원대를 두 배가량 웃도는 1조2000억 원의 몸값을 받고 KB금융지주에 넘어갔다. 물론 현대그룹 자구안의 핵심인 현대증권의 매각 성사에 윤 대표 공로가 있었



던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최근 현대증권이 2분기에 대항사 가운데 유일하게 56억 원의 적자를 냈다는 점이다. 감성으로 꼽히는 현대증권 노조도 최근 성명서를 내고 “성공적인 매각 관련 인센티브는 대표이사뿐만 아닌 전 임직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라며 “윤 대표는 지금이라도 인센티브를 반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 HMC투자증권 노조도 최근 성명서를 내고 김홍재 대표 등 경영진이 능력과 자질에 비해 과도하게 급여를 받았으며 이를 반납하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노조가 발 벗고 나선 데는 2014년 김 대표가 취임한 이후 시행한 차별적 성과급 및 복리후생 제도 등으로 인해 본사와 지점 간 임직원의 갈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의 실적이 하락해 직원들이 구조조정 1순위가 되는 상황에서 경영진의 제 배 불리기는 불합리하다는 논리다.

최근 넘어진 경영자를 일으켜주며 같이 결선 트랙을 완주해 화제를 모은 리우올림픽 여자 육상 5000m 예선전 경기가 새삼스럽고 당혹스럽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경영진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발로 뛰는 임직원에 대한 합당한 성과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kakim@

최근 대우조선과 관련된 비리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그동안 누적된 수조 원의 적자가 밝혀짐으로써 역대 대우조선 CEO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수사는 현재 경영진까지 확대되고 있다. 수익성을 무시한 무리함 수주를 하고 경영과 별 관계 없는 수많은 고문을 위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이 드러나고 있다.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켜 거액의 상여금을 임직원이 받았다.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많은 퇴직자를 대우조선에 내려보냈고 각종 비리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

대우조선 지원 관련 정책 결정 과정도 문제되고 있다. 전임 홍기택 행장은 대우조선 지원 관련 주요 결정은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논의되었고 기재부장관,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기는 별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함으로써 정치적 문제가 되고 있다.

산업은행은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금 지원은 일반 상업은행보다 지원 조건이 유리하므로 누구나 정책자

**개석** 마크 빌라타 미국하이부시블루베리협회(USSHBC) 대표

### 정보라색 영양제 블루베리



미국 하이부시 블루베리가 올해로 개발된 지 100년째를 맞았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약용으로 사용되었던 블루베리는 1911년 이전까지 야생에서만 존재했던 식물이었다. 야생 블루베리는 로부시 블루베리로, 재배 블루베리는 하이부시 블루베리로 불린다.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미국 하이부시 블루베리는 대표적인 웰빙 과일로 성장했다. 적절한 일조량, 블루베리가 자라기에 가장 좋은 산성 토양, 꿀벌을 통한 수분 등 천혜의 환경에서 과학적으로 재배되어 깊고 달콤한 맛, 선명한 색상, 풍부한 향을 고루 갖춘 것이 특징이다.

블루베리는 천연 영양제와 같다. 지름 2cm 정도의 작은 알갱이 안에 칼슘, 구리, 철, 마그네슘, 인, 칼륨, 셀레늄 등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 A·B·C·E, 엽산,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등 각종 비타민이 풍부하다. 하루 한 컵(140g)은 약 80kcal로 각종 영양소를 섭취하는 데 충분하다.

한국에서는 블루베리가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노화를 예방하고, 시력 보호와 눈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과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치매 예방이나 기억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뇌 질환 예방 식품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최근 미국 신시네티의 과대학 보건센터의 로버트 크리코리언 박사는 노인 47명(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시험 결과 블루베리가 치매 위험이 높은 노인들의 기억력을 개선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은 점차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 모두가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연은 이러한 노화를 예방하는 선물을 준비해왔다. 자연이 주는 제철 식품은 우리 몸에 꼭 맞는 맞춤형 영양제와도 같다. 여름에만 맛볼 수 있는 생 블루베리, 하루 한 컵의 블루베리는 건강하게 나이 들도록 돕는 자연의 선물인 셈이다.

**기자수첩** 좌영길 사회경제부/iy97@

### 검찰의 이례적인 로펌 압수수색



미국 정치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는 백악관이 불법 정치자금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특별검사 수사를 받는 에피소드가 나온다. 특별검사는 주요 인물이 목사와 신상에 대한 상당한 사실을 확인하지만, 쉽사리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다. 아무리 중대한 공익을 위한 수사라고 해도 종교인이 사제에게 털어놓은 내용은 강제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검찰이 롯데그룹 자문을 맡았던 A로펌을 압수수색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검찰은 A로펌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수천억 원대 증여세 탈루를 자문해 줬고, 증거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영장을 발부박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변호사 업계에서는 의뢰인의 자문 내용이 검찰에 제출했다는 점에 대해 적지 않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의뢰인이 변호사를 신뢰하고 밝힌 내용을 수사 단서로 활용하는 게 정당한지는 지적도 있고, 반대로 로펌도 수사 대

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대기업 고객이 떨어져 나갈 게 뻔한데도 해당 로펌이 순순히 자료 제출에 응한 것은 검찰이 A로펌을 소송사기 혐의로 압박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있다. A로펌은 롯데계미감의 270억 원대 세금 환급 소송을 대리했다.

검찰은 진화에 나섰다. 이번 건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앞으로 로펌을 수사하는 일이 상례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미국에서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보호(Attorney-Client Privilege·ACP)에 관한 논의가 일찌감치 이뤄졌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믿고 밝힌 내용을 수사 증거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한계와 절차, 증거능력 인정 범위를 정한 바가 없다. 롯데 수사의 방향을 떠나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권리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투데이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박민수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논설실 (02)799-6701 산업1부 (02)799-2663 자본시장1부 (02)799-2641 뉴미디어부 (02)799-6741	정치경제부 (02)799-2665 산업2부 (02)799-2664 자본시장2부 (02)799-2658 기획취재팀 (02)799-2651	국제팀 (02)799-2643 사회경제부 (02)799-2650 금융시장부 (02)799-2648 시진영상팀 (02)799-2646	구독신청 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www.hainaim.com **해냄**  
전화 02-325-1600 팩스 02-325-1624

# “만일 마더 테레사께서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간이 그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였을 것인가” —정호승

가난을 고발하려 인도로 떠난 사진가, 마더의 사랑에 물들다

## 마더 테레사, 넘치는 사랑

시인 정호승과 그 아버지의 손길로 태어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녀의 깊고 큰 사랑!  
인도 콜카타, 마더 테레사의 곁에서 보낸 사진작가의 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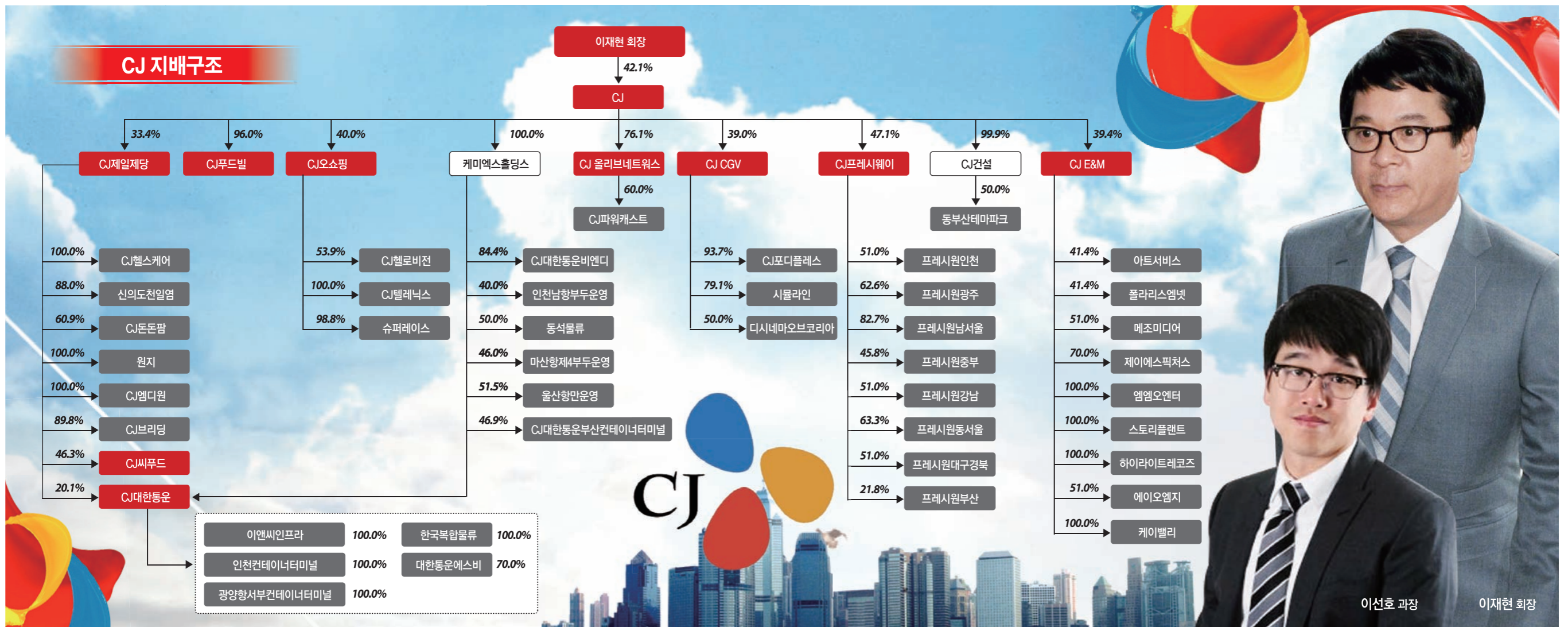
모든 모리하루 먹고 쓰다  
정창현 정호승 옮기고 다들다  
양장본 172쪽 | 14,500원

“우리는 모두 사랑하고 또 사랑받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마더 테레사

**조광호(신부 회개)** ‘신이 어디 계시며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싶은 분과, 사람은 누구이며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참사랑과 행복과 기쁨, 보람과 희망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은 분에게 나는 이 책을 진실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이혜인(수녀 시인)** 생생한 사랑의 기록인 이 책 속의 사진과 글을 보는 것 자체가 훌륭한 기도이고 묵상이며 우리가 두고두고 본받아야 할 이웃사랑의 지침서입니다.

**김혜자(배우)**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희생이라는 실천을 통해 사랑을 완성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모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가르치신 넘치는 사랑뿐입니다.



# 이재현 회장 복귀...아들 선호씨 아직 20대, 지분이전 과제

## 기업 지배구조 라운드 2 10 CJ그룹

국내 대기업집단 체계 12위 CJ그룹이 이재현 회장의 사면복귀를 계기로 변화의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우선 이 회장의 공백으로 느슨해졌던 그룹 내부를 수습하는 동시에 경영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2020년 매출 100조 원, 해외 비중 70%를 목표로 하는 '그레이트 CJ'를 추진하고 있는 CJ로서는 지난 3년간 추수의 공백이 뼈아픈 부진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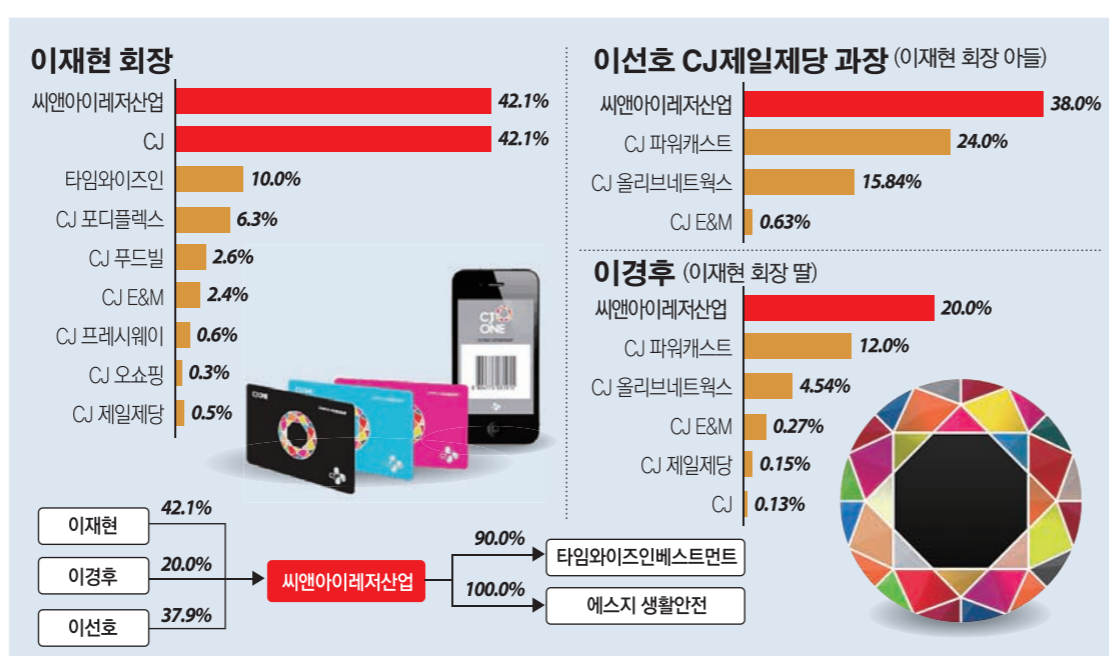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그룹 승계 작업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슬하에 아들 선호(27) 씨와 딸 경후(32) 씨 등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현재 CJ제일제당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후계수업을 받고 있는 선호 씨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엔 아직 이른 시점이지만, 장기적으로 '포스트(POST) 이재현' 체제를 위한 지분이전이 필수적이다. 결국 CJ그룹은 이 회장의 복귀로 경영 정상화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분 이전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 안정적으로 경영권 승계하려면

# 오너가 지분을 높은 비상장사 현금창고로 활용 가능성 커

CJ그룹의 적통 후계자로 꼽히는 이재현 회장의 아들 선호 씨가 향후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려면 지주사인 (주)CJ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지분 승계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완성형의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CJ가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지주사 지분을 확보하려면 비상장사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재계 안팎에선 알짜 비상장사인 CJ올리브네트웍스가 향후 승계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올리브네트웍스의 자회사인 CJ파워캐스트와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오너(家) 개인회사 씨앤아이레저산업도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너가 지분을 들고 있는 이들 비상장 계열사의 지분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승계자금으로 활용할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CJ시스템즈와 화장품·마용용품 유통 계열사 CJ올리브영을 합병한 회사다. 지주사인 (주)CJ가 지분 6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 회장의 아들 선호 씨가 15.84%를 보유한 2대 주주이며, 딸 경후 씨도 지분 4.5%를 들고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매출과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올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5% 증가한 3442억 원, 순이익은 56.8% 증가한 223억 원을 기록했다. 핵심 성장종인 올리브영의 2분기 매출은 2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6% 성장했다. 점포수는 639개로 전년 대비 35.1% 증가했다. IT사업부의 매출은 8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7% 성장했다. 업계에서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기업 가치가 1조9000억~2조 원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와 증권가에서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삼성SDS와 같이 승계작업에 있어 현금 창고로 쓰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우선 올리브네트웍스를 키운 뒤 상장시켜 CJ와의 합병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후계자인 선호 씨가 올리브네트웍스 지분을 지렛대로 지주사인 (주)CJ 지분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이다. 또는 이 회장의 자녀들이 CJ 주식을 증여받고, 상속세는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으로 충당하는 시나리오도 흘러나온다. 어쨌든 CJ올리브네트웍스의 지분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승계자금 확보에는 유리한 상황이다. 이를 위한 지분 승계는 이미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이 회장은 300억 원 상당의 올리브네트웍스 지분 11.35%(14만9667주)를 선호 씨와 경후 씨에게 각각 4.54%(5만9867주)씩 증여했다. 이 승계로 선호 씨의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은 20.0%에서 15.84%(20만8867주)로 증가했고, 그룹 지주사인 (주)CJ(76.07%)에 이어 2대 주주가 됐다. CJ올리브네트웍스가 지분 60%를 들고 있는 CJ파워캐스트 역시 일감 몰아주기 성장해 승계 자금의 키를 쥐고 있는 계열사다. 작년 CJ파워캐스트의 848억 원 매출 중에서 CJ E&M(65억 원)을 포함한 그룹사 내부 매출은 413억 원에 달했다. 지난 2010년 선호 씨와 경후 씨가 각각 74억3000만 원, 37억1500만 원을 들여 아버지 이 회장으로부터 각각 24만 주, 12만 주를 매입한 후 현재 남매는 각각 24%, 1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오너가의 지분율이 높은 이 계열사를 이용해 승계자금으로 쓰일 현금 실잔도 마련할 수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작년 100억 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했다. 선호(15.84%) 씨, 경후(4.54%) 씨 지분율을 고려할 때 약 20억 원가량의 배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CJ파워캐스트 역시 작년 50억 원의 배당을 실시해 지분 40%를 들고 있는 오너가는 20억 원의 배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된다. 김희진 기자 heejin@

◇삼성에서 계열분리... 이재현 회장 진두지휘 아래 사업 다각화 이뤄 = CJ그룹은 1993년 제일제당으로 삼성그룹에서 분리된 이후 이재현 회장이 선두에서 그룹을 총괄하고 있다. 이 회장은 삼성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의 아들로, 창업주의 손자다. 이 회장의 누나인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은 1995년 CJ엔터테인먼트 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해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사업군을 이끌었다. '이미경 라인을 타면 자다가도 CF가 떨어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화 콘텐츠 사업에 막대한 멘파워를 과시했지만, 지병으로 앓아온 유전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서 장기 요양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그룹 경영에서 손을 놓은 상태다.



1993년 삼성서 분리후李회장이 그룹 총괄 최근 3년간 추수공백으로 뼈아픈 부진 감내 느슨해진 그룹내부 수습·경영정상화 시급

동양매직·한국맥도날드 인수전 적극 나서 그룹차원 대대적 투자·과감한 배팅 가능 매각무산 CJ헬로비전 조직 추스르기도

완성형 지배구조...그룹 승계작업은 진행형李회장 지주사 CJ지분 42.1% 보유 최대주주 선호씨 지주사·주요 계열사 지분 확보가 핵심

그룹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엔 아직 어린 데다, 핵심 계열사에 대한 보유 지분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후계 승계는 그룹을 이끌 후계자로서의 존재감과 지주사 (주)CJ의 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확보하느냐가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딸 경후 씨의 경우 (주)CJ 지분 0.13%를 비롯해 CJ제일제당(0.15%), CJ E&M(0.27%) 등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역시 존재감이 미미한 수준이다. <사면복귀 후 그룹 현안 = 이 회장의 특별사면으로 CJ그룹은 우선 한숨을 돌렸지만 아직 해결해

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이 회장이 재계 인사 중 유일하게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풀려난 만큼 그룹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상의 이유로 당장 경영일선에 나설 수는 없지만, 추수의 존재가 그룹 차원의 과감한 배팅을 가능하게 한다는 기대다. 이 회장의 부재 기간 중 APL 로지스틱스, 동부파워, 중국 바이오 기업인 메이화성우 등 각종 인수 경쟁에서 고배를 마신 CJ는 최근 동양매직과 한국맥도날드 인수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또 일감 몰아주기 이슈도 피해갈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 회장의 동생 재환 씨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재산커뮤니케이션스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는 CJ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측은 CJ CGV가 스크린 광고영업 대행 업무를 계열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스에 부당하게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스는 CJ CGV에서 상영되는 광고의 대행 업무로 연간 100억 원 안팎의 순이익을 올렸으며, 특히 작년 1~9월에는 CJ CGV와 스크린 광고 등 명목으로 560억 원을 거래한 것으로 전해진다. 매각 무산 이후 위기에 빠진 케이블TV 업체 CJ헬로비전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CJ그룹은 이 회장의 사면 직후인 17일 변동식 (주)CJ 총괄부사장을 3년 여 만에 CJ헬로비전 대표로 복귀시키는 인사를 단행하면서 매각 실패 후 공중에 떠버린 CJ헬로비전 조직 추스르기에 나섰다. 김희진 기자 heejin@

**BIG BANG** Class 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20년 앞선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 설계기술력 - **뱅**

힘들고 어려웠던 아이언 4,5번 거리를 이제부터는 아이언 7,8번으로

# 쉬고, 포진하게!!



누구나 한 두 번 실수를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실수 후에 만회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누구나 가끔 드라이버를 잘못 칠 수 있지만 현명한 골퍼는 세컨샷 선택이 다릅니다. 돌이켜 보면 스코어는 여기서 차이가 났었습니다. 길게 남은 거리 - 롱아이언을 잡아야 할 시점에 40야드 더 나가는 뱅롱디스틴스 숏아이언을 잡으면 쉽고 편하게 투온이 되어 티샷 실수를 만회합니다.

반발계수 0.925  
40yd 더 나가는 **극초고반발**  
하이브리드 **아이언**  
**BIG BANG** Longdistance

**일반적인 아이언보다**

- 비거리가 +40yd 더 나간다.
- 방향성이 훨씬 좋다 - 체적이 커서 스위트스팟이 넓고 빗맞아도 뒤틀리지 않는다.
- 출발 백스핀 1.12배, 착지 백스핀 3.5배 증가 - 백스핀이 너무 많아 그루브를 없앴다.
- 뒷땅이 없다.
- 엘보우가 없다.
- 스윙이 쉽고 편하다.
- 세계에서 제일 가볍다. (초경량, 스윙밸런스 B3까지도 가능)



대표전화 : 1544-8070

(주)뱅골프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7-3 (야탑로 26) 한국골프회관1층

주의 - **BIG BANG** 뱅골프 로고가 틀리거나 샤프트에 뱅골프코리아의 홀로그래미 없는 것은 모조품입니다.  
Made in Japan or Made in Korea - Fitting ※ 가격 영원 불변 정책 ※  
TEL : (031) 781-2041 · FAX : (031) 781-2031 www.banggolf.co.kr



올림픽만큼 뜨거웠던 스포츠 마케팅

22일 폐막한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에서 태극전사 204명은 매 경기 최선을 다하며 온 국민에게 감동을 안겨주었다. 국민의 쏟아지는 응원 속에 눈물도 아끼지 않은 태극 전사들의 뒤에는 언제나 든든한 후원자인 재계가 자리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국민적 사랑을 받는 인기 종목뿐 아니라 굵직한 국제대회 때에만 관심을 끄는 비인기 종목에도 몰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전 세계에 기업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올림픽 마케팅에 공을 들여 오고 있는 것이다.

당장 급한 글로벌 이슈들이 산적한 탓에 올해엔 과거와 달리 차분한 분위기 속에 치러진 올림픽이지만,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선수단장), 최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자열 LG그룹 회장, 정이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등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 리우올림픽 현장까지 찾아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안철우 기자 acw@

국내 기업들 '리우올림픽' 마케팅 현황

삼성전자

올림픽 참가선수 전원에게 '갤럭시S7 엣지 올림픽 에디션' 1만2500대 제공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파크에서 '갤럭시 스튜디오' 운영  
리우올림픽 조직위원회와 'Rio 2016' 애플리케이션 개발·배포

현대기아차

현대차 브라질법인 통해 현지 마케팅  
-리우 예수상 이미지 독점적 사용, 폐막 때까지 광고·프로모션 이미지로 활용  
-예수상 주변 무료 와이파이존 설치  
기아차, 올림픽 개최 도시 리우와 동음인 주력 수출 차종 '리오' 활용한 마케팅

쌍용차

코란도C, 티볼리, 코란도 스포츠 모델 등 대상으로 '삼바 에디션' 판매  
삼바 에디션 구매고객 중 추첨 통해 당첨자에게 브라질 자유여행권 등 경품 제공

KT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브라질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운영하는 평창홍보관 참여  
'VR 스키점프', '인터랙티브 타임 슬라이스' 등 5G 기반 다양한 체험형 서비스 제공

SK브로드밴드

IPTV 'B tv'와 모바일 동영상 플랫폼 '옥수수' 통해 전 경기의 실시간 및 다시보기 서비스 지원



지난 5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낭 경기장에서 열린 '2016 리우올림픽' 개막식에서 올림픽 참가선수들이 삼성전자의 '갤럭시S7 엣지'를 이용해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선수단 입장 또다른 주인공 '갤S7 엣지'

'올림픽 에디션' 1만2500대 지원  
선수들 셀카 삼성전자 간접홍보  
현대차, 예수상서 무료 와이파이  
KT, 코파카바나 평창홍보관서  
스키점프 VR 서비스로 눈도장

전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에서의 브랜드 노출은 기업의 최고 마케팅 수단이다. 이에 국내 대기업들은 이번 2016 브라질 리우올림픽에서도 '삼바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브랜드 알리기에 앞장섰다.

국내 기업 유일의 리우올림픽 공식 후원사 삼성전자는 올림픽 개막에 맞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협력해 참가 선수 전원에게 신제품 '갤럭시S7 엣지' 올림픽 에디션 1만2500대를 지원했다. 물론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에 현지 마케팅도 활발하게 펼쳤다. 리우올림픽 무선통신 분야 공식 파트너

사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파크에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과 가상현실(VR) 기기를 체험할 수 있는 '갤럭시 스튜디오'를 운영했다. 스튜디오를 방문한 올림픽 팬들과 선수들은 4D 엑스트림 카약 존에서 올림픽 종목인 카약을 4D의자와 가이VR를 통해 즐겼다. 갤럭시S7 엣지도 직접 체험하도록 도왔다. 삼성전자는 방문객들에게 올림픽 스포츠 종목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22개의 올림픽 기념 핀과 브라질을 상징하는 8개의 핀도 증정, 재미를 더했다.

삼성전자는 또 리우올림픽 조직위원회와 함께 'Rio 2016' 애플리케이션을 개발·배포. 삼성전자 브랜드를 인식시키는 데 앞장섰다. 올림픽 팬과 관광객들은 이 앱을 통해 경기 일정과 장소, 메달 집계 현황, 유관 행사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브라질 법인을 통해 현지 마케팅을 펼쳤다. 자동차 제조사로서는 유일하게 리우 예수상 이미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브라질 현대차법인은 이를 리우올림픽 폐막 때까지 광



'2016 리우올림픽' 기간 브라질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운영되는 '평창홍보관'에서 관광객들이 KT의 '증강현실 스키점프'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제공 KT

고·프로모션 이미지로 활용했다. 또한 예수상 주변에 무료 와이파이존을 설치했다.

기아자동차는 주력 수출 차종 '리오(한국명 프라이드)'를 활용한 '엠부시 마케팅'을 진행했다. 올림픽 개최 도시명 리오와 동음인 기아차 '리오'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기아차 브랜드를 홍보하고 인지도를 높였다. 쌍용차는 코란도C, 티볼리, 코란도 스포츠

모델 등을 대상으로 구성된 '삼바 에디션'을 선보였다. 삼바 에디션 구매고객 중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는 브라질 자유여행권 등의 경품을 준다.

통신업체들도 활발한 리우올림픽 마케팅을 펼쳤다. KT는 리우올림픽 기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운영하는 평창홍보관에 참여해 다양한 체험형 서비스를 선보였다. 평창홍보관은 브라질의 관광 명소 코파카바나 해변에서도 운영 중이며, 이곳에서 KT는 'VR 스키점프', '인터랙티브 타임 슬라이스', '홀로그램' 등 5G 기반의 다양한 체험형 서비스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했다.

SK텔레콤은 자회사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이벤트를 진행했다. SK브로드밴드는 올림픽 폐막일인 22일까지 자사 IPTV 'B tv'와 모바일 동영상 플랫폼 '옥수수'를 통해 리우올림픽 전 경기의 실시간 및 다시보기(VOD) 서비스를 지원했다. 옥수수는 매일 올림픽 VOD 영상을 이용하는 고객 중 500명을 뽑아 500MB SKT LTE 데이터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펼쳤다. 김지영 기자 outly@

12시간 시차·지카 불안... '반짝특수' 반쪽 됐네~

대부분 경기 새벽에 몰리고  
불참 선수도 많아 관심 덜해  
광고판매율 런던올림픽 30%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좋은 '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혼식에 엄청난 돈을 들이곤 한다. 엄청난 파티를 열지만, 손 만큼의 비용을 다시 돌려받을 길은 없다. 올림픽도 비슷하다."

영국 옥스퍼드대 사이드경영대학원의 엘리슨 스튜어트 박사는 1960년 이후 개최된 올림픽의 경제 효과를 연구한 결과 '올림픽 효과를 이렇게 비유했다. 올림픽 경기가 개최될 때마다 다양한 국가와 기업들이 올림픽 특수를 기대하지만, 사실상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볼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빅 이벤트인 올림픽은 경제적·정치적 파급력이 크다. 개최지의 경우 이미지는 물론 경제적 파급력을 높이고 많은 국민이 방문하면서 외교의 장도 열린다.

개최국뿐 아니라 참가국도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면 국민들을 통합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올

올림픽 메달의 경제적 가치 추정 결과

	최소	최대
올림픽 메달 1개의 경제적 가치	1,950억	2,690억
1 국민통합 및 사기 진작 효과	70억	430억
2 기업의 이미지 제고 효과	120억	200억
3 국가 브랜드 홍보 및 국경 상승 효과	1,760억	2,060억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단위: 원)  
주: 금, 은, 동메달 모두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가정하에 올림픽 메달 1개의 경제적 가치

림픽 경기 중 노출되는 광고를 통해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이미지를 제고할 계기가 마련된다.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면서도 다양한 산업에서 올림픽 특수에 기대를 걸고 있는 이유다. TV업체의 경우 스포츠 이벤트가 열릴 때마다 대화면 TV의 수요가 늘어 매출 확대에 기여하기도 하고, 유통업체의 경우 삼삼오오 모여 경기를 관람하며 음식을 사먹는 수요가 늘어 배달 특수가 발생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메달을 획득함에 따라 노출되는 기업 광고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는 최소 약 120억 원에서 최대 약 200억 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지구 반대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와 12시간에 달하는 시

차로 대부분 경기가 새벽에 몰린 탓에 국내 기업의 마케팅 열기도 전갈이 않다. 시차뿐 아니라 지카바이러스, 테러 불안, 선수단 불참 등의 악재가 겹치며 올림픽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덜했기 때문이다.

올림픽 반짝 특수를 기대하던 국내 기업들도 실망하는 눈치다. 방송사들도 올 상반기로 '분방 사수'를 포기하는 시청자들이 많아졌고, 광고 시장 사정도 좋지 않다. 2012년 런던올림픽과 비교하면 약 30% 수준으로 올림픽 사상 최악의 광고 판매율을 보이고 있다.

차익업체의 경우 올림픽 개막 후 첫 주말 매출 증감률이 전주 대비 5.7% 늘었는데 그쳤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때 하루 매출이 최대 90% 이상 늘고, 새벽 3시 30분에 경기가 열렸던 나이지리아전 당시 매출도 20% 신장했던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그나마 폭염이 이어지며 늦은 밤 잠 못 이룬 올빼미족들의 소비가 올림픽 특수의 반자리를 채웠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열대야가 지속되며 새벽 시간대에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야식 배달족 덕분에 매출이 늘어 날찌 덕을 본 셈"이라고 말했다.

정유현 기자 yhssoo@

금 따면 안마의자·순위 맞추면 선물  
中企도 마케팅 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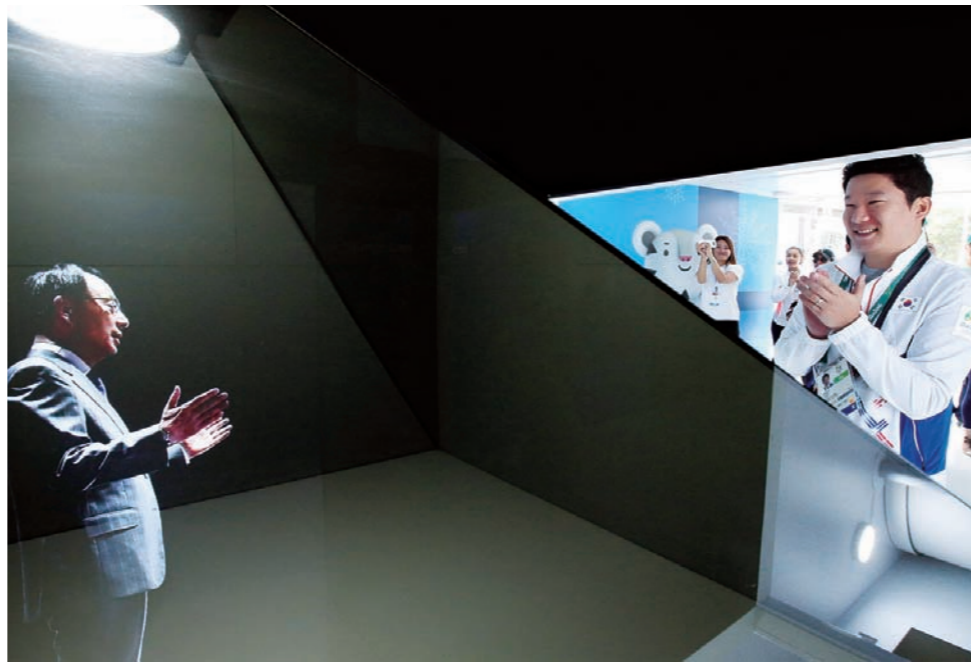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기간 동안 국내 중소기업들의 마케팅 열풍이 불었다.

헬스케어업체 바디프렌드는 홈쇼핑 상담 또는 온·오프라인 렌탈·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골드 캐시 이벤트'를 진행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올림픽에서 획득한 금메달의 개수만큼 추첨을 통해 안마의자를 증정하는 이벤트다. 이 회사는 한국 선수단의 올림픽 금메달 수와 같은 수의 안마의자(토크명 파라오)를 증정하기로 했다.

박상현 바디프렌드 대표는 "전 세계인의 축제에 참가한 204명의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선수들의 노력을 통한 승리의 기쁨을 전 국민과 함께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물결체 청소기업체 오토비스는 올림픽 기간 '대한민국 순위 맞추기' 이벤트를 진행했다. 오토비스 공식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순위를 예상하는 댓글을 달면 자동 참여하는 이벤트는 통해 '갤럭시기어', '나이키 상품권' 등 다양한 스포츠 경품을 증정했다.

한경희생활과학도 제품을 구매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대표팀의 예상순위와 응원 메시지를 남기는 '브라질 태극전사 응원 이벤트'를 실시했다. 최종 순위를 맞힌 1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한경희 무선주전자 'LIGHT'를 증정한다. 조성준 기자 tiatio@



리우 하계 올림픽 여자양궁 단체전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장혜진 선수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왼쪽).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평창 홍보관에 홀로그램 영상으로 등장해 리우 올림픽 사격 50m 권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진중오 선수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황창규 KT 회장.

# 현대車 父子 지원사격...양궁 '퍼펙트 골드'

## 올림픽 후원기업 성적표

2016 리우올림픽이 폐막한 가운데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기업들의 희비가 교차되고 있다. 이번 올림픽에서 양궁 대표팀이 사상 처음으로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 등 4개 전 종목을 석권하자 현대차그룹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체급별 세계 랭킹 1위 선수가 4명이나 출전했던 유도가 '노골드'라는 수모를 겪었고, 메달을 기대했던 배드민턴과 탁구, 여자 핸드볼, 레슬링 등에서 잇달아 금메달 사냥에 실패하면서 이들 후원 기업들도 울상을 짓고 있다.

## 車재료개발 센터 3D활 균열 검사 물심양면 후원 금메달 4개 싹쓸이

## 국내 스포츠 최대 지원기업 삼성 소속선수 김현우만 동메달 '노골드'

## 사격 진중오 3연패...한화·KT 웃고 SK, 핸드볼 '우생순 신화' 좌절 눈물

◇MK, 품질경영 양궁에도 적용... '양궁 금4 한국 독식' =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은 이번 올림픽에서 개인전·단체전에 걸린 4개의 금메달을 모두 따냈다. 이에 양궁 대표팀을 30년 넘게 지원해온 현대차그룹의 숨은 노력 또한 화제가 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정몽규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대물림 양궁 지원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 기간 양궁 발전을 위해 450억 원을 썼다. 정 회장은 양궁이 비인기 종목이었던 1985년부터 대한양궁협회장을 맡았다. 이후 아들 정 부회장은 2005년 양궁협회장의 자리를 이어받아 부전자전(父傳子傳) 양궁 사랑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정 부회장은 현대차그룹의 연구개발 최신 기술을 양궁 장비에 적용하도록 지시해 리우올림픽에 참가하는 대표 선수들이 시합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용 활들은 모두 현대차 재료개발센터에서 비파괴검사를 받았다. 비파괴검사는 3D 단층촬영(CT) 장비로 찍은 사진 수만 장을 3차원 영상으로 재현하는 분석법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나 활의 피로파괴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이 검사 덕분에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 박경모 선수의 활이 출국 직전 부러졌던 경험에서 비롯된 걱정을 리우올림픽 출전 선수들이 털어낼 수 있었다.

◇한화·KT 지원 사격 '진중오 3연패' = 한화그룹과 KT가 지원한 사격 부문에서는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가 나왔다. 진중오 선수가 50m 권총 부문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3연속 올림픽 금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앞서서 쏘는 50m 소총 복사 부문에서 김중현 선수가 은메달을 따냈다.

한화그룹은 지난 2001년 한화켄리리아 사격단을 창단하며 국내 사격선수들을 후원하고 있다. 2002년 6월부터 대한사격연맹의 회장사를 맡았다. 2008년에는 기업이 주최하는 최초의 사격대회 '한화회장배 전국사격대회'를 창설했다. 이어 국가대표 해외 전지훈련을 지원하는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난 15년간 125억 원에 달하는 사격 발전 기금을 내놓았다. 리

우 현지에선 경기가 열리는 동안 한화켄리리아 대표이기도 한 황용득 대한사격연맹 회장이 머물렀다.

KT는 진중오 선수가 소속된 아마추어 사격선수단과 여자 하키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 축구 국가대표팀의 공식 후원사를 맡고 있다. 축구 대표팀은 지난 14일 온두라스와의 경기에서 0대 1로 패하며 4강 진출에 실패했다.

◇삼성·SK, 레슬링·여자핸드볼 '노골드 위기' 눈물 = 삼성그룹은 국내 스포츠 최대 지원 기업이다. 삼성전자는 육상팀과 승마단이 있고, 삼성생명도 탁구와 레슬링팀을 운영하고 있다.

학창시절 레슬링 선수 생활을 했던 이근희 삼성전자 회장 덕분에 남다른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이 회장은 1982년부터 16년간 대한레슬링협회장을 지냈다. 이후 1983년 삼성생명 레슬링단을 창단했다. 이후 대한민국 레슬링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 대회에서 김원기 선수의 금메달을 시작으로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꾸준히 배출했다. 리우올림픽 대한민국 레슬링 대표 5명 중 4명이 삼성생명 소속이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우리 대표팀은 금메달을 기대했던 그레코로만형에서 동메달 1개를 수확하는 데 그쳤다. 지난 2012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현우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동메달을 땀지만, 류한수와 이정백은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2008 베이징 올림픽 노골드의 악몽이 또 다시 한국 레슬링을 찾아오고 있다.

SK그룹이 지원한 '우생순 신화' 여자핸드볼팀은 전통의 강호 유럽의 벽에 가로막혀 조기 탈락했다. SK그룹은 지난 2007년부터 핸드볼 실업리그와 국가대표팀을 후원해 왔다. 2008년부터 대한핸드볼협회장을 맡은 최태원 회장은 서울 수송중학교 재학 시절 핸드볼 선수로 된 경험도 있다.

한편 핸드볼 전용경기장 건설에도 SK가 430억 원을 후원하며 불교를 탔다.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 삼성경기장은 이후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으로 탈바꿈했다.

안철우 기자 acw@

## 회장님마다 다른 응원스타일 최신원, 여자 핸드볼 1·2차전 직관 최태원, 펜싱·골프·점영 두루 후원 정몽규, 대표팀 선수단장 진두지휘 황창규, 소속선수들 초대 격려오찬

4년 만에 돌아온 리우올림픽에 맞춰 태극전사를 응원하는 대기업 CEO들의 행렬이 잇따랐다. 이들은 올림픽을 통한 스포츠 마케팅은 물론 그룹의 이미지 쇄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직접 브라질을 찾아 선수들을 응원했다. 정 부회장은 현대차그룹이 30년 넘게 후원해 온 양궁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줬으며 이에 화답하듯 양궁 대표팀은 남녀 개인과 단체전에 걸린 4개의 금메달을 독식했다.

2005년부터 대한양궁협회장을 맡아 온 정 부회장은 2012년 런던올림픽 때도 현장을 찾아 선수들을 응원했다. 특히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서울 양재동 사무실에서 인천 서운동 경기장까지 왕복 70km 거리를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응원 다닌 일화는 유명하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과 SK 임직원도 그룹을 대표해 핸드볼과 펜싱 등 SK가 후원하는 경기는 물론 한국 대표팀이 출전하는 주요 경기를 참관하며 응원했다. 최 회장은 여자 핸드볼 대표팀과 러시아전 예선 1차전에 참석하며 '승리의 대한민국'이라고 적힌 응원복을 입고 2시간여 열띤 응원을 펼쳤다. 최 회장은 8일 열리는 스웨덴과의 2차전 경기에도 함께했다.

최 회장은 2008년부터 대한핸드볼협회장을 맡아 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핸드볼에 각별한 애정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SK는 최태원 회장이 협회장을 맡은 여자핸드볼 외에도 남녀 17명이 출전하는 펜싱, 최경주 감독이 이끄는 남자 골프, 여자 점영 등 여러 종목을 후원하고 있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이번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장으로 대표팀 선수단을 지원하고 있다. 정 회장은 최근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반장일치로 연임에 성공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리우로 떠난 정 회장은 선수단 전반의 지원을 책임지는 한편 축구 국가대표를 지원했다.

황창규 KT 회장은 리우올림픽에 앞서 KT스포츠 소속으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사격·하키 선수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황 회장은 "국민 기업 KT의 가족에 걸맞게 국민에게 힘을 주는 선전을 펼치기 바란다"며 "6만여 KT그룹 임직원 모두는 여러분이 올림픽에서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도록 열성을 다해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또 진중오 선수가 50m 사격 권총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자 지난 13일 리우데자네이루 평창 홍보관에 홀로그램으로 깜짝 등장해 진 중오 선수를 축하하기도 했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조남호 기자 sprdn@

# 잔디로 공에는 생신날 짜기가 있다.

골프공 100일 이내 사용, 최고의 성능 발휘!

**천연가죽 골프벨트 증정!**

- 2-피스 골프공 (8월 생산) + 골프벨트 : ₩24,000원
- 9월 생산 3-피스 골프공 + 골프벨트
- 할인가격: ₩38,000원 ● 배 송: 2016년 9월 10일 (구매고객 영국수입 피타드사 천연가죽 골프벨트)

문의: 02)6959-4900 / 02)2608-7400 (기업 및 단체 로고 공 제작) [www.jandiro.com](http://www.jandiro.com) / [www.jandiromall.com](http://www.jandiromall.com)

# “새 먹거리 ‘LED 조명’으로 올해 실적 반전”

## 벤처 사이트

김덕용 KMW 회장

“아직까지 경영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벤처 1세대는 저밖에 없을 겁니다.” 김덕용 KMW 회장은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웃음에선 1인 벤처를 수천억 원 매출의 중견기업까지 성장시켰다는 자신감이 엿보였다. 또, 한 번 받기도 어렵다는 ‘수출탑’을 다섯 번이나 받은 경험 속의 여유도 느낄 수 있었다.

얼마 전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KMW 본사

1991년 자본금 5000만원 시작  
매출 2500억 성장 ‘수출탑 5번’  
벤처 1세대 경영 최일선 자부심  
무선 RRH 주력... LED 진출  
최근 부진에도 연구개발 350억  
을 조명사업 손익분기점 목표

에서 만난 김 회장은 “1인 벤처에서 시작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모델이 하든첼피언인데, KMW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회사”라며 “많은 벤처기업들에게 KMW가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

KMW는 무선통신 기지국에 들어가는 장비를 생산하며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다. 안테나와 무선(RF)부품인 리모트 라디오 헤드(RRH)를 주로 생산한다. 3년 전부터는 LED 조명사업을 추진하면서, 최근 미국 등 해외 시장을 두드리고 있다.

김 회장의 창업은 1991년 서울 구로동에서 직원 1명과 함께 시작했다. 삼성-HP, 대우통신 등에서 9년간 직장생활을 하다 35살의 나이에 창업에 결심했다. 김 회장은 당시 8000만 원짜



김덕용 KMW 회장이 12일 경기도 화성 본사에서 자신이 만든 스펀셀 장비를 들고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리 아파트를 매각해 자본금 5000만 원을 마련했다.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창업에 결심한 그에게 당시 동료들은 미쳤다고 손가락질했다. 그는 “당시 관심이 없었던 이동통신 사업 아이템을 갖고 창업을 한다고 하니 주변의 반대도 심했다”면서 “하지만, 언젠가 이동통신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해 부품 국산화부터 추진했다”고 말했다.

시작은 좋지 않았다. 창업한 후 3년간은 매출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아 집에 생활비도 주지 못했다. 하지만, 2000년대 초 무선통신 기지국 장비 시장이 열리자, KMW는 점차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선제적으로 관련 투자를 진행한 것도 도움이 됐다.

김 회장은 “초반에 힘들었지만,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이 등장하면서 회사도 함께 급성장했다”며 “1991년 3000만 원에서 1997년엔 500억 원까지 매출이 올랐고, 외환위기(IMF) 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고 회상했다.

IMF를 견뎌낸 KMW는 2013년 25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상승장구했다. 하지만, 주요 시장인 미주지역의 투자 지연 등 업황 악화로 최근 2년 동안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최근의 회사 상황은 좋지 않았다.

김 회장에게 남은 숙제는 무너진 실적을 되살리는 것이다. KMW는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KMW 직원들이 경기도 화성 본사에 위치한 공장에서 무선통신 기지국 안테나를 조립하고 있다.

2198억 원의 매출과 448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었지만, 사업이란 게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다균요. 최근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돌파구는 있을 겁니다. 올해는 LED 조명사업의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게 당면 목표입니다”라고 담담히 말했다.

그는 적자 속에서도 묵묵히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400억 원대의 적자에도 R&D에만 350억 원을 투입했다.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려는 기업은 미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매출액의 15%는 R&D에 쓸 겁니다.” 그의 경영신조이자 자신감이 시장에서 증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글·사진 김정유 기자 thec98@

## 김기자가 써보니

직토 스마트밴드 ‘직토 워크’

### 구부정한 걸음걸이 감지 손목진동으로 깜짝 지적 깔끔한 인상까지 매력적



직토 워크 측면의 버튼을 두 번 누르면 걸음걸이 횟수가 나온다. 한 개의 버튼으로 시간, 걸음걸이 수, 걸음걸이 점수, 전화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웨어러블 기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손목에 스마트밴드 하나씩을 차고 있는 모습은 일상이 됐다. 화려한 색상과 디자인에 운동량·심박수·시간 표기 등의 기능을 손목 위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직장인들과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핏빗’, ‘미밴드’와 같은 해외 스마트밴드 이름도 이젠 낯설지가 않다.

이런 가운데 국내 스타트업 직토는 지난해 스마트밴드 ‘직토 워크’로 미국 최대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킵스타터’에서 16만 달러(약 1억8000만 원)를 모아 화제가 됐다. 핏빗, 샤오미, 애플과 같은 글로벌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스마트밴드 시장에도 전장을 내민 셈이다. 올해부터는 국내외에서 본격적으로 영업과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직토 워크’는 검정색 LED 디스플레이에 하얀 불빛으로 시간·걸음걸이 점수·전화·문자메시지 등을 최대한 간략하게 나타내 절제의 미를 살렸



### 아시아디자인 어워드·iF디자인 어워드 수상 걸음걸이 교정 기능 핵심... 수면상태 체크도 팔을 이용한 작업 진행시 정확한 측정 아쉬워

다. 디자인이 미밴드보다 낫다는 것이 ‘직토 워크’를 본 주변인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이 제품은 지난해 ‘아시아디자인 어워드’를, 올해는 ‘iF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다.

이 제품의 차별점은 걸음걸이 교정 기능에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연동시킨 후 ‘직토 워크’를 손목에 차고 걸거리로 나섰다. 팔의 움직임을 감지해 걸음걸이를 교정해주는 기능이 핵심이다. 길을 나선 지 불과 10여 분 만에 ‘직토 워크’에서 진동이 전해졌다. 화면에는 ‘PH’라는 글자가 써 있었다. 핸드폰을 보고 걸었다는 지적이다.

자세를 가다듬고 다시 길을 걸었다. 하지만 15분을 채 넘기지 못했다. 이번엔 ‘DR’이라는 글자가 나타났다. 티벳어발 발걸음에 충격을 주고 걷지 말라는 신호다.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진동을 통한 진소리는 의외로 바른 걸음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됐다. 앱을 켜보니 각종 좋지 않은 걸음걸이 유형이 횟수로 기록되고, 이에 따른 걸음거리 점수가 집계됐다. 점수는 70점. 낮게 수준은 아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기능은 수면상태 체크다. 총 수면시간과 뒤척인 횟수, 깨어난 횟수를 모두 잡아낸다. 전날 숙면을 취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 또한 연동된 앱에서는 걸음걸이 점수를 통해 취약한 부분의 운동법을 친절하게 소개해주기까지 한다.

아쉬운 점도 있다. 팔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오는 날 우산을 쓰고 길을 걸거나, 팔을 이용한 작업을 했을 때 정확한 측정이 힘들었다. 하지만, 그 외의 상황에서는 비교적 정확한 측정으로 사용자들의 주의를 일깨워줘 큰 문제는 없다.

김정유 기자 thec98@

## 맞수열전

### 스타트업 격전지 ‘모바일 잠금화면 플랫폼’

# 콘텐츠 늘리는 ‘캐시슬라이드’ vs 광고 네트워크 확장 ‘허니스크린’

모바일 잠금화면 플랫폼 시장이 스타트업들의 격전지가 되고 있다. 모바일 잠금화면 플랫폼은 스마트폰 잠금화면에서 광고, 콘텐츠를 보고 현금 적립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가장 먼저 모바일 사용자들과 만나는 접점이어서 파급력도 크다. NBT가 2012년 처음으로 ‘캐시슬라이드’를 선보이며 불을 지핀 국내 모바일 잠금화면 플랫폼 시장은 후발주자 버즈빌의 ‘허니스크린’이 가세하면서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캐시슬라이드, 모바일 미디어로... 동영상 역점 = NBT에 따르면 캐시슬라이드는 출시 3년 만에 누적가입자 1600만 명을 달성하고, 일간 사용자도 260만 명까지 대폭 늘었다. 연 매출액도 출시 초기 3억 원에서 지난해 600억 원까지 늘어나는 등 각종 지표상 업계 1위 자리를 공고히 유지하고 있다. 이에 2013년과 지난해엔 총 18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도 성공했다.

국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캐시슬라이드는 이젠 모바일 미디어 플랫폼으로 진화를 계획하고 있다. NBT 관계자는 “처음엔 광고를 보여주고 현금 또는 포인트를 보상으로 주는 광고 플랫폼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다양한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모바일 미디어 플랫폼으로 가는 것으로 사업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론칭한 ‘캐시슬라이드TV’가 이를 위한 첫 걸음이다. 캐시슬라이드TV는 유튜브와 같

	캐시슬라이드 (NBT)	허니스크린 (버즈빌)
※ 출처: 각사		
600억 원	2015년 매출액	100억 원
1600만 명	누적가입자수	730만 명
260만 명	일간사용자수(DAU)	200만 명
1억4000만 회	1일 뷰 횟수	9000만 회

**캐시슬라이드**  
출시 3년 만에 가입자 1600만명  
모바일 미디어 플랫폼 진화 목표  
‘캐시슬라이드 TV’ 론칭 첫걸음

은 앱을 통하지 않고 잠금화면에서 바로 동영상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다. NBT는 올해 캐시슬라이드TV의 동영상 콘텐츠 비율을 현재보다 3배 이상 늘리고, 단계적으로 콘텐츠 차별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

NBT 관계자는 “보상 앱이라는 인식을 탈피하기 위해 콘텐츠 강화에 집중, 어느 정도 인식 개선을 이뤘다고 본다”며 “조만간 다양한 제

**허니스크린**  
안드로이드·iOS 체제서 모두 지원  
SW 키트 ‘SDK’ 8개 브랜드 공급  
6개사 추가 계획... 제휴확대 주력

휴업체들과 함께 여러 형태의 콘텐츠 공급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버즈빌, 광고 네트워크 강화... 제휴점 확대 주력 = 캐시슬라이드에 이어 2013년 초 출시된 버즈빌의 ‘허니스크린’은 안드로이드와 iOS 두 운영체제에서 모두 구동이 가능하다. 안드로이드 체제에서만 구동하는 캐시슬라이드에 비해 접근성이 높다. 출시 3년 만에 일간 사용

김정유 기자 thec98@

# 가구를 놓다...마음을 놓다...

## 고효율+친환경 '스마트 인테리어'

최근 인테리어 트렌드는 단순히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넘어서 건강한 생활을 향유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친환경은 기본에 실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스마트 기기의 사용 증가 등을 디자인에 반영해 사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한다. KCC는 아토피를 유발하는 새집증후군으로 고민하는 소비자들을 걱정해 멀어줄 스마트한 바닥재를 내놓고 있다. 요즈음 사회문제까지 발전한 증간소음을 줄여주는 제품도 인기다. LG하우시스는 옥수수 유래 식물성 수지를 적용한 원목 마루를 비롯해 고단열 창호 제품으로 건강하면서 에너지 절약 기능도 있는 인테리어를 제공한다. 에몬스가구 역시 수면 공간을 넘어서 여가 공간 연출이 가능하도록 디자인과 편안함, 효율성을 디자인에 접목시켰다.



**LG하우시스** 지아마루 원목·녹차·수퍼세이브3

**KCC** 숲 그린 편백·숲 소리 휴

**에몬스가구** 시크릿가든 침실시리즈

## 난방효율·친환경 등급 최상위 '안심'

LG하우시스는 친환경 마루와 고단열 창호를 통해 건강한 인테리어 공간을 제안한다.

LG하우시스의 '지아마루 원목'은 원목의 이음 부위를 가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디자인해 편안한 보행감을 제공하며, UV코팅층을 적용해 오염과 수분에 강하다. 또한 표면 브러싱 처리로 천연 나무의 질감을 강조함으로써 실제 나무의 고급스러움을 연출하는 등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이다.

'지아마루 녹차'는 합판에 천연 무늬목을 얹어 울려서 원목의 느낌을 최대한 살린 합판마루로, 표면의 무늬목과 하부 합판 사이에 유해성분 흡착 효과가 있는 녹차 성분을 추가해 친환경성을 높였다. 우수한 열 전달력으로 난방 효율까지 높아 국내 온돌 문화에 적합하다.

'지아마루 원목'과 '지아마루 녹차'는 FITI시험연구원 실험 결과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0.3mg/l 이하로, 최고 등급인 SE0(Super E0)를 충족하며 우수한 친환경성도 갖췄다.

가공 목적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에 따라 친환경 등급이 가장 낮은 E2에서부터 E1, E0, SE0로 나뉘는데,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E0 이상 등급만 친환경 자재로 인정해 실내 가구용으로 허용하고 있다.



LG하우시스 모델이 지아마루 원목과 녹차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수퍼세이브3'는 합리적 가격의 보급형 창호로 개보수 시장 공략을 위한 제품이며, '수퍼세이브5'는 이지 오픈 손잡이, 곡면 모서리 등 편의성을 높인 고급형 제품이다. '수퍼세이브7'은 창문의 입체감을 높이기 위해 이중 에지 프레임 적용하는 등 편의성과 디자인 효과를 극대화했다.

수퍼세이브 시리즈 전 제품은 로이유리를 사용해 이중창 적용 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달성해 냉난방비를 40% 절약할 수 있다.

한편 LG하우시스는 노후 아파트를 찾아가 고단열 창호 제품을 알리는 '지인(ZIN)이 찾아갑니다'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창호 교체 고객에게 무이자 고단열 창호를 제공하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이곳들 기자 flowerslee@

## 새집증후군·증간소음 걱정 '훌훌'

인테리어 시장에 실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바닥재 제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우리 생활공간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데다 피부를 맞닿고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KCC는 국내 최초로 천연 편백나무 피톤치드가 함유된 친환경 바닥재 'KCC 숲 그린 편백'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증간소음을 줄여주는 바닥재 제품 '숲 소리 휴(休)'를 출시했다.

편백나무의 천연 피톤치드로 실내 공간을 숲속처럼 쾌적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바닥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숲 그린 편백'은 친환경 제품을 고르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적극 반영한 제품이다. 피톤치드는 나무가 해충과 병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내뿜는 자연 항균 물질로, 살균 효과가 있으며 아토피를 유발하는 집먼지진드기의 번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톤치드를 많이 방출하는 나무가 편백나무다.

'숲 그린 편백'은 두께 1.8mm의 경보행 장판으로, PVC 바닥재의 최상위 부분인 UV 코팅층에 편백나무에서 추출한 오일을 적용해 살균 및 탈취 효과가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KCC가 지난해 9월 FITI시험연구원을 통해 테스트한 결과에 따르면 '숲 그린 편백'은 항곰팡이성 테스트에서 곰팡이



증간소음을 저감 효과가 있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KCC의 바닥재 숲 소리 휴.

가 자라지 않는 0등급을, 또 폼알데하이드 탈취율은 27%로 일반 바닥재 대비 2배가량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닥재에 고기능성을 더해 소음을 흡수하고 완화하는 기능을 갖춘 제품 '숲 소리 휴'는 두께 6.0mm의 경보행 장판으로, 고강도 쿠션층을 적용해 소음 및 충격 분산 효과가 있다. 실제 KCC가 실시한 소음 저감량 테스트 결과 일반 콘크리트 맨바닥 대비 33%의 경량충격음의 감소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숲 소리 휴'의 고탄력 쿠션층은 소음 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보행감이 우수해 노인이나 어린이를 위한 시설 등 안전이 중요시되는 장소에도 적합하다. 이와 함께 고강도 투명층으로 내구성을 높여 변색, 변형, 찍힘에 강한 것도 강점이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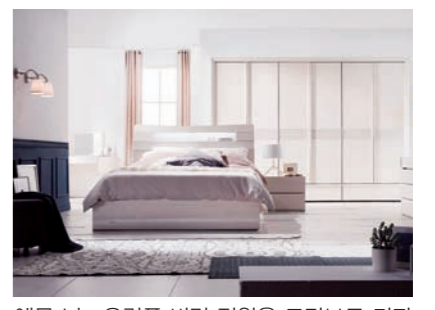
## 스마트라이프 접목... 침대에서 놀자

에몬스는 유럽풍 비밀 정원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시크릿가든 침실 시리즈로 고풍스럽고 자연스러운 인테리어 연출을 추천한다.

집에 대한 가치가 휴식과 힐링을 강조하는 트렌드로 형성되면서 거실에서 기능을 개인 공간인 침실로 옮겨와 음악감상을 하거나 TV·책을 보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에 에몬스는 침대가 갖는 단순한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침대에 LED 조명과 USB 포트 기능을 접목했다.

'시크릿가든 침대'는 스마트폰이나 안경, 책 등을 놓을 수 있는 선반과 5단계 밝기 조절이 가능한 LED 감성 조명이 적용돼 있다. 블루, 화이트, 옐로 등 색상 변경이 가능해 각각의 생 각 특유의 파장과 온도를 이용한 컬러 테라피도 즐길 수 있다. 이로써 부드러운 침실 공간에서 수면 전 독서나 영화감상을 할 수 있다. 30분 후 자동 소 등 기능도 있다. 또한 스마트 기기를 자주 사용하는 현대인의 생활패턴을 반영해 USB를 내장해 고객의 편의까지 고려했다.

에몬스 침대 시리즈의 옷장은 화이트 색상의 고풍택 도어 중앙에 기하학적 패턴을 적용했다. 또한 강화유리 소재에 거울이지만 내부의 빛이 있으면 유리처럼 내부가 보이는 하프기법



에몬스는 유럽풍 비밀 정원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시크릿가든 침실시리즈를 추천한다.

을 적용해 밝은 곳에서는 은은하게 부드러운 침실 공간을 연출해 준다.

에몬스는 옷장, 이불장, 다용도장 등에도 내부 수납과 액세서리 서랍 등을 기능별로 구성해 사용자가 편리하게 수납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제품 친환경 EO등급 자재로 구성했다. 장롱 내부는 공기정화, 탈취효과 등을 위해 잠옷볼을 내장하고, 천연 옥성분이 함유된 프리미엄 에코보드를 사용했다. 이는 원적외선과 음이온 등으로 공기중에 유해한 물질과 세균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에몬스의 '시크릿가든 침대'는 6월 한국표준협회 주관하는 2016 대한민국 혁신대상에서 신규성, 혁신성, 창의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대상 수상한 바 있다.

김하늬 기자 honey@

The SOOSOSO hydrogen water

Our Mission : Whenever, wherever, whoever possible to drink.

## 파격적인 가격! 최초 선택한 무선전원 방식 최초 선택한 포트형 수소수생성기

### 더 수소수/신의한 水

신제품 출시 이벤트 50%  
1,000대 한정판매



- 최소 1,000ppb 이상 높은 수소농도 유지
- 수소농도시간이 오래 유지
- 온도변화에 따른 수소농도량 유지
- 무선 전원 방식 시스템으로 사용 편리
- 전세계 어디서나 DC 5V, 2A / 소비 전력 5W 이하
- 친환경 트라이탄 BPA-free 소재 (환경호르몬 비검출)

수소수 생성기 TSH-100(용량:1.2L)

· 제조원 (주)솔고바이오메디칼 · 판매원 (주)더수소수

(주)더수소수 신제품 출시 기념 혁신 특가 66,000원×3(카드 무이자 3개월) | 24시간 무료상담 080-280-5555

www.theSOOSOSO.com  
통신판매업자신고번호 : 제2016-기인상-1137호

# '한국화장품' '휴젤'... 2분기 깜짝 실적에 활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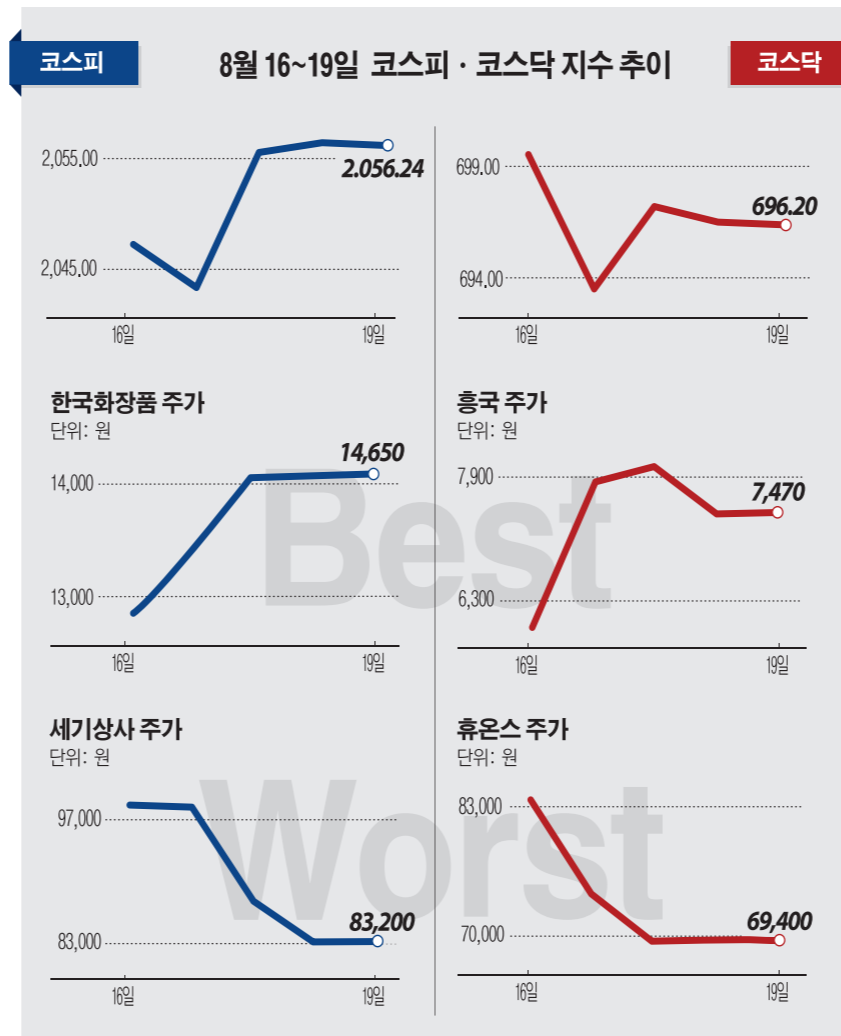
베스트&워스트  
8월 16~19일

◇한국화장품, 깜짝 실적에 상한가... 48%↑ = 지난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2분기 발표된 실적에 따라 주가가 크게 움직였다.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은 한국화장품이다. 한국화장품은 올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52억4374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지난 12일 장 마감 후 발표했다. 지난해 2분기에는 9억원의 손실을 냈었다. 황금에스티도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지난주 주가가 17% 올랐다. 16일 황금에스티가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56억 8800만원으로 전년 동기(16억1596만원)와 비교해 3.5배(252%) 이상 상승했다. 신화실업은 브라질 넌조(Nenzo)사 지분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17일

다. 지난해 2분기 18억원이 넘었던 순손실도 59억5795만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품질주' 세기상사, 차익실현 물량 출회... 21.9%↓ = 지난주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락 폭이 가장 컸던 종목은 세기상사로 한 주간 21.88% 하락했다. 세기상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0일 하루를 제외하고 10거래일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달 5만원대였던 주가는 12일 10만6500원으로 마감했고 장중에는 12만원 선도 돌파했다. 올해 반기보고서 상 세기상사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전체 지분의 54.88%를 보유하고 있다. 소액주주 비율은 36.24%로 유통 주식 수가 적은 '품질주'로 분류된다. 지난 10일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에 대해 회사 측은 "주가

8월 셋째 주(16~19일) 유가증권시장은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12일보다 0.28%(5.77포인트) 오른 2056.24포인트에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 이 출로 5203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5474억원, 1276억원을 순매도했다.

8월 셋째 주(16~19일) 코스닥시장은 전 주보다 1.27%(8.98포인트) 하락한 696.2포인트로 마감했다. 기관에서 2127억원 규모 매물이 쏟아지며 하락세를 부추겼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411억원, 137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피 상승 10종목**

종목명	19일 시가 총액	증가(원)	증가(%)	주기등락률(%)
한국화장품	235.40	9.890	4.20%	48.13
신화실업	30.80	21.450	69.64%	18.18
제일약품	1248.89	71.700	5.74%	17.29
황금에스티	105.00	6.410	6.10%	17.00
티스	42.60	18.250	42.84%	16.71
성원전자	142.04	7.370	5.19%	16.42
천일고속	158.64	96.400	60.83%	15.15
CS홀딩스	110.72	84.000	75.87%	14.17
GS글로벌	240.59	2.555	1.06%	14.09
한진	428.69	31.400	7.33%	14.01

**코스피 하락 10종목**

종목명	19일 시가 총액	증가(원)	증가(%)	주기등락률(%)
현대리프트	416.01	28.000	6.73%	-13.93
아비스타	33.77	2.140	6.34%	-14.72
코리아오토클러스	393.00	23.200	5.90%	-15.30
오리온	4,458.16	898.000	20.14%	-16.93
이티스	55.48	3.340	6.02%	-17.07
한메에스앤에프	444.00	13.500	3.04%	-17.78
샘표	148.81	84.200	56.65%	-18.17
한세실업	1,030.00	31.850	3.10%	-19.15
백산	344.86	6.250	1.81%	-19.52
세기상사	33.91	106.500	314.10%	-21.88

**코스닥 상승 10종목**

종목명	19일 시가 총액	증가(원)	증가(%)	주기등락률(%)
휴젤	46.03	5.340	11.60%	39.89
스피로글로벌	119.58	4.990	4.17%	34.87
케이엔디블유	61.43	8.420	13.71%	28.86
에이텍	52.37	4.945	9.44%	28.21
삼아제약	191.42	23.650	12.36%	27.06
휴온스	1,444.66	351.900	24.36%	25.01
와이엘씨	87.31	7.120	8.04%	24.30
신화콘텍	63.79	6.940	10.88%	23.05
태웅	521.35	23.450	4.50%	22.39
비에이치	179.80	9.470	5.27%	21.44

**코스닥 하락 10종목**

종목명	19일 시가 총액	증가(원)	증가(%)	주기등락률(%)
한국기구	63.00	48.950	77.70%	-14.20
아이원스	221.98	24.650	11.10%	-14.20
시노텍스	118.69	2.160	1.82%	-14.58
윌렉스	45.43	3.945	8.68%	-14.70
뉴프릭스	45.36	4.370	9.63%	-15.10
정원테크	71.33	13.950	19.56%	-15.41
CMG계약	365.03	4.965	1.36%	-17.12
처음엔씨	137.28	13.000	9.47%	-18.46
에스엔유	125.00	6.150	4.92%	-18.70
휴온스	409.15	86.200	21.07%	-19.49

신화실업' 브라질기업 인수 검토...17일 하루 26%↑  
'한세실업' 재고부담에 원화강세까지 이종고 19%↓  
상승세 이어오던 '세기상사' '샘표' 차익매물에 약세

주가가 26.54%까지 올랐다.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신화실업 측은 "해외 역량 강화와 수익원 창출의 일환으로 넌조사에 출자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18일 답변했다. 차익 실현 물량으로 19일 주가가 7.48% 하락했다. 천일고속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 매각설에 주가가 요동치며 한 주간 15.15% 상승했다. 17일 매각설이 퍼지며 천일고속 주가는 29.69%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18일 회사 측이 거래소의 조회공시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면서 주가는 다시 15.63% 하락하는 등 롤러코스터 정세를 연출했다. 지난주 14.09% 오른 GS글로벌 역시 2분기 영업이익이 약 전년보다 약 두 배 가량 늘어난 호실적을 공시했다. 16일 GS글로벌이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12억 1369만원으로 전년 대비 96.36% 증가했

상승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한세실업은 실적 부진에 환율 약세가 겹치며 지난주 19.15% 하락했다. 한세실업의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9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 줄었다. 고객사 매출 부진으로 재고 부담이 커지고 마진이 하락하면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3분기 실적도 악화될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이 나오면서 기관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졌다. 샘표는 지난주 주가가 크게 오른 뒤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18.17% 하락했다. 지난 9일 식품사업부문 샘표식품과 지주회사 샘표로 분할 재상장한 후 이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지난 한 주간 115% 이상 올랐다. 그러나 16일 개인이 12억원 규모의 차익실현 매물을 내놓은 데 이어 17일 이후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며 상승분을 반납했다. 정다운 기자 gamia@

◇흥국, 이유 없는 상승세... 39.9%↑ = 지난 한 주간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던 종목은 흥국으로 39.89% 올랐다. 상승세에는 뚜렷한 이유가 없었다. 일부 주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기 UN 사무총장과 흥국 사주인 류종목 회장, 류명준 대표이사 부자가 모두 서울대 동문이라며 '테마주'를 부추기는 정보가 제공됐다. 지난주 주식시장에서 상승세를 주도한 것은 개인으로 2만7374주를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7040주, 기관은 1703주를 순매도했다. 에이텍 역시 예비 대선주자로서의 연결 고리가 주목 받으며 28.21% 올랐다. 에이텍은 성남시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재명 성남시장과 엮인 '테마주'로 취급되고 있다. 이 시장이 최근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히면서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풀

사에 권장하고 있다. ◇휴온스, 분할상장 효과 고무라졌네... 19.5%↓ = 지난주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하락폭이 컸던 종목은 휴온스다. 특별한 약제는 없었지만 기관이 대거 매물을 내놓으며 19.49% 하락했다. 휴온스는 지난 6월 3일 완제의약품 제조 사업부문을 휴온스글로벌로 인적분할한 후 재상장했다. 당시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에서는 재상장한 휴온스의 주가가 14만원 이상 오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6월 중순까지 주가는 10만원대에 머물렀지만 이후 소폭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6만원 선까지 내려갔다. CMG계약은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주가가 17.12% 급락했다. CMG 계약은 705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

대선후보 테마주 '흥국' '에이텍'...개인 순매수에 강세  
'휴온스' 2개월만에 분할상장 효과 떨어지며 20% 폭  
'CMG계약' 705억 규모 유상증자 소식에 17% 급락

이된다. 에이텍의 급등세도 개인이 이끌었다. 개인은 지난 한 주간 34만8372주를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15만6079주, 기관은 18만763주를 팔아치웠다. 휴젤은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25.01% 올랐다. 휴젤은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63억58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2.7% 늘었다고 지난 16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도 140억3000만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신화콘텍은 삼성전자에 특정 부품을 개발·생산해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난주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18일 신화콘텍 관계자는 "3.1 USB 타입-C 포트 삼성전자 갤럭시노트 7에 적용해 공급 중"이라며 "기존 2.0 USB 타입 포트를 3.1로 교체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USB 시장 포럼(USB-IF)에서는 USB 타입-C를 증강현실 등 사물인터넷 시대 표준 규격으로 발표하고 제조

권주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7일 장 마감 후 공시했다. 시설자금 450억원, 운영자금 255억원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예정발행가는 3525원으로 최근 주가에서 약 30% 가까이 할인된 가격이다. 신주는 오는 11월21일 상장될 예정이다. 장원테크는 2분기 실적 부진이 주가에 반영되며 15.41% 하락했다. 장원테크는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5억9200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5.2% 감소했다고 16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도 23억3100만원으로 전년 비 27.7% 줄었다. 아이원스도 2분기 실적 악화로 지난 주 내내 하락세가 이어지며 14.02% 하락했다. 2분기 개발 기준 영업이익은 2억5537만원으로 전년 동기(12억1723만원)보다 79.02% 줄었다. 특히 지난해 2분기 80억원에 달했던 순이익은 올해 1억 원 수준의 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정다운 기자 gamia@

《7번 읽기 공부법》의 저자 아마추어 마유, 이번엔 '일하는 법'이다!

요리에 레시피가 있듯  
업무에도 레시피가 필요하다!  
**업무의 잔기술**



아마추어 마유 지음 | 김현화 옮김  
176쪽 | 한빛비스 | 값 11,200원

도쿄대 법학부를 수석 졸업한 변호사, '업무의 잔기술'을 익힌 뒤에야 능력을 인정받다!  
업무에 필요한 것은 고도의 기술이 아니라 '소소한 기술'이다!

도쿄대 법학부 수석 졸업, 재무성 관료, 변호사. 사람들은 그녀를 엘리트라 불렀지만 정작 직장에서 인정받은 것은 '일상 업무를 잘하게 해주는 소소한 기술'을 알게 된 후부터다! 업무를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고도의 기술도, 업무 철학도 아닌 '구체적인 노하우의 축적'이다. '일이 바쁠 때는 무엇을 하지 않을지부터 생각한다.'처럼 읽는 순간 바로 따라할 수 있고 어떤 직장에서도 완벽하게 통하는 강력한 기술을 알려준다!

문의: 02-2128-8773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치투자 불패공식

팟캐스트 경제투자 분야 1위  
실전분석 투자종목 15  
**불곰의  
주식투자  
불패공식**



불곰, 박선목 지음 | 376쪽  
부키 | 값 16,000원

60개 매도 종목 평균 수익률 62%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불곰주식연구소 대표 '불곰'이 알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주식투자 불패공식'. 2010년 8월에 문을 연 이래 71개월간 60개 매도종목으로 평균 수익률 62퍼센트를 달성한 불곰주식연구소의 투자 노하우가 모두 수록되어 있다. 재무제표와 아이템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것을 권하는 이 책은 매일의 주가 등락에 초조해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꾸준한 수익이 보장되는 여유롭고 행복한 가치투자법을 익히도록 도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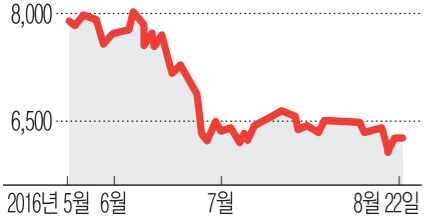
문의: 02-3142-0484



# 생체인증 시대... 청호컴넷 '홍채ATM'에 쏠린 눈



청호컴넷 주가 추이  
(단위: 원)



국내 상장사 중 유일하게 제조·공급... 교체 기대감에 수혜 무늬·형태·색 등 패턴 인식... 위조·변조 어려워 보안성 높아 울들어 우리은행 5곳서 운영... 최근 '갤럭시노트7'에도 탑재

삼성전자 홍채인식 탑재로 생체인증 서비스 도입이 전 금융권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이에 국내 상장사 가운데 유일한 ATM제조 공급사인 청호컴넷 역시 발 빠르게 준비 중이다.

청호컴넷은 현재 홍채인증 모듈을 탑재한 ATM을 개발해 상용화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홍채인식 기능이 탑재된 '갤럭시노트7' 출시로 금융권 내에서 생체인증 서비스를 앞다퉀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이

홍채인증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생체인증 서비스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금융자동화기기(ATM) 시장에도 생체인증 바람이 불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정맥인증, 홍채인증 기능이 적용된 금융자동화기기가 운영 중이다. 신한은행은 정맥인증 기술을 활용한 무인점포 '디지털 키오스크'를 25대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은 울해 들어 홍채인증 기술을 활용한 ATM을 전략점포 5곳에 설치했다.

홍채인증은 홍채 무늬, 형태, 색 등의 패턴을 분석해 인식하며 위조, 변조가 불

가능해 보안성과 정확도가 높은 것이 장점이다. 반면 정맥인증은 혈관의 패턴을 분석해 인식하며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 밖에도 안면인증, 지문인증 등의 기술이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정맥인증, 음성인증, 심전도인증 등 다양한 인증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도쿄미쓰비시은행, 미즈호은행 등이 손가락 정맥 인증 시스템을 ATM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영국 할리팩스은행과 캐나다 RBC은행은 웨어러블 밴드를 사용해 심전도로 인증하는 서비스를 시험운영 중이다.

생체인증 기술의 보안성 및 정확도가 향상되면서 ATM에 적용되는 생체인증 기술도 진화하고 있다.

이에 주식시장에서는 코넥, 신화콘텍, 엠씨넥스, 칩스앤미디어 등 홍채인식을 적용한 갤럭시 7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이 높다.

업계에서는 금융권 내 생체인증 활용이 ATM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어 관련 업체 수혜를 예상하고 있다. 향후 생체인증 ATM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청호컴넷이 대표적인 수혜주로 주목 받고 있다.

청호컴넷은 이미 안면인증 기술을 적용한 ATM 개발을 끝내고 관련기술의 특허 등록도 마쳤으며 홍채인증 모듈을 탑재한 ATM도 출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호컴넷 관계자는 "생체인증 기술이 금융권에서 확대 사용될수록 온·오프라인 호환을 위해 생체인식 ATM 시장도 동반 성장할 것"이라며 "전문인력 보강, R&D 확대 등 빠르게 성장하는 생체인증 ATM 시장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 佛기업, 솔고바이오 자회사에 투자

트레이스일렉 지분 15% 매입... 유럽진출 위한 OEM독점계약도

히팅케이블을 생산하는 솔고바이오 자회사가 프랑스 기업의 투자를 받아 향후 유럽 시장 진출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했다.

19일 솔고바이오에 따르면 자회사 솔고파이로일렉은 최근 프랑스 엔지니어링 기업 트레이스일렉(TRACELEC)과 외국인투자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트레이스일렉은 솔고파이로일렉 지분 15%(31만9786주)를 약 20만 유로(약 2억5000만 원)에 확보하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투자로 솔고파이로일렉의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트레이스일렉은 산업용 히트트레이싱(Heat Tracing) 및 누출감지시스템의 설계, 시공,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회사로 프랑스 리옹에 본사를 두고 스페인, 모로코, 영국 등 해외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솔고파이로일렉은 이번 투자로 유럽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투자는 단순한 이익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솔고파이로일렉 제품의 유럽 진출을 위한 OEM 독점 공급 계약, 신제품 공동 개발 합의서 등을

수반하는 전략적 연대"라고 설명했다.

양사는 산업용 히트트레이싱 제품의 유럽 진출과 신제품 공동 개발 및 업그레이드에 협력하게 된다. 또 유럽 주요 플랜트사에 히트트레이싱 공급업체로 정식 등록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주요 EPC 업체 등록도 계획 중이다.

솔고파이로일렉 이보환 대표는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 구축으로 유럽 시장 진출의 거점을 마련했다"며 "확보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 성과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설립된 솔고파이로일렉은 히팅케이블 등 전열제품을 개발, 산업용 플랜트 등에 시공, 인증, 유지보수 등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다.

최두선 기자 sun@

### 종목 돋보기

## 푸른기술, 금융·출입통제 '홍채인식' 상용화

삼성SDS·에스원 협력사로 시장대응 위해 테스트 완료 MOU 통해 모듈호환 개발 "요청 땀 곧바로 준비 가능"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의 홍채인식 기술 탑재로 생체인증 서비스가 금융권뿐 아니라 입출입 등 보안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삼성SDS 역무 자동화기기 협력사이자 삼성에스원 보안 관련 공급 업체인 푸른기술은 홍채인식 기술 도입 테스트를 완료하고 선제적인 시장 대응을 준비 중이다.

19일 푸른기술에 따르면 홍채인식 기술을 가진 회사들과 MOU를 체결해 해당 기술을 ATM 금융 모듈과 호환하고 인식해 금융 프로세스에 전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CCTV 등 입출입 보안 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푸른기술 측은 "현재까지 금융업계에서 주문이 들어와 시제품을 납품한 상황은 아니지만, 요청이 들어오면 홍채인식 기술을 언제든지 주문제작하고 상용화할 수 있게 테스트를 마쳤다"고 밝혔다.

푸른기술이 홍채인식 접목 프로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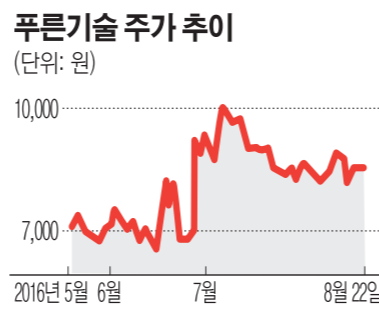
스를 꾸준히 개발하는 분야는 금융 시장뿐 아니다. 삼성에스원과 출입통제 시스템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어 보안 시장 전반에 걸쳐 연관이 있다.

회사 측은 "금융업계의 요청도 있겠지만, 현재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출입통제시스템이 보안 측면에서 생체인식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며 "지문인식에서 홍채인식까지 보안등급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테스트를 많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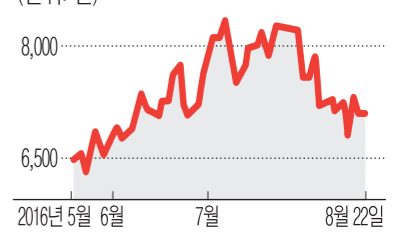
동사는 현재 명동 포스코타워, 팽택 LG CNS에 출입통제시스템을 자체 납품하고 있으며 삼성에스원과 구미 도레이공장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요 금융권의 ATM 모듈 납품업체는 LG CNS, 청호컴넷 등 3-4개 업체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금융권이 앞다투어 생체인증 서비스 도입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한다면 푸른기술 등에도 납품 요청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최두선 기자 sun@



## 현대아이비티 주가 추이



## '비타브리드C12 헤어' 제품 현대아이비티 중서 위생허가

현대아이비티는 중국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으로부터 '비타브리드C12 헤어' 3개 제품에 대한 위생허가를 취득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에 중국으로부터 위생허가를 받은 제품은 '비타브리드C12 헤어' 제품 중 헤어, 헤어 솔루션, 스크럽 솔루션 총 3가지다. 비타브리드C12 페이스 제품도 수주 내에 위생허가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일본에서 인지도를 굳힌 비타브리드 제품이 중국에서 위생허가를 받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중국 시장 공략에 가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이번 중국위생허가 취득은 최근 생활용품 전문 국영기업인 '람미엔팡'과의 제휴에 이어 중국시장 성장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상기 현대아이비티 대표는 "올 하반기 중국 유통시장 공략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중국시장의 성장을 발판 삼아 북미와 유럽시장 공략도 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현대아이비티는 최근 생활용품 전문 국영기업인 람미엔팡과 기술제휴협약(MOU)을 체결하고 105억 원에 이르는 중국시장에 본격 진출을 선언했다.

현대아이비티가 출시한 비타민화장품 '비타브리드'는 첨단 바이오킴을 비타민C에 적용한 신물질로 피부에 바르면 비타민C를 12시간 이상 지속해서 피부에 전달하는 신개념 비타민C 제품이다.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네이처(NATURE)와 앙케반트케미(Angewandte Chemie)에 차세대 바이오 융합 기술로 소개돼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비타브리드C는 미국재료화학회 MRS와 미국 화학협회의 화학전문지인 C&EM 등에서 다 미대 유망 기술로 소개됐다.

지난 4월에 세계 3대 품평회로 꼽히는 벨기에의 몽드 셀렉션(Monde Selection)에서 화장품 분야 최고 상인 '그랜드 골드' 상을 수상해 국내는 물론 해외 화장품 업계에서도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송영록 기자 syr@

## 벅스, 국내 첫 1800만 곡 '뮤직 큐'

최근 해외 레이블과 독점계약... 모바일 앱 통해 먼저 1000만 곡 제공

벅스는 국내 최초로 1000만 곡을 실 서비스하며, 국내 음악 서비스 업계 중 최다인 1800만 곡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벅스는 대규모 음원을 보유한 해외 레이블과 연이어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1800만 곡을 확보하게 됐다. 이 중 1000만 곡이 벅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나머지 음원의 실 서비스 작업을 완료하면서 '2000만 곡 서비스' 시대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고음질 음원 FLAC(Free Lossless Audio Codec) 역시 240만 곡을 보유하며 국내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2009년 국내 처음으로 FLAC 음원 다운로드 서비스를 시작한 벅스는 '슈퍼사운드'라는 캠페인 아래 고음질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벅스는 1000만 곡 서비스를 기념해 신 개념 음악 멤버십 '나노 클럽'을 한 달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한 시작으로 진행한다. '나노 클럽'은 1년

간 매달 3000원에 무제한 음악 감상, 웹툰 플랫폼 '코미코(Comico)' 5000원 자유이용권 매출 제공, 티켓링크 예매 수수료 면제, 유명 카페 체인점에서 커피 구매 시 20% 상시 할인 등 혜택이 풍성한 멤버십이다.

벅스 측은 "다양한 음악을 좋은 음질로 제공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국내 최초 1000만 곡 서비스로 이어진 것 같아 기쁘다"며 "회원 분들의 다양한 음악적 욕구가 벅스에서 해결되고, 깊은 만족까지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 '갤럭시노트7 부품株' 신화콘텍 26%·캠트로닉스 18%↑

### SP 주간동향

8월 셋째 주 분지 유료회원들에게 먼저 공개하는 스타프리미엄에서는 종목 돋보기 6건의 기사가 게재됐다.

이 가운데 주가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기사는 '신화콘텍, 갤럭시7 부품 공급...AI·증강현실 차세대 표준 규격 제품'이었다. 기사 게재 당일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고, 주간 상승률은 26.52%를 기록했다.

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매출 비중 80%로 알려진 신화콘텍이 인공지능(AI)이나 증강현실 등 사물인터넷 시대 표준 규격 광장 부품인 USB 타입-C를 개발해 생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품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 7에 적용돼 공급 중이다.

신화콘텍 관계자는 "3.1 USB 타입-C 포트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 7에 적용해 공급 중"이라며 "기존 2.0 USB타입 포트를 3.1로 교체함에 따라 제품 성능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상장 당시 신화콘텍은

SP동향종목돋보기 기사 리스트 (종가기준)

기사명	당일 추가 등락률	주간 추가 등락률
신화콘텍, 갤럭시7 부품 공급...AI·증강현실 차세대 표준 규격 제품	29.93%	26.52%
캠트로닉스, 갤럭시7 무선충전 모듈 공급...PBA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22.74%	18.29%
청호컴넷, 홍채ATM 개발 상용화 추진...전 금융권 생체인증 교체 확산 예상	3.12%	3.12%
푸른기술, 삼성 자동화기기 협력사...홍채인식 보안시장 공급 위해 대응	1.42%	1.42%
희림, 1조1000억대 은마아파트 재건축 컨소시엄 참여	6.45%	3.41%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80%를 차지하는 업체로 투자자들에게 알려져 있다. 신화콘텍은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인 S1, S2, S3, S4까지 모두 같은 I/O 커넥터인 Micro USB 커넥터를 적용해왔다.

충전기와 데이터 케이블(data cable)에도 현재 신화콘텍이 양산 공급하는 Micro USB Plug가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캠트로닉스는 '갤럭시7 무선충전 모듈 공급...PBA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사에 당일 주가가 20% 이상 급등했다. 주간 상승률도 18.29%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캠트로닉스는 갤럭시 S7, 갤럭시노트 7 및 MOTO 360 스마트워치 등의 모바일 기기 무선충전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

캠트로닉스의 무선충전 사업은 흡수체/차폐제 소재 개발, 안테나/코일 설계 기술, 모듈화 기술 등 무선충전 토털 솔루션을 확보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자체 평가다. 여기에 PBA 시장 점유율 국내 1위 업체인 캠트로닉스가 이에 하반기 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 밖에 희림은 재건축은 재건축 사상 최고 설계가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컨소시엄에 참여했다는 소식이 주가가 상승했다. 또 푸른기술이 홍채인식 기술 도입 테스트를 완료하고 선제적인 시장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기사도 이 회사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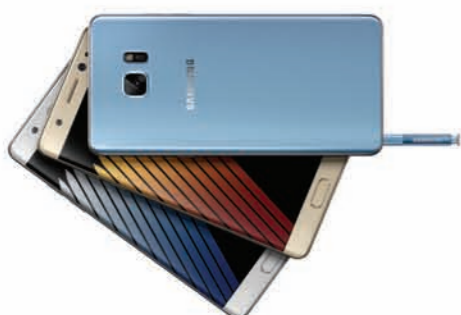
송영록 기자 syr@

# SAMSUNG

어두워도 자유롭게  
저조도 카메라로 남다르게



| 어둠 속에서 움직여도 밝고 빠르게 찍히는 듀얼픽셀 & F1.7 카메라 |



자유롭게 남다르게  
**Galaxy Note7**